10분 정도가 흘렀을까.

여전히 우리의 천사님들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을 나누느라 바빴다. 나는 손목에 쇠고랑을 찬 채로, 침대 위에 널브러져 그런 둘의 모습을 눈동자만 개똥벌레마냥 데굴데굴 굴리며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체 저게 무슨 얘기들이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뭐, 이를 테면,

“기억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역시 내 주치의를 부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마법으로 강제로 깨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안 좋아 보이는데, 다른 부작용이라도 생겨버렸다간 ”

“ 듣고 보니 그렇군요.”

같은 대화내용들.

뭐시라? 저기요. 누구 씨의 움직이는 성에서 나올 법한 단발 천사님과 책벌레 금발 천사님, 지금 말 다했습니까? 예!?

아까부터 자꾸 마법이니 어쩌니, 기억 상실이니 어쩌니 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두 명의 천사자식, 이 아니라, 님들.

아니, 저기요. 제 기억은 멀쩡하단 말입니다! 물론 내 정신건강도 댁들 걱정 따윈 필요 없을 만큼 멀쩡하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던 고3을 앞둔 고2였다는 사실도,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도, 내가 좋아했던 혈통빨 눈깔대전 만화책도, 게임도, 또 우리 엄마랑 아빠, 언니랑 오빠들 얼굴도 다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지금 당장 우리 집안 족보를 계보로 그려보라 시킨대도 가능할 만큼, 이렇게나 기억이 또렷한데.

뭐? 기억을 되찾아? 대체 무슨 기억을 되찾으라는 거야? 찾을 기억이 어딨다고. 내가 보기에 내 머리는 멀쩡하기만 하구만. 오히려 마법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얘기나 떠들고 있는 걸 보면, 댁들이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우?

지금처럼 나를 주제로 떠들어댈 거면,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당사자인 나한테 설명이나 좀 해주든가요, 이 몹쓸 천사님들아!

“이거나 좀 풀어주고 대화하시는 게 어때요, 다들?”

나는 그들이 대화하는 틈에 슬그머니 내 목소리를 끼워 넣어보았다. 그러자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매만지며 왈왈멍멍- 하는 대화에 열중하던 단발천사와, 여전히 책을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금발천사가 내게로 고개를 돌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데.

“널 어떻게 믿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라고?”

응?

야, 니들 짰냐? 짰지! 당장 그렇다고 순순히 대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 이 아니잖아!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묶어놓은 걸로도 모자라,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개소리 대전을 펼치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풀어달라고 요청해도 풀어주지도 않고 말야! 하, 이젠 슬슬 내 인내심에 한계가 오려고 하는데.

당신들 말야! 어? 이렇게 앞뒤 분간도 없이 사람을 묶어놓는 거, 범죄인 거 알아? 자그마치 감금죄 ! 앗, 잠깐. 천국에는 범죄 같은 개념이 없으려나? 아, 그럼 경찰도 없는 거잖아. 이런 미친. 어디 확 신고해버릴 수도 없고. 아니, 지금 상황은 오히려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한 기분인데?

나, 천국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무슨 죄라도 저질렀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없던 정신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다른 영혼을 뺑소니로 쳐버리기라도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서야, 내가 왜 이런 꼴로 붙잡혀 있단 말인가? 납득이 안 되는데.

“왜 위험해요? 저 이제 멀쩡한데요.”

비록 납득은 안 갈지언정, 일단은 풀려나는 게 먼저지. 나는 나의 멀쩡함을 어필해보았다. 트럭에 제대로 치이긴 했지만, 지금은 멀쩡한 게 맞으니까. 끄덕.

“아직은 안 멀쩡할 것 같으니까 안 풀어주는 거야.”

이어진 금발천사의 대답이었다. 아니, 그걸 왜 니들이 판단하는데? 당사자가 멀쩡하다잖아! 물론 정신병자들 중에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지만―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나는 진짜로 정신병력 같은 건 없는 입장이라고. 게다가 딱히 날뛸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꽁꽁 속박해둘 필요가 있어? 나는 없다고 본다만.

저 망할 천사님들도 참, 대답하는 것 좀 보게. 대체 내가 왜 위험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는 저 요망한 대답에 뭐라고 반박할까 고민해보다가, 이내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렇다. 딱히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무슨 수로 어필하지? 무슨 방법을 써야 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야 알지.

“흥분 마법은 뒤늦게 후폭풍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야. 너도 알고는 있겠지만.”

“마법으로 일깨우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겠군요. 의사를 부르는 편이 ”

"?"

세상에 마법 같은 게 어딨어? 마술사 말하는 건가? 흥분 마법은 대체 뭐고, 기억이 돌아오니 어쩌니 하는 건 무슨 소리들이란 말인가? 대체 지금의 나는 왜 기억을 잃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지? 이곳은 정녕 어디이며, 저들은 천사가 맞긴 한 것인가?

으윽, 머리 아파. 이런 순간에서야말로 설명충이 그립다. 누구 나한테 이 상황 설명해줄 사람 없어? 없다고? 와, 제대로 짜증이네, 이거.

이쯤 되면 들지 않을 수 없는 의문. 과연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사가 맞긴 할까? 내가 아는 천사들의 모습은 분명 머리 위에 황금색 링이 달려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런 것도 없다. 뭐, 물론 내가 아는 그 모습이 곧 천사의 모습일 거란 보장은 없지.

하지만, 일단 점점 들어오는 한가지 확신. 확실히 저들은 천사가 아니다. 생긴 것부터가 천사처럼 생겨 먹질 않았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연예인들의 뺨을 왕복으로 후려칠 만큼 잘생긴 얼굴들이긴 하다만, 따지고 보면 미남=천사라는 공식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사실 천사라고 생각했던 건 반쯤 장난이었고, 이젠 슬슬 저들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누구냐, 너희들. 정체를 밝혀라! 설마 내게 삼시세끼 군만두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겠지?

“알겠어, 일단 의사에게 진찰 받게 해보자고. 답은 약물치료 뿐인 것 같으니까. 괜찮지, 보호자 씨?”

“그게 좋겠군요.”

뭔데, 왜 금발이 내 보호자가 된 건데? 어리둥절하단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단발남자가 나를 흘끔 쳐다봐왔다. 그리고는 미묘한 눈빛으로 잠시 내 눈동자를 뚫어져라 응시해오는데 응? 지금 이거, 눈싸움 신청?

내가 눈을 찌릿! 하듯 부릅뜨며 노려보자, 단발남자가 갑자기 엄청난 자괴감이 든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인상을 확 찡그린다. 와, 뭔데. 그 표정. 대체 무슨 의미? 황당황당 봉황당.

“ 하.”

이내 그는 고개를 돌려버리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더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잠시 황당함을 잊고, 새삼 경악하듯 놀랐다. 다리 겁나 길어. 키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머리가 작고 몸매가 호리호리해서 그런가, 비율이 진짜 끝내주는데.

“ 응? 너는.”

와아. 얼굴도 잘난 게, 몸매까지 좋아? 질투와 더불어 감탄까지 해주자니, 이 방을 빠져나가려던 단발남자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나는 저 단발남자가 누구를 마주친 것인지 궁금해져, 시선을 그가 있는 방향으로 고정하며 유심히 응시해보는데.

누구지? 누군가가 이 방 문앞에 와있어.

단발남자는 아는 얼굴이기라도 한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만, 나는 영 모르는 얼굴이었다. 무슨 만화 속 캐릭터의 안경을 갈취해오기라도 한 듯, 이상한 뺑글이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였으니. 교복처럼 보이는 저 옷은 또 뭐가 저리 크단 말인가? 금발남자랑 똑같은 옷인데, 느낌이 어쩜 저렇게 다르담? 사이즈 줄여서 입을 줄 모르는 거니, 넌?

“왜 온 거지?”

금발남자가 상황을 확인하더니, 이내 문 쪽을 향해 물었다. 뺑글이 안경에게 한 말인 듯한데. 이내 그 말을 들은 안경이 싱글싱글 웃는 반응을 보여 왔다. 너 혼자니? 응, 싱글이야.

그리고는 답하길,

“벼, 병문안 차원 이랄까?”

라면서, 몹시 찐따처럼 말해왔다. 말더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일부러 말을 더듬는 걸까?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안경잡이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엇. 뭔가, 엄청 열 받게 생긴 상판인 걸? 뭐지. 왜일까, 이런 기분. 이유 없이 분노가 차오른다. 전생에 나와 원수라도 진 인물인 건가? 그런 건가?

“내 조수와 무슨 사이이기에?”

“아, 음. 아샤는 내 조, 조수와 조금 아는 사이거든. 그래서 나랑도 조금 안면이 있달까 ?”

“그런가. 하지만 병문안까지 올 필요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 봐.”

내가 누워있는 침대로부터 약 두 발짝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책을 든 채 서있는 금발남자가 그와 대화한다. 야, 잠깐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방금 전까지 심각한 정신병자를 다루기라도 하는 듯이 대화하던 너, 어디로 갔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라도 떠났어?

“그치만 기,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는걸.”

“벌써 그걸 알아? 누가 말해줬는데?”

“마리라는 조수에게서.”

“아, 그 애가 ”

이번에는 단발과 뺑글이 안경이 대화를 나눈다. 대체 저게 무슨 소리들인지 이젠 하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만사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져 와.

나는 대체 여기에 왜 있는 거고, 뭘 하고 있는 것이며, 저들은 누구이기에 나를 이렇듯 감금해놓고 있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역시나 답은 나오지 않는다. 몹시 의문스러운 점투성이인 현재의 상황이었지만, 일단 지금의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마음의 편하게 갖자,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정면을 올려다보던 나. 이야, 천장 무늬 진짜로 예뻐. 저런 천장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있으려니까, 어느 틈에 뺑글이 안경은 내가 누워있는 침대의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있었다.

뭐야, 얘 안 내보냈어? 엄청 불길하게 생겨먹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다간 없던 삼재도 생길 것만 같은 얼굴이라고. 이만 내보내고 소금 뿌려주면 안 돼?

“ 저, 정말인가 보네 기억을 잃었다는 게.”

안경잡이가 최대한 찌질한 목소리를 흉내 내기라도 하듯이 꺼낸 말이었는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이 금발남자는 태연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대체 무슨 기억을 잃었다는 거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단체로 헛소리라도 하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자니, 녀석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다. 물론 나만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말이다.

“어쩌다 이, 이렇게 된 거야 ?”

“작은 사고가 있었어. 마법 부작용인 것 같다.”

“아아, 그런가요 ”

이번에는 단발남자에게서 대답을 들은 뺑글이 안경. 그러고 보니, 금발남자와 뺑글이 안경은 단발남자에게 존댓말을 하네? 흠, 저 단발이 나이가 더 많은 건가.

나로서는 딱히 대화에 끼어들 만한 껀덕지도, 그럴 마음도 들지 않으니 대화를 주고받는 그들을 그저 눈만 깜빡이며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잡생각들이나 해보면서. 그런데 뺑글이 안경이 갑작스럽게 내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드리웠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대뜸 이런 말을 꺼내는데,

“그런 거라면, 저 기억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나는 대놓고 픽, 하며 비웃었다. 있지도 않은 기억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든다고.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내뱉는 안경잡이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렸다. 생긴 것도 웃기게 생긴 녀석인데, 말도 참 웃기게 하네? 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뺑글이 안경의 입가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 바로 미소를 지은 것이다 !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꿍꿍이속이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설레는 상황을 앞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얼굴에 슬그머니 꽃피우는 비웃음을 닮은 그 미소란!

대체 누구지? 얘는 뭔데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확 발로 걷어차 버릴까? 하는 고민을 잠깐 해보던 나. 이내 금발머리가 말을 꺼내왔다.

“무슨 수로? 마법은 되도록 쓰면 안 돼. 다른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뺑글이 안경에게 하는 말인 듯, 그런 그의 목소리를 들은 안경잡이가 나만 볼 수 있게끔 씨익- 하는 미소를 걸어 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에게 대답하는데.

“아, 안심해. 부작용 같은 건 없을 테니까 ”

?

대체 이 무능력하게 생긴 녀석이 무슨 방법으로 내게 없는 기억을 되살려준단 말인가? 나는 의아하다는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안경잡이는 여전히 내게 고개를 드리운 채였다. 불투명한 안경알을 반짝, 하고 음험하게 빛내며.

“그럼 한 번 해봐.”

금발남자의 허락이 떨어졌다. 그러자, 안경잡이는 ‘좋아.’라고 짧게 답하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내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자신의 양 손을 살포시 얹어왔다. 나의 양 옆으로. 응?

마치 묵직한 게 내려앉은 듯, 시트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 나의 온몸에 전해져온다. 그는 천천히 몸에 체중을 실으며, 내 얼굴 가까이로 점점 상체를 숙여오는데

"?"

어, 어라? 잠깐만. 지금 이게 뭐하는 거지?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혹시 머리로 박치기를 꽝! 하고 해버리는 충격요법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그러나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내게로 점점 다가오는 그의 얼굴이 박치기를 할 기세가 아니었기 때문. 게다가, 이 녀석 이마보다는 내 이마가 더 튼튼할 것 같단 말이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의 이 뺑글이 안경 자식도 그 점은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이 여자애와 박치기를 했다간 내 뚝배기가 깨져버릴 거야.’하고.

그럼, 대체 뭘까? 무슨 수를 쓰려고 이러는 거

“응? 잠깐 ”

단발남자의 의문을 담은 나직한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다. 나에게로 다가오는 뺑글이 안경의 얼굴이 멈추지 않았으니까. 나는 입을 스르르 헤벌렸다. 뭐지? 뭐지? 지금 얘, 나한테 뭘 하려는 거야? 흡성대법이라도 쓰려는 거? 점점 커져가는 눈동자로 안경잡이를 응시하고 있자니,

“ 어 ?”

순간적으로 그의 안경알 너머가 내 눈동자에 아로새겨졌다. 무언가 붉은색을 띄었던 것 같은데. 혹시 붉은 눈동자? 뭐지, 그런 강렬한 색이라니. 멍청하게 생긴 이미지랑 엄청 안 어울린다만.

그런데 잠깐만. 나, 뭔가 생각이 날 것 같다. 이 뺑글이 안경, 속이 안 보이는 불투명한 안경의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안경잡이? 응?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아니. 생각해봤던 것 같은 호칭인데.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

안경잡이의 얼굴은 보다 빠르게 내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 정확히는

“야, 너 !”

마치 키스라도 하는 듯이, 나의 입술 바로 앞까지 !!

그렇다. 현재의 이 방 안은 혼돈의 카오스, 운명의 데스티니, 폭풍의 허리케인.

황당하다는 듯 소리치는 단발남자와, ‘해봐’라고는 했지만 이런 방법을 쓸 줄은 몰랐던 듯 살짝 당황한 표정의 금발남자, 그리고 지금 상황을 만든 주범이면서,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

이 세 가지 반응이 어우러진 환상의 콤비네이션이란.

“ 헉.”

사실 입술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가까운 위치, 그런 거리에서 멈춰버렸다. 마치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인형이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춰버리기라도 하듯. 그는 마치 키스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나의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온 것이다. 침대에 비스듬이 기댄, 어울리지 않게 섹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자세로. 이런 미친 일이 다 있나?

나는 이렇게나 가까이에서, 내 본능이 ‘어우야, 진짜 싫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눈앞의 인물과 므흣한 장면을 연출하게 된 지금, 머릿속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 닥쳐오고 있음을 느껴야만 했다.

그렇다. 일순간 내 머리에는 벼락이 내리꽂혔다. 바로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이 벼락이 되어 내 머릿속을 강타한 것 !

덕분에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은, 바로 이거였다.

아니-!!! 지금 이 빌어먹을 능구렁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

단발남자가 만류하는 외침이 순간적으로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니,

“이이이이이- 빌어먹을 안경잡이가!!!”

나는 이를 갈듯이 외치며, 눈앞에 보이는 인물을 걷어찼다. 헉, 뭐야. 나 다리 힘이 왜 이렇게 좋은 거? 스스로 저지른 행동이지만 나도 놀랐다. 축구선수 해도 되겠는데? 메시가 ‘너는 내 후계자다, 아샤!’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해줄 듯.

안경잡이는 붕- 하듯 날았다. 그리고는 바닥으로 콕 고꾸라졌으니.

내 발길질로 인해 순식간에 침대에서 저 멀리로 나가떨어진 안경잡이는 데구르르- 하며 바닥을 몇 바퀴는 굴렀다. 그러더니 배를 부여잡으며 비실비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서, 성공적이었어 ”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는 그 녀석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빌어먹을 루이스와 류국 황자 되시는 인물인 그, 류이는 동시에 ‘와-’하는 탄성을 내뱉어오는데.

그러더니,

“ 굉장해!”

“신기하군.”

이라고 말하며, 짝짝짝. 대뜸 박수를 쳤다.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저 쓸데없이 얼굴만 잘생긴 이들의 뺨싸다구를 한 대씩 후려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어제의 내 몸에서는, 약 일주일은 안 씻은 사람에게서나 날 법한 냄새가 났다. 다행히도 나는 땀 냄새가 그리 역한 타입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심한 타입이었더라면 아마 온몸에서 빨다 만 걸레냄새가 났을지도. 루이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땀을 몹시도 많이 흘린 바람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땀이 많이 나는 건 흥분 마법이 걸렸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 하나라던데, 아무리 그런 이유에서라지만 솔직히 좀 쪽팔렸어.

그 남자들, 나더러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는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들은 내가 기숙사로 돌아갈 때까지 ‘몸조리 잘해’라는 걱정조의 말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경잡이가 ‘너, 가서 샤워부터 해-’하고 놀리듯 말해온 게 전부였으니. 나는 분노한 나머지 그만 안경잡이의 면상을 주먹으로 갈겨버릴 뻔 했 이 아니라. 내 주먹이 울부짖는 걸 절실히 느껴야만 했달까? 뭐, 그런 마무리였다.

어쨌거나 나는 기숙사로 돌아간 뒤 샤워를 한 후 고꾸라지듯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어제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곱씹어볼 수 있었다.

어제 저녁에 양호실에서 벌어졌던 안경잡이와의 그 해프닝에 대해서 해명해보자면 그래, 뭐. 시간도 늦었고, 또 기억 상실이라는 흔치 않은 부작용을 겪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솔직히 나도 그리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저지른 행동이야. 말하자면 심신미약이라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었으면, 어떻게 감히 마법 대학 학생인 란을 걷어찰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징그럽고 짜증나는 녀석이라지만, 그래도 그는 명색이 귀족인데.

키스하는 시늉이 아니라 설령 키스를 당했다 해도, 제정신인 상태의 나였더라면 그를 걷어찰 생각 따위는 추호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짓, 저승으로 향하는 KTX 티켓을 끊는 행동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나저나.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나한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기억을 일깨워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루이스나 안경잡이 녀석이나, 내 가녀린 뇌가 겪게 될 후유증은 생각해주지 않는 거야? 응? 그래?

그런 징그러운 안경잡이 녀석과 키스신을 찍을 뻔한 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냐고.

1cm만 더 고개를 들었어도 내 입술의 순결을 빼앗길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감히 내게 그런 불결하고 위험한 상황을 선사해주다니.

마음만 같아서는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주인님아!

“그래서, 점심을 쫄쫄 굶으셨다고요?”

“응.”

책을 읽다 말고, 내 물음에 루이스가 내가 앉아있는 소파 쪽을 흘끔 쳐다봐오며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는 루이스의 서재. 오늘 오후에 있을 마법 시약 제조 수업을 위해 테이블 위에 재료를 펼쳐놓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던 나는, 방금 전까지 루이스와 안경잡이 등을 두고두고 씹어대고 있었던 입장임에도 그만 이 대목에서 할 말을 잃어 입을 다물었다.

그, 그렇게 대답해버리면 조수된 입장으로서 내가 할 말이 없 아니, 잠깐.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큰소리칠 입장은 딱히 아니지 않아?

류이가 작정하고서 날 마법에 걸리게 한 것도 아닌 데다, 오히려 초대장을 개봉할 때 고개를 들이밀었다가 마법을 마셔버린 건 나인 입장이고. 게다가 따지고 보면 루이스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점심도 못 먹고 저녁까지 내 병간호나 해야 했다는 게 되는 건데

"?"

응? 아하!

생각해보니 내가 쓰레기였다. 루이스가 나를 고소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거였어.

나는 잔인하고 참담한 진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그래, 내가 바로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쓰레기다! 그러니 부디 란과 함께 소각장에서 태워달라고. 크흑.

비록 내가 본의 아니게 마법에 걸려 돌이킬 수 없는 흑역사를 생성해버리고야 말았다지만, 그 원인이 류이나 루이스에게 있는 건 아니었다. 결국 나는 그들의 탓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어리석은 나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

아, 이런 중대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군. 그럼,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우리 주인님께는 무슨 수로 보상한담?

잠시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이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인 것을 떠올려내어, 넌지시 물어보았다.

“오늘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주인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스파게티? 랍스터 버터구이? 샥스핀은 어떠세요?”

“만들 줄 알아?”

앗, 예리한 걸? 역시 책벌레 마법 천재는 달라. 똑똑해, 아주.

“아뇨, 그냥 물어봤어요.”

루이스가 잠시 나를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봐온다. 하핫! 그런 눈빛, 이제 나한테는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고! 하하하! 하 는, 웃을 일이 아니군.

나도 엄청난 요리를 해주고 싶긴 한데, 아도라에게 꾸준히 배우기로 했긴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숙한 입장이라서 말이야. 위에 예시로 든 최고급 요리들은 지금보다 좀 더 실력을 쌓은 다음에나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실력으로써는 기껏해야 간단한 스파게티나 스프 등을 차려주는 게 전부였다.

뭐, 하지만 그거라도 어디야. 내가 그런 간단한 식사마저 만들어주지 않으면, 루이스는 거의 굶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 같던데. 오죽하면 이 인간, ‘식사를 할 시간에 책 한 줄을 더 읽겠어.’라고 말한 적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래, 좋아. 나는 다짐했다. 비루한 음식 솜씨일지언정,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인님의 건강은 내가 잘 챙겨주자! 라고.

사실, 우리 주인님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냔 말이다. 루이스가 아프면? 그래서 몸져눕는다면? 그래, 내 모가지도 뎅겅. 살인마법사든, 레플리카 공작에게든 어쨌거나 뎅겅뎅겅.

그러니 주인님. 기사의 맹세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가 살아있길 바란다면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하하.

“그럼, 오늘 점심은 미트볼 스파게티로 해드릴게요. 어때요? 좋죠!”

나는 물었다. 루이스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오늘 점심도 간단한 메뉴로 뚝딱 ! 이 아니라.

모, 몸에 좋고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미트볼 스파게티야! 우와, 신난다!

“그럼, 이거만 마저 마무리해놓고 재료 사러 다녀올게요.”

나는 루이스에게 말했다. 루이스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뒤에 갑자기 ‘아, 그러고 보니 ’라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응?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주인님을 빤히 바라보는데.

무슨 더 하실 말씀이라도?

눈빛으로 말해보라는 뜻을 텔레파시마냥 쏘아댔는데,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다시금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라, 뭐지. 까먹으신 건가? 전교 1등의 마법 천재라던 내 주인님에게도 저런 인간다운 면이.

새삼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중요한 얘기라면, 머지않아 다시 떠올려낼 테니까. 천재라면 그런 것쯤이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가 책을 읽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끔 조용히,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으로 마법 재료들을 분류했다.

지금 시간은 아직 오전 10시. 오늘 수업은 오후 3시부터니까, 마법 대학 밖으로 재료를 사러 나갔다 온대도 시간이 아주 넉넉할 것 같다.

하지만 늑장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다녀오자. 또 늦으면 이번에야말로 내 양심에 털이 숭숭 나버릴 것 같으니깐 말이지.

달랑달랑, 재료들을 담기 위한 바구니를 들고서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지갑도 챙겼고, 오늘 오후에 있을 수업 준비는 아침 일찍 끝마쳐놨고. 오늘이야말로 루이스에게 점심과 저녁을 빠짐없이 챙겨줘야겠다고 꼭꼭 다짐하며 대학 상점가로 향하던 중.

나름 지름길이라 생각해 자주 애용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느 골목길로 들어왔다가, 깊숙이 진입하며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만 의외의 인물을 마주쳐버리고야 말았다.

아, 의외까지는 아닌가? 어제의 만남도 이런 장소에서였으니 말이다. 거의 데자뷰 급인데, 이거.

“ !”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때와는 달리 내게 있어 충분히 의외라고 느껴질 만한 모습이었으니.

내가 머릿속으로 마냥 생각했던 ‘그’에 대한 이미지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갭 차이는 상당했다. 처음엔 여자인 줄 착각까지 했던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아주 와장창! 하는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나버리고 있어.

“어 여기서 뭐하세요?”

하지만 갭이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랴. 어차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을.

나는 그냥 왼쪽 골목길로 지나쳐 가버리려다가, 하필이면 눈이 딱 마주쳐버리는 바람에 그를 향해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모르는 척 하기에는, 모르는 사이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건넨 나의 물음에, 그가 검은색 눈동자을 담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나는 그 틈에 재빨리 그의 모습을 위아래로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왼쪽 손은 팔짱을 끼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기다랗게 뻗은 손가락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가 꽂혀있으며, 또 그것을 어울리지 않게 ‘우아하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분위기 있어 보이게 피우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쌔끈한 정장 차림인 남자.

흡연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조차도 ‘조, 조금 간지 나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주위에 마법 기사 전용 로브를 두른 기사들을 대동한 채 여유롭게 골목길의 벽에 기대어 흡연 중이신 ‘그’의 이름은

그렇다. 누구겠는가?

“ 너는 왜 자꾸 이런 골목으로 다니는 거야?”

“네?”

나를 발견한 그가 벽에 기대어있던 자세를 그만두고 똑바로 몸을 세우는가 싶더니, 흡연 중이던 팔을 아래로 내리며 나를 향해 물어왔다. 뭐라고?

아니, 대답해주기 이전에, 잠깐만. 지금 그거, 내가 해야 할 대사 같은데.

혹시 양아치세요? 지나가다가 얼핏 봤을 땐 나, 당신들이 무슨 뒷골목 일진이라도 되는 줄 알았잖아.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왜 이런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고 자빠져 계시는 건데요. 미성년자는 흡연하면 안 된다는 거 는, 아차. 이 세계에서는 18살 이상부터 흡연이 가능하구나. 그럼 뭐, 이건 패스.

이런 불량스러운 장소에서 그런 몸에 안 좋은 거나 피우고 계시면서, 지금 누가 누구더러 골목길로 다니니 마니를 논하고 계시는지?

“그러는 당신 아니, 황자님이야말로 멀쩡한 흡연실 냅두고 왜 이런 곳에서 길빵, 아, 아니. 흡연하고 계시는 건데요?”

“ 그야, 그런 곳에 있다간 귀찮아지니까.”

“아.”

그의 명료한 대답에, 나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몰랐는데, 이 사람 인기 엄청 많더라?

아침에 루이스의 서재로 출근할 때 이디아 조지아의 서재로 출근하던 마리를 만났었는데, ‘유이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어때?’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근처에도 못 가봤어 ’라고, 조금 아쉬운 듯이 말이다.

아쉬울 게 뭐가 있지? 엮여봤자 어제의 나처럼 귀찮아지기만 할 뿐인데.

더불어 그녀는 어제의 내가 다름 아닌 류이가 받은 초대장으로 인해 병실 신세를 졌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샤, 유이 님과 대화할 수 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부러워, 난.’이라고. 대체 뭐가 부럽다는 것인지? 병실 신세를 졌던 게 부러운 건가?

아, 하긴. 바다 건너 옆 나라 류 제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인데, 여자들이 안 꼬이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어느 누군가는 1년 365일 병실 신세를 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남자와 가까워져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마리조차 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던 그 반응이 이해하지 못할 일만은 아닌 듯.

음, 그래. 좋아. 그렇게 잘난 인간이라고 하니, 이번 한 번만 봐주겠어. 나 같아도 내가 연예인 급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더라면, 흡연실 등등의 눈에 띄는 장소들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으니까.

안 봐줬으면 어쨌을 거냐고? 뭐 가서 담배를 확 뺏기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들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흡연하면 못 써요!’하면서. 나라면 왠지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다. 끄덕끄덕.

“그렇군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피우시고 그럼 수고하세요.”

하지만 일단 봐주고 말고를 떠나서, 역시 흡연자는 싫다. 아무리 얼굴이든 몸매든 간지가 줄줄 흐르는 남자라고 해도, 내 기준에 있어서 아닌 건 아닌 거야. 게다가 이런 길빵충이라니 ! 는, 여기는 사람이 거의 안 오는 골목길이니까, 굳이 들어온 내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다만.

어쨌거나 나는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주절거리며 답해준 후 얌전히 발걸음을 옆으로 돌렸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려다가

“콜록콜록!”

앗! 연기가 뭐가 이리 독해? 눈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나가다 말고 터져나와버린 기침. 들었을까? 들었겠지? 으으, 빨리 도망가자.

왜 도망가냐고? 굳이 도망갈 필요가 있냐고? 아 지금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기침 때문만이 아니다.

나로서는 어제 있었던 저 남자와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렇게 또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지는 입장인 게 당연하지 않겠어? 민망하잖은가.

게다가 나는 더 이상 저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픈 마음이 없었다. 나눌 만한 얘기도 딱히 없다고 생각했고.

나도 염치가 있지, 못 보일 꼴을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 놓고선 어찌 다시 저 인간의 얼굴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주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 다들 몰랐겠지만, 내게도 있다.

양심이랑 부끄러움이라는 거. 나한테도 있다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지?

“저 ”

슬금슬금, 무안함을 무릅쓰고 백스텝을 밟아 다시금 그가 있던 골목에 빼꼼히 얼굴을 비췄다. 그는 검은 눈동자로 나를 빤히 응시해오는데.

덩달아 진과 칸을 포함한 나머지 두 명의 기사들도 나를 쳐다봐온다. 으윽, 부담스러워.

“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제가 고의로 마법에 걸렸던 건 절대 아닌데 어, 음.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진짜로 죄송해요.”

사과하자. 내가 진정 양심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어제의 내가 저질렀던 그 막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해. 그래야 뒤탈이 없지.

그가 뭐가 다른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다시 옆 골목으로 샥- 하고 빠졌다. 그래, 이 정도면 된 거야. 어제의 일은 내 잘못도, 류이의 잘못도 조금씩은 있는 거니까. 이걸로 쌤쌤인 셈 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이제 진짜로 끝인 거야, 끝. 저 사람이나 나나,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없는 거야. 저 인간의 머릿속에서 어제의 일을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앞으로 되도록 저 남자를 대학 내에서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며 골목길 밖으로 타박타박 걸어가던 나.

그런데, 그들에게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쯤, 갑작스럽게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헉! 인기척 따위 느끼지도 못했는데! 뭐야? 귀신인가!

“흐익!?”

화들짝 놀라며 내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귀신이 아닌 어느 남자가 서있었다.

류이냐고? 응, 아니야.

“지, 진?”

“아, 제 이름 기억해주셨네요. 영광입니다.”

그의 곁에 늘 붙어 다니는 검은 마법사 로브를 입은 기사가, 내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것도 진과 칸 중에, 하필이면 더 귀찮은 타입처럼 생겨먹은 진이 말이다.

네 이름이야 어차피 한 글자인데 외우기가 뭐 어렵다고. 그것보다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까지 나를 붙잡은 용건이 궁금해, 그에게 물었다.

“왜요?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황자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 하셔서요.”

‘드릴 말씀’이라니? 너는 압존법도 모르냐! 류이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신분을 지닌 인간인데, 어떻게 한낱 나 따위 천민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표현을 쓸 수가

아니, 잠깐만. 혹시 그만큼 나를 존중한다는 뜻인가? 아, 아니지. 이런 생각은 집어치우자. 이런 과대망상 같은 건 해봤자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 그게 무슨 ”

나는 순간 생각했다. 혹시 나, 골목 일진에게 붙잡혀가는 상황인 건가? 그런 건 아닌지? 그가 겉모습으로만 봤을 땐 꽤 신사적인 남자처럼 느껴지는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류이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그 ‘양아치 같은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래. 좋은 마음으로 고블린 손톱을 주워주려 해도 꺼지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말이다!

그러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

“시, 싫어요 무서워.”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내가 거부하자, 이번엔 진이 화들짝 놀란다. 아니, 니가 왜?

“무섭다고요!? 저희 황자님이!?!?”

“네.”

무서우면 안 되냐? 눈을 게슴츠레 뜨며 진을 흘겨보자, 그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어버버거리다가 이내 사레까지 들린 듯 기침을 콜록콜록 해댔다.

그렇게까지 놀랄 말이었니, 이게?

“와, 어떻게 저희 황자님이 무서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야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뭐지? 신종 시비인가?

“ 응. 적어도 그쪽보단요.”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선 매몰차게 몸을 돌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진이 다급히 내 손목을 잡아왔는데. 아닛, 지금 누구 몸에 손을 대!

물론 네 신분이 내 신분보다 높겠지만.

“저기, 한번 만요. 딱 한번만 저희 황자님이랑 대화해주시면 안될까요?”

"?"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이 사람,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듯 간절히 부탁해오는 것인가. 내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되는 인물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로 부르는 건데요?”

슬며시 물어보았다. 진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내게 ‘그건 가보시면 알아요’라고 말해왔다. 왜 이유를 안 말해줘? 뭐 찔리는 거라도 있지, 너?

이거, 진짜로 갔다가 처 맞게 되는 거 아니야? 영 불안한데.

“혹시 저, 때리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대체 어딜 봐서 저희 황자님이 여자를 때릴 사람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가루다족 눈알이라도 사서 삶아드려야 하나, 이거!”

알았으니까, 그런 시비 좀 그만 걸어! 이 망할 자식아!

안경잡이 다음으로 짜증나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나는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울부짖는 주먹을 컨트롤하기 위해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달래줘야만 했다.

워워, 진정해. 황자를 호위하는 마법 기사들의 손에 갈가리 찢겨 죽기 싫다면 말이야.

“일단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불러오라고 시켰어요?”

문득 류이가 나를 부르려고 한 거라면, 본인이 직접 골목을 빠져나와 나를 붙잡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따라가다 말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낌새가 이상하니까.

그 물음에 그는 답하길,

“아뇨.”

라는데. 그 해맑은 대답에, 나는 ‘미쳤니?’하는 속마음을 담은 표정으로 싱긋 웃어보였다. 어쩐지 얘 혼자 조용히 따라붙더라니. 네 주인도 시키지 않은 이런 돌발행동을 왜 하는 건데? 네가 날 데려가서 뭐하겠다고.

역시 어제 있었던 일들로만 종합해서 생각해봐도, 자신의 주인에게 만행을 저질러버린 나를 차마 용서할 수 없다던가,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울분이 차오른 나머지 내게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 같은 것밖에는 상상이 안 간다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녀석을 따라가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아. 내가 충분히 막장 짓을 저질렀던 건 맞지만, 그래도 맞을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야.

내가 류이를 한 대 쥐어박기를 했는가, 욕하기를 했는가? 도리어 예쁘니 어쩌니 하면서, 내 걸로 만들겠다고 한 것밖에는 아, 더는 생각하지 말자.

하여튼, 나는 지금 그냥 도망가 버릴까 생각하다가, 진이 이렇듯 손수 쫓아올 정도라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 순순히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다. 만약이라도 이런 으슥한 골목에서 나를 몇 대 쥐어 패려는 의도인 거라면, 그 때에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해보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맞으면 아프잖아.

뭐? 트럭에 치어본 사람 맞냐고? 트럭에 안 치어봤으면 말을 마시게. 사실, 사고가 나서 죽어가던 그 당시엔 아프다는 걸 느낄 틈도 없이 순식간에 꼴까닥해버린 나였다고.

그나저나, 후우 이거 좀 떨리는 걸. 무슨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와. 이런 골목에서 면접이라니, 정말 되도 않는 상황이고 긴장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기야 하다만 그래도 심장이 쿵쾅대는 걸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기계지 사람이겠는가?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큰길로 다닐걸 그랬어. 그러면 상가들을 빙 돌아서 내부로 진입해야하기 때문에, 좀 귀찮아지는데. 하지만 진즉에 큰길로 다녔더라면 지금 같은 고민은 할 일조차 없었겠지.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골목길은 근처에도 안 오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 등등을 하며, 잠자코 진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었을까.

“아, 잠시만요. 쉿!”

아까 전까지 류이가 있었던 그 골목길로 다시 돌아왔는데, 모퉁이를 돌려다 말고 진이 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리 말해왔다.

응? 조용히 하라고? 내가 왜.

하지만 일단은 조용히 발걸음을 죽이고 입을 다물었다. 왜냐고? 나도 몰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라니까 했다.

내가 생각해도 말 너무 잘 듣는 것 같은데, 나. 좋은 건가?

"?"

진이 마치 무언가를 엿듣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골목길의 모퉁이에 찰싹 붙더니 내게도 똑같이 하라는 듯 눈짓을 보내왔다. 뭐야, 이건. 첩자 놀이니?

일단은 따라했다. 찰싹. 좋은 거겠지, 뭐.

“ 왜 끄세요? 아직 반도 안 태우셨는데.”

말소리가 들려온다. 이 목소리는 아, 칸이라는 기사였던가? 이 진이라는 녀석이랑 덤앤더머처럼 붙어 다니는 듯했던 남자.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골목 안쪽에서 나누는 대화소리라 잘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엿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벽에 딱 붙어있으니 조용한 골목이라 그런지 꽤 또렷하게 들려왔다. 적어도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뭔 얘기들이람? 게다가, 지금 나는 이걸 왜 엿듣고 있어야하는 거?

옆에 있는 진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니까, 녀석이 간지럼을 타는 듯 ‘푸훕!’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냈다.

아니, 너 진짜 기사 맞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허점이 있어서야!

“ 방금 무슨 소리 안 났습니까?”

“또 진이 무슨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나보지.”

들키는 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죽이고 있으려니까, 골목 안쪽에서 들려온 대화였다.

아, 얘가 이런 이상한 인간인 거 이미 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나보구나. 나는 골목길 벽에 기대어 씁쓸한 표정으로 ‘또륵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진의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힘내라, 네 인생.

“그런데, 황자님. 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겁니까?”

“내가 뭘?”

“아시잖습니까. 방금 지나간 그 소녀 말이에요.”

어라? 저건 또 무슨 얘기야? 혹시, 내 얘기? 방금 여길 지나간 소녀 라면, 나 말고 누가 더 있나? 잠깐 생각해보았다. 그래, 역시 없어. 저건 나와 관련된 얘기다!

이번에는 내가 진을 밀치고 모퉁이에 보다 가까이 찰싹 달라붙었다.

진이 순간적으로 어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지었던 ‘계획대로 !’하는 표정을 지은 것 같았는데. 어라. 기분 탓인가.

“신경 쓰긴 누가 쓴다고 그래.”

“그럼 담배는 왜 끄셨어요?”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런다, 왜?”

“언제부터 그렇게 남 말을 잘 들으셨다고.”

“ 칸. 너 너무 주인한테 막말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지. 그냥 평범한 대화인데. 나는 지금 저런 대화를 왜 엿듣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 이럴 거면 이 진이라는 자식은 날 여기에 왜 다시 데리고 온 건데. 별로 특별한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한가롭게 첩자 놀이나 하고 싶은 거면 혼자서 하라고, 임마!

“저 그냥 가볼게요. 저 사람이 나 찾은 거 아니라면서요?”

나는 속닥속닥, 진에게만 들릴 만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그가 허둥지둥 손사래를 치며 내게 가면 안 된다고 미친 듯이 말려오는데.

“안 돼요, 안 돼. 조금만 더 있다가 가요! 제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제발!”

"?"

아니, 얘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건 신종 데이트 신청법인가? 그런 거야? 알고 보니 진,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네 첩자 놀이에 끌어들였다던가. 그런 거니?

하여튼 인기가 너무 많아도 탈이라니까. 는 무슨,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백을 받아보지 못한 입장으로서 씁쓸함을 삼키며 나는 다시금 얌전히 진의 옆으로 다가가 벽에 붙었다. 그래, 뭐. 일생일대의 소원씩이나 된다는데 까짓 거 한 번 쯤은 들어주자고.

두 번은 안 들어줄 거지만.

휘잉-

“ 으응?”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자연적으로 불어온 바람이라기엔, 사방이 건물로 막힌 이런 골목길 안치고는 너무 강력한 바람이었는데. 앗, 연기가 이쪽으로 !

“콜 !”

“앗, 안 돼요!”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내 입을, 진이 작은 목소리로 외치듯 말하며 자신의 커다란 손바닥으로 틀어막아왔다. 아악! 납치범이야!

는 물론 농담.

진의 순발력덕분에 가까스로 첩자짓을 들키는 상황을 면한 나는, 이런 민폐스러운 놀이를 즐겨하는 그와 다시금 골목 벽에 딱 붙어 이야기를 들어본다. 방금 그거, 마법 맞지?

“바람 마법은 왜 쓰세요?”

아, 역시. 류이에게 묻는 듯한 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내 짐작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다가, 이내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뜬금없이 바람 마법은 왜?

“그냥.”

“연기 날려 보내려고 그러신 거죠?”

헉, 그런 거였냐. 내가 ‘오 ?’하는 표정으로 배려심이 풍부한 황자의 행실에 내심 감탄하고 있으려니까, 옆에서 진이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뭐냐, 그 표정은. 왠지 너는 지금 그 표정만으로도 불경죄로 사형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누가 맡으면 곤란하잖아. 민폐이기도 하고.”

“황자님께서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쓰셨다고? 게다가, 이런 으슥한 골목길은 방금 지나간 그 여자애 아니면 오지도 않는다구요.”

“ 누가 그걸 몰라?”

들킬까봐 골목 안쪽으로 고개를 빼꼼 들이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왠지 지금의 류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만화 속 등장인물마냥 머리 위에 ‘빠직’마크를 달고 있는 듯한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주먹을 불끈 쥔 채 빙긋이 미소 짓고 있다던가. 뭐, 거의 그런 상태일 것 같다. 이 이상 말이 없는 걸 보아하니 말이야.

잠시 조용하기에, 나는 대화가 끊어졌음을 깨닫고 진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소곤소곤 물었다. ‘이제 더 들을 거 없죠?’라고. 진이 아니라며 고개를 마구 도리질 치는데.

아니, 대체 뭘 들으라고 자꾸 붙잡는 거야? 나는 뭐 한가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아? 사실 한가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주인님께 자그마치 영양만점 미!트!볼! 스파게티를 해드리기로 했단 말이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이래봬도 바쁘신 몸이라고?

그만 뿌리치고 점심 재료나 사러 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골목 안쪽에서 다시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칸이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신 겁니까?”

“마음에 들긴, 뭘?”

“황자전하. 저희끼리만 있을 땐 좀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관심 있으신 거잖아요. 어떤 면이 좋으신 거예요? 화끈한 거? 아니면,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건방진 면이라던가 ”

“칸. 너, 내가 그렇게 이상한 취향으로 보여?”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응? 저건 또 무슨 얘기들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붙어있는 진을 흘끔 쳐다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인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여기까지 다시 데리고 온 주범이 말이야.

그나저나, 저 대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나, 지금 막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 마치 류이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저 대화 때문에.

하지만 나는 내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생각이 진짜일 리 없어 라고, 나는 그렇게 믿기로 결심했다.

내가 무슨 도끼병 환자도 아니고, 상황파악 주제파악 못하고 설레발이나 치며 막 설레어하고 싶은 마음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 나는 그저 침만 꼴깍 삼켰다. 더불어 나의 헛된 생각들도 함께 목구멍으로 넘겨 소화시켜버렸다. 그래, 꺼져버려. 내 생에 도움이라곤 1도 안 되는 이 도끼병 세포들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지 말고, 그냥 대놓고 말씀해보세요. 황자님 조수가 될 생각 없냐고요. 그 범생이 학생회장은 우유부단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던데. 차라리 당사자를 직접 공략하는 편이 ”

응? 뭐, 뭐라고!? 저건 또 무슨 개소리들이야!

“콜록!”

내 귀가 잘못된 건가? 방금 그 말, 내가 진짜 똑바로 들은 게 맞아!? 라고 생각하던 나는,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한 나머지 아까 전의 진처럼 사레가 들려 기침을 토해내 버리고 말았다.

“헉.”

“누구냐!”

진이 놀라며 헛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함께, 골목 안쪽에서 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졸지에 내 얼굴에는 피라는 놈들이 모조리 목 아래로 도망 가버린 듯하고 새하얘진 안색으로 나는 진을 돌아보았다.

드, 들켜버렸어! 어떡하지? 엿듣고 있었던 걸 이대로 발각 당하게 생겼는데. 그냥 솔직하게 등장할까? 짜잔, 하고. 아, 아니, 그러면 너무 뻘쭘해지지 않나? 당연한 거겠지?

그것도 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저들인데, 당사자인 내가 쥐새끼마냥 듣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 어떡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찍찍-”

“ 이 목소리, 진 아니야?”

?

갑자기 진이 쥐새끼 소리를 냈다. 앗, 이것도 첩자 컨셉의 일부인가?

골목 안쪽에서 류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칸이 무어라 대답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순간부터 급작스레 귀에 물이라도 들어간 것처럼 웅얼거리는 사운드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상함을 느낀 내가 다급히 옆을 돌아보자, 진이 씽긋 웃었다. 그리고는,

“눈 감아요.”

“응?”

내 귓가에 속닥거리듯 말하더니, 내 양 팔을 뒤에서 확 붙잡아오는데. 어, 뭐야! 갑자기 팔은 왜 붙잡는 거 !

“!?”

갑자기 내 눈앞의 모든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눈앞이 까맣게 물들어버렸다. 앗, 그러고 보니 눈을 감으라했었지!

눈을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포에 질려버린 나였기에 재빨리 눈을 질끈 감았다. 무서워!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

“이제 떠도 돼요.”

야, 응?

“헉.”

이, 이건

텔레포트잖아!? 신기한데!

정말이지 순식간에 이동했다. 물론 아까 전의 골목길과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대학 상가 한가운데로 말이다. 이 진이라는 남자, 뭔가 엄청 까불거리고 방정맞은 느낌이라 마법 실력이 형편없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역시 황실 마법 기사단은 다르긴 다른가 봐.

텔레포트는 상위 마법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마법이라고 들었다. 시공간으로 이동한 다음, 그 시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의 좌표를 선택해 이동하는 마법인데 문제는 이 마법의 부작용이, 잘못했다간 내 신체의 일부분을 그 시공간 속에 남겨두고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한마디로 사지절단의 위험을 무릅쓰고 써야 하는 마법이라는 거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

어라? 잠깐만. 그럼 나, 원치 않게 내 목숨으로 도박당한 거잖아.

방금 주,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였나, 나?

아,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어쨌거나 진은 실력이 있어서 황실 마법 기사가 된 것일 테고, 방금 전의 그 아찔했던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니까.

아니, 잠깐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녀석이 나를 데리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텔레포트를 해야 할 상황까지는 오지도 않았을 게 아닌가.

뭐지? 갑자기 급 짜증나는데, 이 자식. 만악의 근원이었잖아.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네. 좋아요.”

하지만 봐주도록 하겠어.

진과 함께 상가 거리를 정처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나. 이 와중에도 길거리에서 장사중인 노점의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보였나본지, 내게 물어오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어쩌다 이렇게 한가로이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으러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골목은 무사히 벗어났다. 물론, 원치 않게 커다란 의문덩어리만 잔뜩 얻어 짊어져버린 채로 말이다.

무슨 뜻이었을까? 노점으로 뽀르르 달려가는 진의 뒤를 따라가며, 나는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 얘기 말이야. 관심이 있니 어쩌니, 류이의 조수가 될 생각이 없니 저쩌니 하던 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들이었을까? ‘조수’라는 게, 내가 아는 그 단어 맞지? 루이스의 ‘조수’할 때나 쓰는 그거. 그 직위 말이다.

갑자기 그런 얘기가 그들 사이에서 왜 나온 걸까? 내게 류이의 조수가 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라 니. 갑자기 왜? 그가 조수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건 너무 뜬금없잖아. 마음만 먹으면 실력 있고 뛰어난 조수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게 당연한 그가, 왜 하필이면 나를?

인상을 찌푸리면서까지 머리를 쥐어짜보았지만, 떠오르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다만, 역시 모르겠어. 그들의 속내를 말이다.

“방금 전 얘기,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응? 아, 네.”

계산을 끝마친 진이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오며 묻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 후 그에게 넌지시 덧붙였다.

“저는 딸기 맛이 좋은데요.”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초코 맛은 너나 먹어. 개구쟁이 같은 너랑 잘 어울리니까.

진은 아이스크림을 후다닥 바꿔주고선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왔다. 왜, 내 얼굴에 뭐 묻었니?

“예쁘게 생기셨네요.”

뭐?

“푸흡! 네?”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그의 황당한 발언에 의해 나는 뿜어버렸다. 내 입에서 딸기 아이스크림 덩어리가 피융! 하고 앞으로 발사됐으니. 일부러 뱉은 것도 아닌데, 포물선을 그리며 몇 미터는 날아가다 바닥에 툭 떨어져버린 그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나는 잠시 멍하니 응시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루이스나 다른 안면이 깊은 인물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진짜로 천만다행.

내가 예쁘다고? 와, 얘도 정말 보통 이상으로 이상한 인간이구나. 아니, 어쩌면 눈만 이상한 것일지도.

“와, 방금 개인기 보여주신 거예요? 신기해!”

그런 거 아니야!!

“그, 그래서. 용건,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까 저를 다시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간 건, 무슨 이유에서였는데요?”

“에, 그건 직접 들으셨으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궁금했던 걸 묻자, 진이 싱글벙글 미소 지으며 내게 대답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리란 것을 확신한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표정. 일순간 나는 생각했다. 마치 조만간 손주를 장가보낼 생각에 들뜬 할아버지의 표정을 닮았다 고.

그래서 네 손주는 누군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아니겠지? 더군다나 그 상대가 나인 건, 더더욱 아니겠지? 빨리 그렇다고 대답해. 이런 망할 자식.

“짐작이 안 가니까 물어보죠.”

하여튼, 이 진이라는 남자도 은근히 안경잡이 과인 듯. 모르니까 묻지, 아는 걸 왜 묻겠어?

나는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며 다시 물었다. 진이 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말문을 열어왔다.

“들은 대로입니다. 우리 황자님, 그쪽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

“그래서 밀어주기로 했어요. 저랑 칸이랑. 데헷.”

뭐라고! 데헷은 얼어 죽을!

“앗!”

“으아, 아까워. 새로 사드릴까요?”

“아, 아뇨! 필요 없, 아니. 괜찮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다가, 그가 한 대답으로 인해 화들짝 놀라버린 나. 그런 탓에 이번엔 콘 위의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아예 통째로 바닥에 떨어뜨려버렸다. 내 손에는 텅 빈 콘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렇다. 지금 이 콘의 상태가, 현재 내 머릿속 상태와 똑같았다. 텅텅. 빈 깡통이 다가와 ‘어이, 여기서 뭐해? 늦었어, 어서 빨리 참치 공장으로 가야 한다고!’라며 말을 건네올 듯.

불행히도 난 네 동료가 아니란다, 깡통 친구. 돌아가.

“방금 그 말 농담이죠?”

실화냐? 방금 들은 얘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더듬대며 묻자, 진이 완전 정색을 했다.

와, 줄곧 웃는 낯만 고수해오던 인간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정색을 할 때야말로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런 걸 깨달았다.

“아뇨, 완전 진심입니다.”

“왜요!?”

깜짝. 큰 소리로 묻듯이 소리치자 진이 놀라며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 아예 콘까지 바닥에 툭 떨어뜨려버린 그는, 이내 심장을 부여잡으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라고 내게 소심력 100%의 목소리로 말해오는데.

별로 소심한 캐릭터 아니지 않아, 너? 왜 갑자기 그런 컨셉을 잡고 그래. 게다가 아이스크림은 왜 떨구냐고. 아깝게. 빨리 아이스크림에게 사과해.

“왜, 왜냐니요. 왜 못 믿으시는데요 ?

“말이 되는 소릴 해야 믿죠. 제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그쪽도 다 보셨잖아요. 게다가 어제 만난 사이인데, 무슨 놈의 호감? 앞에 ‘비’라는 글자가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완전 호감. 저랑 칸, 어제 다 봤다구요. 우리 황자님 얼굴 빨개지신 거.”

"?"

아무래도 ‘비’라는 글자가 빠진 게 맞는 것 같은데? 화나서 빨개진 게 아닐까?

나는 일순 생각했다. 분노에 차서 얼굴이 붉어졌던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다고.

그래, 솔직히 이건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알아차리겠다. 내가 어제 자그마치 류이를 붙잡고 어떤 만행을 저질러댔는데, 그런 일을 당한 그가 내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눈앞의 이 자식이나 칸이라는 사람이나, 어쩜 이렇게도 생각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분노와 호감을 헷갈릴 수 있는 건지.

이쯤에서 궁금해 할지도 모를 사람들을 위해 설명충에 빙의해보자면, 그렇다.

류 제국은 보통 큰 나라가 아니라, 서쪽 바다 건너에 위치한 커다란 대륙 하나가 ‘류’였다. 전생의 나라로 비유해보면, 이곳 프란치아가 미국이라면 류는 중국이라는 거. 아, 물론 중국처럼 막무가내인 나라라는 뜻은 아니고, 규모가 그 정도라는 소리다. 이 세계에서의 서양 나라 대표 주자라고나 할까.

여하튼 그런 제국의 제 3황자라며. 그런 엄청난 인간이 나한테 호감을 가진다니, 말이 돼? 된다고? 바보 아냐? 다시 생각해봐. 안 되잖아. 그치?

문득 내게 ‘관심이 생겼다’며 말해놓고 그 날 이후로 얼굴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레모 씨가 떠오른다. 그 인간, 살아있긴 할까? 루이스랑 가끔 식사도 같이 하는 걸 보면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게 생겼다던 그 관심이라는 놈이 죽은 듯.

어쨌거나 눈앞의 진이 떠들고 있는 소리는 내겐 아주 비현실적인 로맨스 소설에 단단히 미쳐버린 인간이나 할 법한 소리로 다가왔다. 나름 내 상식대로 생각해보자면 말이다.

“안면홍조가 있으신가 보네요, 그 황자님. 하루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주치의가 있다고 하셨나. 그럼 빨리 주치의한테 진찰 받으시라고 전해주세요.”

“아니 진짜 진심인데. 안면홍조가 아니라, 진짜인데, 이거 ”

진짜든 아니든, 그런 걸 내가 알아서 뭐하게!

진한테 버럭 소리쳐주고 싶은 걸 꾹 눌러 참으며, 나는 그에게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 이만 집어치워라’는 눈빛을 쏘아주고는 싱긋이 미소 지었다.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그거야 간단하잖아.

설령 그가 내게 호감이 생겼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호감이 아니라 ‘호기심’일 것이다.

내가 중증 도끼병 환자도 아니고. 이런 헛소리에 홀라당 넘어가버릴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고작 만난 지 하루, 아니지. 만난 당일에 일정 상대방에게 번개처럼 꽂힌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가? 나는 그런 호감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주의라고 아, 그래 뭐. 내가 모쏠이라 이런 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류이는 제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고, 나는 일개 평 민도 아닌 천민이지 않은가.

이런 내게 자그마치 일국의 황자가 관심을 보인다니,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너의 대담함과 창의력에 감탄했다, 진. 그러니 날 흔들려는 수작은 이제 그만해.

정 그런 얘기를 떠들고 싶다면 소설이나 한 편 써보라고. 제목은 ‘서열 1위 제국 황태자, 천민에게 한 눈에 반하다!’같은 걸로다가. 꽤 잘 팔리겠는 걸?

물론 난 안 살 거지만.

“됐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 시간은 넉넉하지만, 여기서 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간 어제처럼 무언가 다른 사건이 터져버릴 것만 같다. 이거슨 본능적인 위기감.

나는 진에게 손사래를 쳐보이며 이만 가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는 매몰차게 돌아서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 나의 뒤에서 ‘아아 이게 아닌데 ’라며 잠시 중얼거리는 듯 싶더니,

“잠깐만요!”

이번에도 불러왔다. 왜? 또 뭐!

“왜요!”

이번엔 제법 까칠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뒤로 홱 돌아보자,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진이 ‘헛!’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온다. 쟤, 20대 아니었나? 생긴 것만 봐도 10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20대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갔다하는 생김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을 동동 굴러대는 등의 뇌가 순수한 아이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 잘 어울린다니.

과연! 진은 뇌가 순수한 건가. 납득했다.

“한번 잘 생각해주세요!”

“뭘요?”

대뜸 내게 저리 말해오기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해 보이며 되물었다. 이내 진이 안절부절못하며 동동대던 걸 멈추고, 나를 꽤 진지한 시선으로 응시해왔다.

“저희 황자님의 조수가 되는 거요.”

“ 에?”

아, 그러고 보니 저 얘기도 아까 골목에서 들었었지.

조수라니. 갑자기 날 왜 캐스팅해가려고? 진심인가? 그것도 어제 같은 황당한 짓을 저지른 나 같은 인물한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는 순간, 진이 말해왔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보통 길이의 갈색 머리카락에 갈색 눈동자를 지닌 그가 눈동자를 빛내며 제법 진지하고 심각하게 건네 오는 그 말에, 나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생각해보았다.

알기야 알지. 누구보다 잘 알지. 내 목숨이 달린 자리라는 거, 모르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만.

아, 혹시 그래서 내게 류이 황자의 조수가 될 생각이 없냐는 건가? 내가 머지않은 미래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나를 그쪽 조수로 캐스팅해가려는 거?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 생각이 이내 정답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이어서 진이 한 말 덕분이었다.

“아샤라고 했죠? 당신한테도 좋은 기회일 겁니다. 저희 황자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 그런 위태로운 자리에서 조수로 일할 게 아니라, 저희랑 함께해요. 월급도 아마 다른 조수들보다도 훨씬 두둑하게 주실 텐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데.

나는 잠시 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저 말에 틀린 게 있는지를 곰곰이 분석해보았다.

내 이름이 아샤인가? 맞다.

류이는 좋은 인물인가? 흠.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자면, 처음 맞닥뜨렸을 때의 오해로 인해 까칠하던 모습을 제외하면 나쁜 인물 같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꽤 친절했지. 나는 여태껏 황족이라는 존재는 나와 이 은하의 칸타비야라는 행성이 위치한 거리만큼 떨어져있는 존재일 거라고 마냥 생각했었는데, 막상 눈앞에서 그를 보고 느껴보니 황자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꽤 인간미 넘치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다.

뭐, 세상의 모든 황족들이 류이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황족임에도 내 예상―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르는―보다 소박한 성품을 지닌 괜찮은 인물이었다. 진과 칸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월급은 다른 조수들보다 두둑하게 줄 것인가? 흐음. 제국의 황자씩이나 되는 인물이니 지금도 적게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긴 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이게 나한테 좋은 기회일까?

“이건 정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제안 아니에요? 아마 저라면 무조건 오케이 했을 겁니다.”

맞다. 좋은 기회다.

진이 부추긴다. 그래, 솔직히 인정. 머리가 달린 사람이라면, 류이의 조수로서 일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루이스의 조수로 일하는 것보다 몇 배, 아니 어쩌면 몇 십 배는 더 나은 일이라는 걸 모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도 그렇다. 그래, 잘 알아. 잘 아는데

“싫어요.”

“왜, 왜요!?”

나는 대답했다. 덕분에 진이 거의 펄쩍 뛰다시피 놀라며 내게 되물어온다.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 뇌는 ‘너 미쳤어!?!?! 죽기 싫어서 안경잡이와의 내기까지 승낙했던 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나잖아! 너잖아! 우리잖아!’라고 빼액거리고 있었지만, 내 주둥이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꺼내고 있었다.

“류이 황자님이 꽤 좋은 분이시라는 건, 고작 하루 본 저도 잘 알긴 알겠는데요.”

“ 그런데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제가 옮기기 싫어서요. 너무 줏대 없어 보이잖아요?”

내 대답에 진은 벙쪄버렸다. 마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고작 그런 이유로 !?’라는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뭐, 틀린 속마음도 표정도 아니긴 해. 그렇지만,

“저, 아직 이곳에 들어온 지 2주도 안됐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엉덩이 가볍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싶지는 않아서요.”

나는 완고히 거절했다. 진이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의사표현으로 고개를 살짝 숙여 목례해보였다. 이만 가라, 라는 뜻이다.

뒤돌아서 내가 다시금 가던 길을 가려는데, 진이 뒤에서 다급히 외쳐왔다.

“그러다 정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음. 맞는 말.

그 말에, 나는 슬쩍 뒤돌아보며 답했다.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비록 두 입밖에 못 먹었지만.

진이 황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굳은 채 서있는 것을 뒤로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걸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를 기계처럼 뚜벅뚜벅 걷기만 하다가, 문득 멈춰 섰다.

방금 나, 무슨 짓을 한 거?

“내가 미쳤지 ”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왼손으로 고쳐 들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내가 진짜 제정신이라면, 원래의 나였다면 아마 방금 전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저런 꿀 같은 기회를 왜 거절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다. 나는 바보였다.

“아니, 대체 그놈의 양심이 뭐라고 ”

바구니를 끌어안고서 자리에 푹 주저앉아버렸다. 나도 내가 왜 이런 대답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보았다. 아얏! 아파.

꼴에 아플 줄은 알면서, 왜 생각할 줄은 모르는 거냐고, 대체. 그냥 진 말대로 오케이 해버리면 좋았을 것을.

지금처럼 후회할 거면 왜 거절했냐고?

그러게나 말이다.

언제 어떻게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할지 모를 이런 자리의 조수로 있는 것보단 차라리 호위 기사만 몇 명이나 딸린 제국 황자의 조수인 게 훨씬 나을 텐데. 낫다 못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제안을 거절한 건, 줏대고 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양심의 문제였다.

줏대? 그딴 거 난 안 키운다. 이 세계에서 천민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닳아 없어져 버린 지 오래니까. 그러니 이제 와서 그 줏대라는 녀석이 ‘어이어이, 우매한 인간. 나는 이리저리 줏대 없이 옮겨 다니는 그런 존재이고 싶지 않다고!’라며 떠들어댈 일도 없다는 거.

이미 죽어버린 줏대를 무슨 수로 되살리랴. 뛰어난 마법사는 물론이고 그 마법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와 부활 마법을 걸어댄대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복병? 양심이라는 놈이 나의 건강한 인생을 망쳐놓고 있잖아.

망할 양심 같으니라고. 진즉에 털이 숭숭 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모양. 하긴, 지금 내가 이렇듯 바구니를 들고 점심 재료를 사러 나온 것도 다 그 양심이라는 놈을 위해서였지. 새삼 떠올랐다. 아, 정말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라곤 안 되는 존재 같으니라고. 줏대가 아니라 얘가 사라졌어야 했는데.

양심 없는 인간, 좋지 않아?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기엔 그게 딱이지 않은가.

딸랑-

“어서오세요-”

식료품 상점에 들어가, 재료를 고르면서도 나는 후회했다. 후회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후회했다. 아니, 후회할 짓을 왜 저지른 거고, 왜 뒤늦게 후회하는 건데? 후회하는 취미라도 있는 건가? 응, 그래? 아니면 제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꾸 드는 생각.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건.

하아.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솔직히 모르겠어.

미트볼 스파게티와 샐러드 등에 필요한 재료들을 바구니에 마구 집어넣으면서, 나는 내 결정을 곱씹어보았다.

루이스 레플리카. 지난 5년간 그의 조수만 세 명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네 번째 조수. 상식대로라면 나도 죽는 게 당연하다. 3 더하기 1을 할 줄 아는 유치원생도 알 만한 기본 상식이라고.

알아본 바로는, 그 죽은 조수들은 다들 2년을 채우기 전에 죽었다.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마법 아카데미에서의 2년 5개월이었고, 가장 빨리 죽임당한 조수는 7개월이었다. 이 사례들로 내 상황을 쉽게 요약해보자면, 나는 7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사이에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

하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나는 그것을 위해 루이스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같이 분주히 노력―물론 내 기준으로―하는 입장이고.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는, 내게 갑작스레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덜컥 주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건 내가 류이의 조수로 갈아타버리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도 꽤 곤란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게,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꼭 무언가를 해줘야만 하냐고? 그런 의무라도 있냐고? 아니, 내가 루이스의 부모님 된 입장도 아닌데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다만, 빚을 조금 진 것 같아서 말이다. 난 명색이 조수라는 직위로 이곳에 들어온 지 2주나 되었는데도, 그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번 제대로 못 대접해주지 않았던가. 게다가 어제는 나로 인해 그가 수업까지 빠지면서 하루 종일 내 곁을 지키고―책만 읽었지만― 있었다던데.

나도 눈치가 있으니까 알 수 있다. 루이스가 꽤 나를 아껴주려 한다는 걸. 어제도 내가 양호실에 몸져눕기가 무섭게 허둥지둥 달려왔었으니까. 그 땐 비록 내가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었다지만, 그래도 눈은 멀쩡했던 모양인지 지금도 잔뜩 놀라고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오던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린 듯 선명하게 떠올라.

그렇게 돼먹은 입장인데, 조수가 된지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홀라당 주인을 바꿔버릴 수 있겠는가. 억울하게 빚진 그 이백만 베른을 떠나서, 지금까지 민폐만 끼쳐왔던 나로서는 미안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해.

물론 ‘아직까지는’ 말이다. 요 며칠간 루이스에게 졌던 빚을 갚고 나면, 그 땐 또 모를 일이지. 양심과 목숨을 등가교환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무리.

“얼마예요?”

“55베른이에요.”

“좀 비싸네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그럼 이건 뺄게요.”

바구니에 넣었던 사과 다섯 개를 빼서 원래 자리로 갖다놓으니, 여종업원의 표정이 실온에서 한 달은 묵힌 사과마냥 썩어버린다. 하지만 일단 내게 중요한 건 종업원의 표정이 좋냐 나쁘냐 따위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사과 값을 뺀 45베른을 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내 결정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수십 번은 반복했으니. 뭐, 그런다고 해서 내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바구니에 장 본 것들을 넣고 상점가를 지나, 루이스의 서재로 돌아왔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루이스의 ‘들어와-’하는 부드럽다 못해 감미로울 정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 인간을 만나고 나서부터 깨달은 게,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 평범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더라. 마법도 아닌데. 정말 신기할 노릇.

“저 왔어요.”

들어와서 그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책장 앞의 책상에 앉아 안경을 낀 채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 안경을 끼니까 엘리트스러움이 +100은 상승한 듯. 저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 뭘까? 변발쯤은 해야 하려나?

내심 감탄하며 루이스에게 돌아왔음을 알린 후, 바구니를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놨다. 나머지 할 일을 완벽하게 끝낸 후 점심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 아까 정리해뒀던 마법 재료들을 그가 들고 가기 편하게끔 종이봉투에 넣어두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던 나.

문득 책을 덮고, 장 보고 온 엄마의 마트 봉지에 접근하는 아들처럼 바구니를 올려둔 테이블 쪽으로 어슬렁거리듯 걸어가는 루이스. 그는 이내 내게 물어왔다.

“뭘 산거야?”

라고. 뭐야, 보면 몰라? 방금은 대체 뭘 본 건데?

서랍을 열어 봉투를 챙기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답했다.

“스파게티 재료랑 샐러드 재료 사왔죠. 왜요, 싫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

루이스가 우물쭈물하며 다시금 바구니를 슬쩍 쳐다본다. 아니, 무슨 맘에 안 드는 거라도 있어? 그냥 무난한 재료들로만 골라서 사왔는데. 대체 왜 그런 반응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 뭐요?”

나는 황당하단 표정으로 ‘그럴 리가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하나밖에 없다니, 뭐가? 내가 사온 재료가? 그 종류가? 그럴 리가 있나. 하나도 빠짐없이 골라 담았던 나다. 물론 샐러드에 넣을 것과 깎아먹으려고 집었던 사과 다섯개는 뺐지만. 안경 끼고 있어서 잘못 본 거 아냐?

“원, 농담도 참 신박하게 하시네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루이스가 중얼거리듯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바구니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바구니의 밑바닥이 보이게끔 들어 올리는데

“어!?”

어, 어 어라?

바구니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띠용!?

게다가 내용물이라고는 달랑 기다랗게 포장된 스파게티 면 하나였으니! 아니, 왜 저런 상태인 건데!? 대체 언제부터!?!

“지,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그건.”

루이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해왔다. 아니, 미친! 들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바구니 밑바닥이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데? 하늘로 솟았어, 땅으로 꺼졌어!? 뭐가 불만이었기에 밑바닥만 홀랑 도망가 버린 거냐고!

대체 바구니는 왜 저런 상태인 거고, 내가 샀던 그 많은 재료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종이봉투는 내 안중을 떠났다. 부랴부랴 루이스의 곁으로 뛰어와, 바구니의 손잡이를 양 손으로 뺏듯이 낚아채어 이리저리 둘러보던 나.

진짜로 밑바닥이 깨끗이 증발했다! 마치 잘린 듯이! 아니, 다른 부위도 아니고 왜 하필 밑바닥인데!? 티도 안 나게 말이야! 게다가 나는 왜 재료가 술술 빠져 도망가버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거지? 응!? 그놈의 생각이 뭐라고!

어이가 없어져버려 그 달아나버린 바구니 밑바닥을 끝없이 저주하며 대체 내가 흘린 재료들은 어디에 떨어져있을지를 돌이켜 짚어보려는데, 그 와중에 어느 기억이 떠올랐다.

"?"

가만. 그러고 보니, 나 아까 전에 누군가와 텔레포트를 하지 않았던가? 정확히는 당한 것이었지만.

아까도 한 번 짚어보았던 기본 상식을 함께 떠올려내본다. 텔레포트를 할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은, 시공간 속에 현실의 무언가를 두고 오는 것

그럼, 이게 그 때 이렇게 된 거라면 ?

“무슨 일 있었어?”

루이스가 물어오는 말에, 나는 바구니 손잡이를 양 손으로 하나씩 붙잡은 채, 바구니를 뚫어져라 응시하다 말고 느꼈다.

그렇다. 모가지가 섬짓해지는 감각을 말이다.

나는 루이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열어, 그에게 말했다.

“저, 저 ”

"?"

“죽을 뻔 했나 봐요, 주인님 ”

진이라는 이름의 돌팔이 마법사에 의해, 단두대가 아니라 시공간 속에 내 모가지를 두고 옴으로써 이승과 작별할 뻔한 경험을 한 후로부터 어느덧 두 시간이 흘렀다.

째깍째깍, 시곗바늘 참 잘도 간다.

“죄송해요.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조수라서. 많이 불편하시죠? 오늘도 점심이 고작 이런 거라.”

“괜찮아. 익숙하니까.”

“지금 그 말, 조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

“ 아. 그건 아니야.”

“거짓말. 맞으면서!”

투닥투닥. 루이스와 나는 농담 아닌 농담을 주고받으며 상점가를 함께 거닐고 있는 중이었다. 아직 시간은 1시. 오후에 있을 수업까지는 2시간이나 남았다.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문제인 것은 역시나 식사였다.

오늘도 결국 점심은 샌드위치였다. 돌아오는 길에 떨어뜨렸을 재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보았지만, 다시 주울 수 있었던 재료는 하나도 없었다. 이곳 마법 대학은 마법에 걸린 원숭이가 청소를 담당하는데, 그 빌어먹을 녀석들은 부지런해도 너무 부지런했으니. 별로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새 치워버린 모양.

그렇게 오늘도 야심차게 점심을 해드리겠다 큰소리를 땅땅 쳐놓고, 마침내 대접하게 된 것은 햄 샌드위치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의 명물 ‘고블링 샌드위치’였다. 그렇다. 고블린의 뱃살로 만든 샌드위치인 것이다. 이렇게 듣고 보면 몬스터의 고기라 굉장히 더티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맛있다. 베이컨 비슷한 맛이 난달까? 소스는 마요네즈 비슷한 맛이 난다. 역시 마법의 소스야, 마요네즈는 !

이 아니라.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게 당연하잖아, 멍청한 아샤야. 불쌍한 우리 주인님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오늘도 내 뇌가 멍청하게 군 덕분에 빚만 늘었다. 젠장.

왜 이렇게 덜떨어진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나.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살짝 맛탱이가 가버린 것 같다. 너무 갑작스럽게 팔자가 뒤바뀌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철 폭염에 밖에 꺼내둔 식재료처럼 맛이 가긴 갔어. 확실히.

“아, 그러고 보니까.”

“네?”

“노트를 새로 사야해.”

루이스가 뜬금없이 샌드위치를 베어물다말고 우물거리며 건네 온 한마디.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

‘귀엽다!’였다.

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나왔느냐하면, 그가 정말로 귀여웠기 때문이다. 다 큰 남자에게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면 이상하긴 하지만, 누나에게 ‘알림장 사러 가야해 !’라고 말하는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달까? 마치 그랬다.

나보다 키가 한 뼘 이상은 큰 남자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웃기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눈앞의 이 남자도 참 어이없군. 도대체가 어떻게 돼먹은 생물인 거지?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걸로도 모자라, 이젠 귀엽기까지 해? 네 유전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하나만 나눠주라. 부탁이니까.

“그럼 사러 가죠. 어디예요?”

“이쪽.”

“지갑은 가지고 나오셨어요?”

도리도리. 아닛, 그런 도리질 좀 치지 말란 말이야! 보는 사람 심장 아프니까! 살인마법사 손에 죽기도 전에 나 스스로 죽겠다. 사인은 물론 부정맥으로다가 말이야. 정말 위험한 얼굴이라고, 저건.

하지만 내 심장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지. 노트를 사야 하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왔다고? 그거, 나한테 사달라는 소리지? 뭐, 우리 주인님께서 필요하시다면야.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응. 나중에 네 월급에 추가해줄게.”

“아녜요, 됐어요. 그 월급 받는 걸로도 충분히 과분해서 사드리려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물 되시는 게 저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주인님.”

“ 차라리 돈으로 갚을게.”

“?”

루이스에게 이런 재치가 있었다니. 아니, 진심인 건가? 흠칫하며 은근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금 샌드위치를 베어 물어 우물거리기 시작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그, 그래 뭐. 뭐로 갚든지 그거야 네 맘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가 가는대로 졸졸 따라가려니까,

“아샤.”

앞을 보며 느긋이 걷던 그가 대뜸 나를 불러왔다. 샌드위치는 아직 반도 못 먹었다. 우아하고 느릿한 동작만큼이나 먹는 게 꽤 느리구나, 루이스는.

그가 입안에 있던 걸 삼키고서는 나를 돌아봐왔다. 옆이지만 살짝 뒤에서 빠져 걷고 있던 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를 마주함과 동시에 ‘에? 네?’하는 대답을 툭 내뱉었는데.

“유이라는 사람, 알지?”

그가 물었다.

“아, 네. 당연히 알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은 왜?

“그 사람 조수로 들어갈래?”

응?

“아뇨.”

이내 이어진 그 황당한 물음에 내가 고개를 도리질 치며 거부 의사를 내비치자, 루이스가 의외라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네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아까 전의 나도 그랬단다.

“아 응.”

그러나 그의 반응은 그게 끝이었다.

혹시 오전에 내게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뜸들이던 그 때에 하려던 말이 이거였나? 왠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 뜸을 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선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류이 일파들이 ‘루이스는 황자님 제안을 신경도 안 쓴다’라고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눈앞의 이 남자는 그들의 제안을 꽤 신경 쓰고 있었던 모양. 하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다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루이스는 한동안 앞만 보고 묵묵히 걸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정만 봐서는 모르겠다. 그는 정말이지 손에 들린 샌드위치가 무안해질 정도로 걷기만 했다. 나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저럴 거면 대체 왜 들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넌지시

“배부르세요? 버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아, 괜찮아. 내가 버릴게.”

라고 대답하며 포장지로 반쯤 남은 샌드위치를 돌돌 감싸더니 상가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넣는 그.

뭐지. 생각에 푹 잠겨있는 사람처럼 멍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를 응시하며 나는 고민에 휩싸였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를 류이의 조수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하니 당황한 건가? 아니면, 내가 류이의 조수로 가지 않겠다고 해서 뜻밖이라 당황한 거?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류이에게 가지 않겠다고 해서 기쁜 걸까? 아니, 다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는 머릿속이 안 읽히는 그라, 나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해보다가 이내 그것마저 포기했다. 그런 걸로 쟤 머릿속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관심법의 달인으로 전직했다고 봐야한다.

그래. 빠르게 궁예로 환생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순간 루이스의 머릿속을 파악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야. 의미 없는 도전은 관두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의 뒤를 잠자코 따랐더니, 머지않아 잡화점 앞에 도달했다. 노트나 필기류 등 온갖 물건은 다 취급하고, 요청하는 물건이 있다면 외부에서 공수해주기도 하는 그런 잡화점이라고 들었는데. 와보는 건 처음이라 은근히 놀랐다. 꽤 큰 걸? 2층까지도 있다. 상가의 건물들은 대부분 1층이라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가게인 듯.

딸랑-

“어서오십시오!”

오, 종업원도 좀 많아 보여. 대학 상가에서 잡화점 하면서 돈 꽤나 벌었나 보다, 이 가게. 손님들도 그만큼 많았다.

“ !?”

루이스가 가게의 유리문을 열며 들어서고, 나는 그가 먼저 들어가더니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고, 주인님!

이, 이래도 되나? 조수가 학생에게서 너무 과분한 친절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더욱 부추긴 것은, 가게 내부에서 물건을 고르다 말고 이곳에 들어오는 루이스와 내게 시선을 고정해버린 수많은 손님들 때문이었다.

유니폼을 보아하니 학생도 있고, 조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가릴 것 없이 루이스를 보았다가 이내 내게로 고개를 돌려왔다. 마치 ‘쟤는 조수인 주제에 왜 루이스에게 저런 에스코트를 받아?’하는 눈빛들인데 아니, 그거 나도 궁금해. 난 어느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라 일개 조수―그것도 천민―인데, 왜 이런 복에 겨운 대우를 받고 있을까? 나도 그런 이유 따위 모른다고. 나도 궁금한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루이스에게 직접 물어볼 거 아니면 쳐다보지 마, 좀!

“노트, 아무거나 다섯 개만 골라줘.”

“ 아, 넵.”

루이스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급히 노트가 있는 쪽을 찾겠답시고 구석으로 이동했다. 저런 시선은 부담스러워. 매우 부담스러워.

운이 좋았던 건지 우연의 일치인 건지, 마침 내가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긴 자리에 노트들이 놓여있었다. 아무거나 골라달라더니, 정말로 아무거나 골라도 될 것 같은 노트들. 똑같은 디자인에 색들만 알록달록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종류별로 갖다 둔 거야? 색깔별로 무지개마냥 전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나?

눈앞에 전시된 노트들을 신기하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던 그 때,

“여기서 뭐해?”

“응?”

옆에서 누군가가 은근스럽게 스윽- 하고 고개를 들이밀어 왔다.

“ 어!?”

아니, 얘가 여기엔 왜 또!

내가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내게 위치추적기가 붙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판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루이스를 잘 꼬시고 있는지 등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던가.

내게 다가온 인물은, 가문명이 ‘계’는 아닐지 의심해봐야 할 그, 란이었다.

“여기엔 뭐 하러 오셨어요?”

속닥속닥. 딱히 친근한 느낌으로 귓속말을 주고받고픈 상대는 아니었지만, 장소가 장소인지라 대놓고 떠들어도 될 분위기는 아니었다. 작게 묻는 나의 말에, 안경 아니지. 이제는 이름을 좀 부르자. 입에 안 붙더라도.

그, 란이 답해왔다.

“물건 사러 왔지.”

“아.”

너무 당연한 걸 물었나? 어쩌면 나, 무의식중에 정말로 란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한 건지도.

시선을 슬쩍 아래로 내려보니, 정말로 란의 품에는 이곳에서 고른 듯한 물건들이 한가득 안겨 있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그런 건 왜 사시는데요? 어디다 쓰시게요?”

그가 고른 것들은 눈앞의 이런 남자가 아니라, 온실 속 화초로 고이고이 자라온 어느 귀족 가문의 여식이 취미로 옷 만드는 걸 즐긴다던가, 십자수, 또는 인형 만드는 걸 즐겨하는 타입일 때에나 살 법한 그런 재료들이었다. 여러 가지 색색의 실타래들과 바늘, 그리고 알록달록한 종류의 천들 에다, 동그랗고 까만 인형 눈깔까지. 이곳엔 정말 별 게 다 있구나 싶어지는데, 문득 드는 의문.

네가 이런 걸 왜 사?

“아아, 꼭두각시를 한 번 만들어볼까 해서.”

“꼭두각시요?”

뜬금없이 꼭두각시는 왜 만들어? 안 어울리게. 아니지. 어울리고 말고를 떠나서, 나이를 열아홉이나 먹은 남자가 이런 알록달록한 천들을 재료로 꼭두각시를 만든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 닌자 만화 속의 꼭두각시같은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만든다는 건가? 마법으로?

“갑자기 그런 건 왜 만들어요?”

눈앞에 보이는 와인색 노트를 집어 들고 괜찮은지 훑어보며 그에게 물었다. 란이 들고 있는 자신의 재료들을 흘끔 내려다보더니, 내게 답해왔다.

“경진 대회 출품작. 학생들은 하나씩 준비해야하거든.”

“ 아 그렇, 응? 경진 대회요?”

어라, 이건 또 처음 듣는 소린데. 그런 대회가 있어? 게다가 학생들은 출품작을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고? 난생 처음 듣는 얘기에,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란이 도리어 ‘왜 몰라?’하는 표정으로 똑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따라하지 마, 안 귀여우니까. 그런 건 루이스 같은 미남이나 해야 어울린단 말이다! 라고 그의 앞에서 말했어야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루이스는 근처에 없는 모양인지 금색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다. 아, 이런 대사를 직접 듣게 해야 루이스가 뿅갈 텐데 말이다. 우연의 여신은 내 편이 아니군.

이로써 기사의 맹세는 나로부터 한 발짝은 더 멀어졌다. 하하, 죽음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몰랐어? 3주 뒤에 마법 대학에서 경진 대회가 열려. 참고로 조수들도 참여할 수 있지.”

“진짜요? 처음 들었어요.”

“계획, 잘 진행되고 있긴 해? 이런 기본적인 얘기조차 못 들어서야.”

나 스스로 드는 자괴감만으로도 벅찬데, 내가 너한테까지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겠니? 이마 위에 슬금슬금 떠오르려는 빠직 마크를 가까스로 집어넣으며, 나는 눈앞의 이 안경잡이 자식을 주먹으로 한 대 쥐어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걸 간신히 참아냈다.

이러다 조만간 요단강 건너 염라대왕한테서도 ‘루이스 좀 잘 꼬셔보지 그랬냐’는 핍박을 듣게 될 것 같다. 누구는 기사의 맹세가 필요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 목숨이 안 아까워서 루이스에게 점심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주는 조수로 지내고 있겠느냔 말이다!

는, 그래. 사실 이쯤 되면 나는 내 목숨이라고는 저 바깥에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는 낙엽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2주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루이스에게 민폐만 끼쳐대며 호감이라곤 1도 못 얻는 조수로서 눌러 붙어있을 수 있겠어.

좋다. 인정하지. 난 루이스에게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민폐 조수 정도일 거야.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고. 내가 기사의 맹세를 받게 되는 날은 아마 지금부터 1겁은 더 지난 시간에야 가능할 것 같다. 죽는 게 빨라도 훨씬 빠르겠군.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뭐.”

하지만 순순히 개복치처럼 꽥! 하고 죽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사실 이게 노력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긴 하다. 지금도 루이스와 함께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지금부터 차차 열심히 그의 일을 도우며 가까워지면 될 일이니까, 벌써부터 안 될지 말지를 논하며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 말에, 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자세야.”

뭔가 기분이 좀 나빴지만 참았다. 이 녀석이 언제 기분 안 나쁜 적이 있었나? 그렇다.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수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 경진 대회라는 거.”

이제는 화제를 전환해, 루이스에게서 듣지 못한 정보를 얻어 보려 슬그머니 란에게 물음을 건넸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왔다.

“응. 하지만 대학의 학생은 아닌 입장이니까, 출전 부문이 우리와는 달라.”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요?”

“ 흐음. 대학의 학생들은 일단 출품작을 하나씩 제출해야 하지. 전시 용도로 말이야. 하지만 조수들은 안 해도 돼.”

아하. 하긴, 조수들이 출품작을 제출한다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출품하겠는가? 조수 입장인 나나 마리, 아도라 등등을 떠올려보자니 딱히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다. 전시 용도로 트러플 오일이 들어간 양배추 샐러드나, 야무지게 다져 만든 스테이크, 혹은 손수 제작한 마법 재료 도구함이나 바닥이 잘 쓸리는 빗자루 등을 제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은가.

마법사들이야 물건에 마법을 걸어서 만들면 뭔가 기발한 게 나올 수도 있다지만, 조수들 중에는 마법이라곤 1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니까 조수들은 전시회를 안 하는 편이 확실히 낫겠어. 마법사와 조수가 같이 전시회를 연다면, 상대적으로 꿀려 보일 게 당연하잖아? 괜히 했다가 아처 같은 녀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단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어라. 그런데, 잠깐만. 얘는 출품작으로 꼭두각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꼭두각시를 만들겠다고 이런 누더기 인형이나 만들 때에 쓸 법한 재료들을 사가는 거지? 좀 수상하다. 잘 지켜봐야겠는데. 아니지. 내가 얘를 왜 지켜봐? 그래, 관심 끄자. 얘가 누더기 인형을 만드든 누더기 옷을 만들어 입든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대신 조수들은 요리, 춤, 노래 부문에서 대회가 진행돼. 경진 대회는 총 3일 동안 하는데, 이 대회들은 셋 다 마지막 날에 몰려 있지.”

헉, 나는 그의 말에 헛숨을 들이켰다. 다 내가 자신 없는 분야들이잖아! 미쳤군. 나를 겨냥한 건가?

“ 그, 그렇군요. 뭐 상품 같은 것도 있어요?”

“있지.”

“뭔데요?”

“주인과의 하룻밤 ?”

란 녀석은 황당한 대답을 내뱉더니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검지를 살포시 입가에 갖다 댔다.

너 미쳤니? 내가 아주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지?

“마법 대학에서 동성애 마법사들을 상당수 배출하겠네요. 거 참 잘됐다.”

“아, 안 속네. 은근히 기뻐하는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는데.”

“개소리 집어치우시죠. 제가 왜?”

라고 대답해놓고, 나는 그가 한 말뜻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렇다. 나의 주인은 자그마치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느 남자보다도 멋지면서, 보고만 있어도 햇살보다 눈이 부시고 살이 떨려 팬티를 몇 개나 갈아입게 만드는 용자단려한 미남 중의 미남이었다. 온갖 미사여구들이 ‘행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아우들 좀 더 데려올까요?’라고 제 스스로 요청하게 만들 법한, 그런 무지막지한 얼굴을 지닌 남자였단 말이다.

일순 생각했다. ‘저런 걸 경품으로 걸어 달라 해볼까?’

응, 안 돼. 될 리가 없잖은가. 게다가 그런 건 진짜로 받게 된다 해도, 민망해서 쓰지도 못할 경품이라고!

지나가던 똥개도 비웃고 갈 터무니없는 잡생각은 훌훌 떨쳐내 버리고, 나는 그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요구했다.

“그래서, 진짜 경품이 뭔데요?”

“어차피 네가 받을 일 없을 텐데, 그런 건 왜 물어봐?”

지금 여기서 란의 안경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버려도, 어쩌면 합법이지 않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정당방위라는 거. 이 세계에는 없나? 모르겠군. 하지만 일단 나는 란을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래, 물어보자.

“때려도 돼요?”

“안 돼. 아픈 건 싫어서 말이야.”

!

이 빌어먹을 인간을 언제 한 번 기필코 골탕 먹여 주리라, 하는 생각을 하며 손만 부들대고 있자니 이번엔 그가 제대로 설명해왔다.

“학생들의 경진 부문은 마법 경합, 시약 제조, 춤이야. 첫날은 시약 제조, 둘째 날이 경합, 셋째 날에는 저녁에 대연회장에서 파티가 있을 거거든. 조수들의 춤 경연과 겹쳐서 진행되는 셈이지. 심사는 이곳 교수들이 해. 세 가지 부문을 통틀어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과 조수가 뽑히는 거야.”

“아하.”

“그리고 경품은 ‘원하는 것 아무거나’. 마법 대학 내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설령 진짜로 네가 루이스와의 하룻밤을 원한다면, 그것조차도 가능하지.”

“ 왜, 왜요? 아니,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약속의 맹세’를 걸어놓은 계약서가 경품이거든. 그러니까 우승자가 그 계약서에 쓰는 내용대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해. 예전에는 그 계약서를 이용해서 대학의 교수가 된 조수도 있었어. 물론 얼마 못가 능력 부족으로 박탈됐지만.”

“아, 헐. 세상에나.”

란의 설명을 듣고 보니, 문득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

일단 첫 번째.

“만약 대학 측에서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요?”

란은 대답한다.

“흠, 대학 총장이 목숨을 잃겠지?”

“총장이 누군데요?”

“이 대학, 누가 지었어?”

“그거야, 프란치아 제국 황실에서 아카데미랑 함께 지은 대학 에엑-!?! 설마!”

야, 이건 좀 아니잖아!

“황제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행해야 하는 거지.”

“세, 세, 세상에. 어떻게 고작 마법 대학 대회의 상품에 황제의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거짓말이죠?”

황제는 그런 거에 자기 목숨을 걸어? 왜? 아니,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몰라서 그러나?

“진짜야. 진짜니까 그 어떤 황당한 요구가 주어져도 들어줘야 하는 거지. 설령 100억 베른을 주세요! 라던가, ‘프란치아 제국을 저한테 주세요!’하는 것도.”

“그, 그런 걸 어떻게 들어줘요! 절대로 불가능하잖아?”

100억 베른이면, 전생에서의 화폐개념으로 총 10,000,000,000,000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 자그마치 10조다 10조. 그런 어마무시한 금액은 대학 옆에 위치한 커다란 황성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대도 못 구할 텐데, 어떻게 일개 대회의 경품으로 준다고? 더더군다나 프란치아 제국을 달라니,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개소리 오브 개소리. 황제와 황태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말이야. 역모라도 돼?

“맞아. 사실 그런 건 불가능해서 들어줄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될까?”

란이 질문해왔다. 당연한 거 아냐?

“황제가 죽겠죠!”

“그럼 그 다음은?”

“?”

그 다음이 있나? 란의 물음에 턱을 쓰다듬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보던 나. 이내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치듯 얻은 깨달음.

아아! 내가 밥 먹듯이 되뇌었던 그 단어가 답인 거다!

‘사형’ 말이야!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죽나요, 혹시?”

“응.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해서 황제를 죽게 만들었으니, 학생이든 조수든 무조건 역모죄로 사형이야.”

“ 그럼, 황제한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방식으로 황제를 시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약속의 맹세에 황제의 목숨을 건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대체 왜?”

“글쎄. 사실 어쩌면 그 계약서는 눈속임일지도 몰라. 약속의 맹세에 그만큼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짓말일지도 모르지. 계약서에 걸린 맹세에 누구 목숨이 달려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직 아무도 그 계약서로 인해 죽은 적이 없으니까.”

“으음 ? 그럼 누가 알까요? 어쨌거나 누군가의 목숨을 건 맹세인 거잖아요.”

“나도 몰라. 그게 누구 목숨인지는 오직 황제만이 알겠지. 하지만 진짜 황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을 저지를 이유가 없지.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그저 개죽음이잖아?”

“아, 그런 거예요?”

란의 구구절절한 설명에, 나는 무릎을 ‘탁!’하고 치며 감탄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듣고 보니 꽤 기발한 생각 같아. 그러니까, ‘황제의 목숨이 걸린 계약서다’하고 내세워서 힘을 실어주는데, 사실 그 계약서에 달린 목숨이 누구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거잖아. 만약 황제 시해를 목적으로 누군가가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적는다면, 역모의 싹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어쩌면 황실에서 잔머리를 잘 굴린 상품이라고 봐도 될 듯.

만약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목숨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일단 황족 된 이들의 입장으로서는 꽤 좋은 아이디어일 것으로 보인다. 상품도 주고, 불온한 싹도 쳐내고. 일석이조일 테니 말이야.

이 나라의 황실 임원들이 꽤 잔머리가 좋구나-라고 생각하며 파란색 노트를 집어 드는데, 그런 내게 란이 물어왔다.

“너도 당연히 대회에 참여할 테지? 그런 계약서가 상품이니 말이야.”

“ 네?”

응? 나는 딱히 생각 없는데.

어느새 빨주노초파까지의 무지개 색으로 노트 다섯 개를 골라 품에 안아들고 있는 내가, 란에게 되물었다.

“제가 왜요? 별로 생각 없는데. 게다가 저, 요리든 노래든 춤이든 다 꽝이라서요.”

“나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아? 우리 같은 학생들보단 훨씬 쉬운 입장이잖아, 너희 조수들은.”

응? 참나. 네가 알긴 뭘 알아!

그의 황당한 대답에 나는 인상을 살짝 찡그려보이다가, 이내 말을 이었다.

“저한테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밥 먹듯이 파티가 열리는 집구석에서 매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뛰어난 요리사에게 요리 지도까지 받고서 이곳에 들어온 영애나 영랑 신분의 조수들을 내가 감히 어떻게 이긴다고. 그의 터무니없는 말에 콧방귀를 뀌며 대답하자, 란이 의아하다는 듯 말해왔다.

“너라면 꼭 나가야 할 텐데.”

“왜요?”

“계약서에 ‘루이스와 기사의 맹세를 맺게 해 주세요’라고 쓰면, 지금까지의 네 고민은 전부 해결될 테니까.”

응?

“!!!”

자, 잠깐만.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랗고 굉장한 일리가.

나는 지금까지 란을 개소리만 골라 하는 멍청한 인간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살짝 다르게 고쳐먹어야 할 것 같다. ‘멍청하게 생겨먹고 개소리만 골라서 하지만 조금은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녀석’ 정도로.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한다던 그 계약서에, 기사의 맹세를 조건으로 건다 라. 나한테는 완전 개꿀이잖아? 한마디로 루이스의 마음을 뺏기 위해 있는 노력 없는 노력 쥐어짜내며 발버둥 칠 시간에, 3주 뒤에 있을 그 경진 대회만 잘 준비해서 한탕 치는 데에 성공한다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대역전이 가능해진다는 소리다.

장차 루이스의 조수로서 꿀도 빨고, 목숨의 안전도 보장받고. 천민 신분에 알바인생으로 핍박받으며 전전하던 인생에서, 자그마치 착하고 다정한 주인님 아래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 오오! 고작 대회 하나 우승한 걸로, 인생 너무 상팔자 되겠는데?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경진 대회 우승자였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러한 빅 픽쳐에 상당히 놀랐다. 이런 똑똑한 생각을 란 주제에 떠올려냈다니. 왠지 진 것 같아서 좀 불쾌한 걸?

하지만 일단은 도움이 됐으니까. 나는 내심 감탄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꼭 출전해야겠는데요, 그거?”

“응? 아, 잠깐만. 난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 네가 출전해서 뭐하게?”

이제 와서 왜 밑장을 빼고 앉았니? 그런 좋은 정보를 물어다 준 새가 누군데.

“뭐하긴요? 우승해서 제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아야죠.”

“네가 우승할 일은 없을 텐데. 조수 가문에서 나고 자란 애들은 수준부터가 틀려.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기게?”

“그거야 두고 보면 아실 일이고요.”

나는 나를 개무시하는 란에게 큰소리치듯 콧방귀를 뀌어 보이며 말했다. 지금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그래. 내가 허접한지 다른 조수들이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 순간, 나는 3주 뒤에 있을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고 말겠다는 포부를 단단히 굳히고 있었다.

“흐음 ”

나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렇다. 그 경진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오긴 했는데, 문득 루이스의 서재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나에겐 마땅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요리? 그냥저냥 한다. 하지만 이런 나보다도 아도라가 더 잘한다. 그리고 그런 아도라 보다도 잘하는 조수들은 이곳 마법 대학에 차고 넘칠 것이다. 노래? 그냥저냥 한다. 목소리도 꽤 여성스럽고 괜찮은 편이라고는 들었으나, 단지 그것뿐이다. 성악가에게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운 교양 지식 높은 영애와 영랑들이 이곳 마법 대학에는 차고 넘친다. 춤? 이하생략.

그런 이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기지?

“ 끄응.”

당당히 반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내 라이벌 되는 이가 반에 햄버거를 돌리고 공약으로 ‘저희 반을 왕따가 없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떠들고 다닐 때, 햄버거를 돌릴 돈도 없고 모두가 화합하게 만들 자신도 없는 비루한 출마 후보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 그래, 딱 그런 기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요리를 해야, 어떤 노래를 불러야, 어떤 춤을 춰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까. 나는 소파에 앉아 그 고민을 삼십 분은 했다. 그러자, 내가 너무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가 말을 건네어 왔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라고.

있긴 있지. 들어줄 거니?

“기사 아, 아니에요.”

‘기사의 맹세를 걸어주세요!’라고 말할 뻔했다. 그래, 루이스가 내게 기사의 맹세를 지금 당장이라도 걸어준다면 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해주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 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 내가 그 대회에서 우승하게 된다 해도, 루이스에게 기사의 맹세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든다. 루이스는 자신의 귀한 목숨을 고작 나 따위 천민에게 걸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계약서에 그런 요구를 적음으로써 그에게 강제적으로 기사의 맹세를 맺게 하는 꼴이니, 어쩌면 그것도 루이스에게 몇 번 신세를 졌던 나로서는 해야 할 짓이 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와.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도 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나도 안전해지고 싶을 뿐이야, 라고 속을 달랬다. 물론 마법 대학 측에 ‘제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노릇이겠지만, 듣자하니 루이스의 세 번째 조수는 대학 측의 철통같은 보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어버렸다고.

이런 전례들로 보았을 때, 결국 맹세 마법 등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 잡지 않으면 나 같은 파리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거란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천민인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겠지. 언제 어떻게 죽어버려도 뒤탈이 없는 존재이니 말이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버린 나로서는 더더욱 루이스를 이용해야만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루이스는 무슨 죄냐고? 야 잠깐만. 그럼 난 무슨 죈데? 천민으로 태어난 게 죄야? 죄냐고! 이기적이라도 욕해도 어쩔 수 없잖아? 애초에 나를 이런 사지로 내몬 것은 에스테의 마법사 아저씨와 루이스의 아버지인 레플리카 공작이니까. 나를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게 만든 건 그들이니까, 나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찾은 거라고.

물론 이건 내 나름의 변명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구차한 변명.

“저, 경진 대회에 나가볼까하는데요.”

“ 경진 대회?”

곧 있으면 수업 시간이기에, 노트와 필기구들을 챙기던 루이스가 나를 쳐다봐왔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루이스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와 눈이 딱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루이스는 담담한 목소리로 저리 대답해오는데. 불편한 기색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내가 경진 대회에 나가든 말든 관심도 없는 표정이다. 거는 기대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건가? 일단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루이스에게 슬며시 물어보았다.

“주인님께서는 출품작 내시는 거 없으세요?”

루이스가 내 얼굴을 바라봐오며 답한다.

“있어.”

“뭔데요?”

“아직은 구상단계야.”

“아하.”

루이스의 대답에, 나는 골똘히 생각해본다. 과연 어떤 걸 구상하고 있을까? 란은 웬 꼭두각시를 만들겠다며 실타래나 바늘 같은 거만 한가득 챙기던데. 원래 이곳의 전시회라는 게 보통 그런 걸 만들곤 하는 건가? 그럼 대체 우리 주인님은 어떤 걸 만들게 되는 거지? 상상이 안 간다. 이것이 내 상상력의 한계인가 보다, 라고 느끼며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그래. 나란 녀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준비해야겠네. 아샤.”

루이스가 말끝에 내 이름을 붙여오며 한마디 건네어오는데, 그 끝에 붙은 이름 한자에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왔다.

오우야, 이건 마치 연예인이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가서 사인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스파르타로 연습하려고요.”

스파르타 정도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라는 뒷말은 생략했다.

내 대답에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갈 채비를 위해 학생 유니폼과 한 세트인 코트를 입으며 그는 내게 넌지시 말해오는데.

“잘해봐. 응원할게.”

라는 것이 아닌가!

“ 헉, 넴.”

고개를 미친 듯이 위아래로 끄덕거리며 대답했다. 심쿵. 이로서 내가 대회에서 우승해야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주인님을 실망시켜드릴 수야 없지, 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주인님은 내게 목숨이 담보 잡히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경진대회의 우승자는 나, 아샤가 될 것이다! 기필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보이리라.

루이스가 서재를 빠져나간 뒤, 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한 시간 정도를 생각이라는 심연 속에 푹 가라앉아있었다.

경진 대회. 한마디로 ‘춤, 노래, 요리 실력’을 대결시킨다는 것 전생에서 많이 보았던 슈X케라던가, 쇼X더머니 같은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그 때 우승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나. 이슈가 되었던 인물은 누구였던가. 그래, 보다 눈에 띄고 독창적인 노래를 불렀던 사람, 시선을 확 사로잡을만한 그런 기발하고 기막힌 솜씨를 보여준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참을 생각해보고 있자니, 머릿속을 쏜살같이 스쳐지나가는 굿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니. 나는 강태공에 빙의해 그것들을 완벽히 캐치해냈다.

그리고 낚아 올린 그 아이디어들을 써먹기 위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간이다! 췍길만 걷자, 아샤!

야심차게 계획을 구상한 내가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긴 일은, 바로 아도라와 마리를 소집하는 일이었다. 아도라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마리는 처음 막 만났을 때에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니 아도라의 무신경하고 시크한 성격에 조금은 적응을 한 듯. 지금은 꽤 편한 표정으로 레몬에이드를 빨아 마시고 있었다.

나도 오렌지주스를 한입 빨아마셨다. 쪼옥. 음, 맛있어. 마카롱도 하나 집어 먹고 있자니, 앞선 내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해보던 마리가 대답을 꺼내왔다.

“경진 대회라 나도 나가고는 싶지만, 노래나 춤 같은 거엔 전혀 소질이 없고, 요리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으응? 안 된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안 돼, 마리. 나가자, 나와 함께! 물론 아도라도!”

그랬다. 지금의 나는 바로 이들에게 손을 잡자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두 사람이었다. 이내 아도라가 내게 물어왔다.

“하지만 경진 대회는 개인과 개인이 실력을 겨루는 것인데요. 물론 춤이야 파트너가 필요하다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점수는 개별 채점일 테고요. 함께 나가자는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얘는 나랑 동갑이면서, 서로 반말을 하자 해도 자꾸만 존대를 한다. 그런데 그게 입버릇이라서 어쩔 수 없다나 뭐라나.

자아, 내가 설명해줄게. 잘 들어, 아도라.

“쉬워, 쉬워. 내가 알아보니까, 1인당 요리 하나씩을 제출해야 하는 요리 부문을 제외하면 규정 중에 ‘출전자들끼리 팀을 먹으면 안 된다’는 조항 같은 건 없더라고? 게다가 이전에는 5인 1조로 합창을 한 선례까지도 있고 말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머리를 써보자는 거지.”

“어떻게?”

이번에는 마리가 물었다. 흐음- 이들이 과연 내 제안을 오케이해줄까? 솔직히 거절당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나는 확신했다. 마리는 작고 귀여우면서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여리여리한 소녀 스타일이었고, 아도라는 늘씬하고 잘빠진 미녀 중의 미녀였다. 이런 둘과 함께 트리오를 구성한다면, 아무리 내가 평범한 외모에 꼴도 보기 싫어지는 천민이라 해도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들어는 보았나? 이것이 바로 인해전술.

밋밋한 블루스나 왈츠를 추고, 오솔레미오-하는 등의 졸음을 유발하는 노래나 부르고 자빠져있는 건 질색이다.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그런 춤이나 노래들에는 빵점을 주겠어. 파티는 역시 신나고 톡톡 튀어야 제 맛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계획은 딱 하나였다.

“요리는 어차피 개인전이니까 제외한다 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출전하고 싶은 부문은 두 가지야.”

“노래랑 춤?”

“맞아. 어차피 그런 거, 아도라나 마리도 개인으로 나가기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거 아냐. 그치?”

“저는 괜찮습니다만.”

“어허. 빨리 그렇다고 해.”

눈치 없는 아도라에게 떽! 하는 표정을 취해보이며 말하자, 그녀는 ‘흠 ’하는 소리를 내며 잠시 고민하는 얼굴이 되어버린다. 마리는 내 말이 꽤 그럴싸하게 들렸나본지, 반짝이는 눈동자로 나를 응시해오는데.

“어때? 괜찮지, 괜찮지!”

“난 으음. 실은 우리 이디아 아가씨께서도 대회에 한 번 나가보라고 권유해주셨는데, 내가 부끄럼도 많이 타고, 실력도 없어서 무리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거든. 그래서 조금 죄송했는데, 그렇게라도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맞아. 이야, 마리가 뭘 좀 아네!”

“ !”

내가 마리를 칭찬하자, 갑자기 아도라가 나와 마리를 번갈아 보더니 ‘헛!’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도라에게 요리 수업을 받으며 이리저리 부대끼고 지내다 보니, 알 수 있었던 그녀의 성격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도라는 여자들과의 친목 생활에 굉장히 미숙하다는 점이었다. 뭐, 상대가 남자라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같은 성별인 이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없어 겉돌곤 하는 자신의 성격을 꽤 불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파악해뒀다고. 후후.

“그치? 그럼 우리, 트리오 결성한 거다?”

“으응, 그래! 그런데, 무슨 춤이랑 노래를 하려고? 춤은 역시 왈츠나 탱고 같은 거겠고. 노래는 뭘로 할 건데?”

“놀라운 우아함이나, 에레스뚜 정도가 좋지 않을는지요.”

“아아, 노노. 그런 따분한 노래는 안 돼. 그런 걸로는 안 된다구.”

“따분 ? 그럼, 대체 어떤 곡을 하려고?”

"?"

마리와 아도라가 감도 잡히지 않는다는 듯 궁금증을 한가득 담은 표정으로 나를 응시해온다. 후후, 놀라지 마시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춤과 노래를 가르쳐줄지를 말이야 !

“잘 들어. 우리가 부를 노래와 추게 될 춤은 말이야 속닥속닥.”

나는 마리와 아도라에게 손짓해, 건너편에 앉은 그녀들이 내게로 상체를 숙여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소곤소곤 귓속말을 건넸으니.

이어진 그들의 반응은

“에엑!?”

“그, 그래도 되는 겁니까 ?”

경악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째?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교양을 마스터한 영애와 영랑들 사이에서 보다 높은 득점을 하긴 어려울 텐데. 최대한 특이하고 새로운 걸 해야 남들보다 플러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물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야 하겠다만.

“우린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아, 이건 좀 ”

“아닌 것 같지 말입니다 ”

“나 못 믿어?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는 모 아니면 도야. 우리는 죽어서도 함께 간다!”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어 심장을 탁탁 쳐 보이는 나를 바라보며, 마리와 아도라는 못내 미덥다는 표정을 지어왔다. 아니, 벌써부터 팀에 균열이? 이러면 안 되지.

“표정들을 보니 안 되겠어. 오늘부터 당장 연습 돌입이야! 다들 날 따라와!”

“에엑!?”

“저,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

“어딜?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 !”

덥썩-

나는 그렇게 마리와 아도라, 이 둘과 함께 스파르타식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시간은 마치 한조의 손을 떠난 갈래화살과도 같아서, 어느덧 대회 준비를 시작한지 일주일 하고도 3일이 흘렀다. 약 3주의 절반 정도가 흐른 셈.

그 시간 동안 나는 루이스의 조수 일을 하며 이곳에서의 적응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렸다. 이제는 주인님의 식사도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다고! 아, 물론 요리 솜씨나 메뉴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안 차려주거나 못 차려줬던 때보단 낫지 않은가? 루이스도 내게 ‘이젠 이곳에서의 생활에 꽤 적응을 했나보구나’라고 말할 정도였단 말이지. 으흠.

그렇게 잘나신 지금의 나는 뭘 하고 있냐고?

“흐음 이건 어떻게 해야 잘 만들었다는 소문이 날까?”

뭐긴 뭐야? 대회 준비지.

이번에는 식수에 설탕과 레몬즙을 넣고, 구연산과 소다 등을 일정 비율로 배합하며 섞어보는 중이었다. 물론 이것은 믿기지 않겠지만 대회 준비의 일종이었으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요리에는 마실 것이 빠지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실험이었지만, 역시 콜라를 만들기엔 무리였다. 그래서 다음으로 택한 것이 사이다였는데.

전생의 나는 호기심이 꽤 많은 편이었기에, 집에서 요구르트와 사이다를 만들어본 적이 있었다. 직접 만든 요구르트는 발효시킨 후 냄새를 맡아보니 나라는 요구르트 냄새는 안 나고 발 냄새만 나기에 바로 버렸었지만, 사이다는 꽤 괜찮은 맛이 났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보려 하니 그 때의 맛은 얼추 따라할 수 있었지만, 역시 뭔가가 부족했다. 오리지널 사이다가 지닌 청량감과는 큰 거리감이 있다고, 이거.

무슨 수를 써야 좋을

“ 아, 그래!”

지금은 아무리 먹어봐도 그저 달달한 설탕물 느낌이기만 했다. 이 빈티 나는 맛은 역시 탄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래, 역시 탄산음료에는 탄산이 들어가야지.

나는 비록 문과였지만 탄산음료 속 탄산이 이산화탄소를 압축한 것이란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액체에 공기 중을 떠다니는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무슨 수로 넣는단 말인가? 이곳에서는 탄산가스라는 개념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데. 무슨 기체를 압축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이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현명한 답이 떠올랐으니 !

내게는 천재 마법사라는 타이틀을 지닌 주인님이 있잖아?

“주인님, 주인님!”

“ 왜?”

지금 이곳은 루이스의 서재 안이었다. 대회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인지라, 대학 측에서는 대회전까지 학생들의 오후 수업을 싸그리 빼주었는데. 조수입장인 나로서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루이스는 별로 손이 가지 않는 주인님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수업을 들으러 가있을 때가 낫지, 한 공간에서 이리저리 부대끼고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일들만 늘어서 영 별로란 말이다. 마치 자식이 방학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달까? 어, 이거 표현 딱 적절하네. 그래, 딱 그런 거다.

이런 마인드로 루이스는 어느 세월에 꼬시냐고? 그 그러게.

“바쁘세요?”

대회 출품작을 만들어야 하는 루이스이기에, 그 또한 나만큼이나 바빴다. 그는 얼핏 눈으로 보기에도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는 괴이한 물건을 만들고 있었는데 앙부일구?

“아니, 괜찮아. 왜?”

세수용 대야인지, 앙부일구인지 모를 발 달린 무언가를 만들고 있던 루이스가 내게 되물어왔다. 나는 ‘대체 뭘 만드시는 뭐예요?’라고 물으려다가, 왠지 대회 당일에 두 눈으로 직접 그가 만든 작품을 확인하고 싶어져 마음을 바꿨다. 그 완벽한 마법사이자 천재라고 불리는 루이스가 저런 발 달린 대야 같은 걸로 뭘 만들어낼지 은근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액체에 용의 숨을 넣는 마법도 있나요? 압축해서 녹인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용의 숨’이란, 이 세계에서의 이산화탄소를 일컫는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면, 어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마법사가 용의 비늘을 캐러 갔다가 그만 용이 뿜어내는 콧김을 정면으로 맞고야 말았는데, 우연찮게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참고로 산소는 요정의 숨이었다. 작명센스하고는

내 말에, 루이스가 드라이버로 대야를 만들다 말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왔다. 마치 그런 건 왜 묻느냐는 표정인데. 음? 글쎄. 왜 물을까?

“글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왜?”

“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만들던 사이다 라기엔 밋밋하니 설탕물이라고 표현해야 할 그것이 담긴 유리컵을 들어보였다. 그러자 루이스가 ‘설탕물에 그걸 왜?’라고 물어왔다.

그건 넣어주면 알게 돼!

“일단 해주세요. 진짜 돼요?”

“갖고 와봐.”

루이스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손짓한다. 마치 조각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생겨먹은 미남인 그의 손짓에 나는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고, 발걸음이 스르르 이끌려가 이내 그의 품에 살포시 품에 안겨 버리는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꿈 깨. 그런 건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나는 유리컵을 들고서 쫄랑쫄랑 그의 책상으로 뛰어갔다. 이 대야는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앙부일구 같네. 대체 무슨 용도일까? 아, 일단 이런 궁금증은 넣어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대체 왜 그런 걸 이거, 먹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루이스는 영 의문스럽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아, 그냥 넣어주면 된다고! 마시고 보면 알아! 너도 한 입 마시게 해줄 테니까, 반해버리지나 말라고.

“빨리요!”

나는 재촉했다. 루이스가 알았노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유리컵에 마법을 거는 듯 자신의 검지로 살포시 ‘톡-’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쳤는데

부그르르륵-!

“!?”

화들짝. 유리컵에서 엄청난 가스가 폭발하듯 터져 나오며 사이다가 사방으로 튀었다. 내 얼굴에도 튀어버리는 바람에, 나는 그것을 옷소매로 슬그머니 닦았다.

뭐, 뭐지 ? 대체 무슨 마법을 건 거? 진짜로 탄산을 넣은 게 맞나? 왠지 다른 걸 넣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지는데.

조금 의심이란 걸 해보던 나는, 이내 그것을 접어버리고 미친 듯이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사이다를 내려다보며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을 했다.

비주얼이 사이다 그 자체였던 것이다.

“먹으려고 만든 거 맞아, 그거?”

루이스가 묻는 말에, 유리컵을 들어 올려 입가에 갖다 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먼저 먹어보고 괜찮으면 한 입 드릴게요.”

“아, 난 괜찮 ”

루이스가 말하는 순간에, 사이다가 내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오, 바로 이거야. 톡 쏘는 이 탄산의 느낌 ! 바로 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

낌이라고 생각했는데!?

“푸훗-!!!”

탄산이 강해도 너무 강한 탓에, 도저히 입안에 머금고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덕분에 내 입은 분수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분수에서 쏟아진 물을 맞은 것은 분수대 아래에서 뛰놀던 어린아이 가 아니라 분수대를 창조한 그, 루이스였다.

설탕물을 옷에 옴팡지게 뒤집어쓴 루이스가 눈을 게슴츠레 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물어오는데.

“역시 먹는 거 아니지, 그거?”

“아, 아니거든요! 누가 용의 숨을 이렇게나 많이 때려 넣으래요!?”

탄산이 백배는 들어간 것 같은 사이다가 주륵 흐르는 입가를 닦으며 그에게 외쳤다. 루이스가 눈을 흘기며 왜 적반하장으로 나오냐는 표정을 내게 지어오는데 아니, 진심이라고, 이거!? 먹으려고 만든 건데 탄산을 이만큼이나 집어넣으면 어떡해!

루이스를 갓 만났을 때에 차로 샤워를 시켜주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그에게 스프라이트 샤워를 시켜주고야 말았다. 원인 제공을 그가 했건 어쨌건 간에 미안한 일은 미안한 일이었으므로, 일을 저지른 나는 허둥지둥 품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옷을 닦아주었다.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둔 손수건이란다! 그나저나 휴우, 얼굴에는 안 튀어서 다행이구만. 옷만 갈아입으면 되겠어.

“다시, 다시요!”

그의 옷에 묻은 물을 모두 닦아준 뒤, 나는 부랴부랴 새 컵에다 새 설탕물을 받아왔다. 그 순간, 루이스가 역시 저건 먹을 게 아니다-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도리질치는 것을 보고야 말았으니.

얌마! 방금 그건 네가 탄산을 너무 왕창 집어넣어서 못 먹을 액체가 되어버린 거라고!

“이번엔 진짜 똑바로 넣어주세요. 네?”

“똑바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좀!”

왈칵 짜증을 내는 나를, 루이스가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봐왔다. 마치 차디찬 설탕물을 뒤집어쓴 건 나인데, 네가 왜 짜증을 내냐는 듯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너만 억울하냐? 나도 억울해!

내가 야심차게 만든 황금비율의 사이다가 못 먹을 액체 따위로 취급받는 일은 참을 수 없다. 기필코 완벽한 사이다를 만들어내어 루이스의 입에서 ‘이걸로 사업이나 시작할까, 우리 ?’라는 말이 만들게끔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그에게 컵을 들이밀었다.

그는 미심쩍단 표정을 지으며 이번에도 컵을 슬며시 톡- 하고 치는데

부글-

“오!”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아. 확실히 아까보단 탄산이 덜한 느낌이다. 나는 기대를 한가득 품은 채로 유리컵을 입가에 갖다 댔다. 부디, 제발! 사이다의 신이시여!

“ !!!”

트레비앙-! 완벽해!

나는 입안에 흘러들어온 액체로부터 느껴지는 완벽한 사이다의 맛에 감격을 금치 못하고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와 세상에. 나, 이 정도면 사이다로 진짜 사업 시작해도 되겠는데? 떼부자 될 것 같다, 진짜로. 그런 혁명적인 맛인데. 정말 한 번 해볼까? 내가 빚진 건 아니라지만, 이백만 베른도 뚝딱 갚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인 !

“그럴 줄 알았어. 빨리 갖다 버려, 그거.”

뭐, 뭐시라고라? 루이스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말해왔다. 아니, 지금 표정은 맛있어서 그런 거거든!?

세상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나는 루이스에게 유리컵을 들이밀었다.

“주인님도 한 번 드셔보세요. 완전 개꿀맛! 이번 대회는 완전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어요. 자, 아-”

“아니, 난 됐어. 너나 실컷 먹어.”

“드셔보시라니까요? 주인님? 주인님!”

루이스는 내가 내민 유리컵을 봐서는 안 될 게 들어있기라도 한 물건인 양 외면했다.

아니! 나 못 믿어!? 한 입만 먹어보라니까아-!

“와, 이거 엄청 맛있어! 뭐야? 뭘로 만든 거야? 톡톡 쏘는데!”

“그건 영업비밀이야. 괜찮지, 그치?”

“응. 대회에 이거 하나만 제출해도 상 탈 것 같아. 이건 진짜 혁명이야!”

마리의 극찬에 나는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다 못해 하늘로 승천하려드는 것을 애써 끌어내렸다.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나면 좀 그렇잖아? 어쨌거나 얘네도 따지고 보면 경쟁자인데.

루이스는 앙부일구인지 뭔지를 만드느라 내 혁명과도 같은 사이다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결국 참다못한 나는 사이다를 종이컵에 담은 채로 서재를 뛰쳐나왔다. 그리고 만난 마리와 아도라에게 사이다의 기막힌 맛을 보여주었으니.

쏟아지는 마리의 극찬에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아니, 사실 잘 안다. 이미 이런 결과를 충분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예상했으므로!

후후, 그래. 당연히 이런 평가가 나와야 마땅한 거다. 거절하다 못해 아주 질색까지 하며 안 마시려들던 우리 주인님이 뭘 모르는 거라고. 내 사이다의 맛을 모르는 주인님이 불쌍해! 암.

나는 마리가 연신 ‘맛있어, 맛있어’를 중얼거리며 아도라에게 종이컵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도라도 다시금 한 모금을 홀짝여보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러더니 몇 모금을 더 홀짝이며 들이켰다. 그리고는 내게 하는 말이,

“ 다 마셔도 되나요, 이거?”

란다.

“물론이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거리며 동의했다. 이미 레시피를 완벽하게 외워둬서 만드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아도라가 들뜬 표정으로 종이컵을 홀짝인다. 마리와 나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 그치?’하는 등의 얘기를 떠들며 앞으로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고 있냐고? 그건 말이지,

“아, 떠들면서 오니까 금방이네.”

“그러게 말이야.”

딸랑-

“어서옵쇼!”

바로 잡화점이었다. 그래, 일주일 전쯤에 왔었던 그곳.

우리 트리오의 춤 연습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마땅한 의상은 준비하지 못했다. 조수 유니폼을 입고 춤을 출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것도 파티에서. 옷을 사 입자니 우리들이 준비한 춤은 흔하고 깔린 치렁치렁한 드레스 종류를 입고 출 만한 것이 아니었다. 일명 ‘무대 의상’이란 게 필요하다고나 할까?

하지만 협찬 따위가 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들의 옷장에 그런 특별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유일한 답은 직접 만들어 입는 것. 그리하여 찾게 된 잡화점이었다.

“아도라, 바느질 잘해?”

“그냥저냥 합니다.”

“마리는?”

“나는 꽤 괜찮게 해. 아샤는?”

“응, 난 1도 못해.”

“뭐야, 그거.”

깔깔! 하며 세 명이 동시에 빵 터졌다. 이런 나의 하찮은 유머감각에도 웃어주는 친구들이 두 명이나 생겨서 몹시 기쁘군. 여자친구들과 나누는 이런 오붓한 대화는 근 18년만이 아니던가. 벅차오르는 가슴을 끌어안고 친구들과 함께 원단을 훑어보았다.

“무슨 색으로 할 거야?”

“저희 춤이 워낙 격렬하니 튀는 색이 좋지 않을는지요?”

“빨강이 좋겠군. 좋아, 우리는 빨강으로 간다!”

“에엑! 잠깐만. 이거 너무 강렬하지 않아? 가뜩이나 춤도 요란한데.”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마리.”

“아, 이거. 하얀색도. 오, 이것도 예쁘다. 이 주황색은 어때?”

“좋은 안목이에요.”

“그, 그런가 ?”

하하호호 떠들며 정겹게 필요한 종류의 원단을 골라 품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데, 왠지 등골이 쎄-한 것이 묘한 기분이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저번 주에는 이 잡화점에서 란을 마주쳤었던가? 별다른 트러블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장소에서 내가 아는 얼굴의 누군가를 마주칠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도 그럴 게, 이곳은 대학 내의 유일한 잡화점―이라 쓰고 문방구로 읽을 수도 있는―이었기에 손님이 늘 바글바글했다. 보통 드라마나 만화 같은 걸 보면, 이런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마주치기 껄끄러운 누군가를 뙇! 하고 마주치곤 하지 않는가.

이곳에 들어온 후로부터 나는 삼재라도 걸린 사람처럼 재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모를 일이지. 또 마주치기 싫은 누군가를 떡하니 마주쳐버릴 지도 모를 일이

야아아악!?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거.”

“ !”

재수가 없는 인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하필이면 고개를 옆으로 딱 돌렸는데, 그 코가 깨져버리고야 말았다. 선반으로 이루어진 코너를 돌던 어느 무리, 정확히는 그 무리의 대장과 눈이 마주쳐버리고야 말아버린 것.

아니, 어쩌다 마주쳤다기엔 너무 가까운데. 녀석과 나의 거리는 1m 이내인 듯. 원단 코너가 끄트머리에 위치해있었던지라, 모퉁이를 돈 그들은 우리 무리를 바로 코앞에서 마주해야만 했다.

누구일 것 같은가?

“아, 아샤 ”

물론 마리와 아도라도 아는 얼굴이었다. 더불어 나와 눈앞의 녀석 사이에 있었던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녀들이기도 했으니.

마리가 크게 당황하며 내 유니폼 상의 끄트머리를 슬며시 잡아왔다. 하하, 마리. 내 옷 귀퉁이를 잡는다고 지금 상황의 해결책이 ‘날 불렀니!?’하고 뿅 튀어나오는 건 아니란다.

나는 갈비뼈의 고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내 뇌가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새하얘져버리려 하는 것을 애써 물감을 퍼부어가며 유색으로 물들였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안 돼, 아샤!

“이 조합은 또 뭐야? 거렁뱅이 패밀리냐?”

그 놈, 아니. 그 X끼가 나를 향해 말해왔다. 정확히는 나한테만 말했다기 보단 우리 셋을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렁뱅이 패밀리냐니! 지금 말 다했어!? 나는 짐짓 성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말은 똑바로 하시죠?”

“내가 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렁뱅이는 저뿐이거든요?”

“풋!”

“아, 아샤 ”

“아샤 ”

아처와 아처 패거리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입꼬리에 있는 대로 한가득 비웃음을 걸어 올리고, 그런 상황을 코앞에서 지켜보던 아도라와 마리가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왔다. 마치 안쓰럽기라도 한 듯이. 그런 그녀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아도라랑 마리는 딱히 거지 아니라고. 어찌 보면 낙하산이지만 일단 마리는 돈으로 이곳에 들어왔고, 아도라도 입는 옷이라던가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결코 가난한 집안 여식은 아닐 것 같단 말이다.

안타깝지만 팩트였다. 현재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렁뱅이는 나뿐이라는 슬픈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아처는 잔뜩 싸가지 없는 느낌으로 실실 쳐웃고 있었다. 웃겨? 내가 가난한 게 웃기냐? 미안하지만 난 네 면상이 더 웃긴 걸? 내가 거렁뱅이라 너한테 무슨 피해라도 준 것도 아니고. 왜 볼 때마다 시비인 거야? 그것도 우린 이제 고작 두 번째로 보는 사이인데. 내가 네 부모의 원수라도 되냐? 엉! 듣자 하니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계시더만.

“정학 당하셨으면서, 여긴 왜 기어들어오셨 아니, 왜 오셨대?”

“뭐? 기어들어와? 이게 미쳤나.”

아처가 내 말본새에 썩 불쾌했던 모양인지 인상을 험악하게 찡그리며 되물어왔다.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니? 왜, 저번처럼 내 갈비뼈에 거센 킥이라도 꽂아보지 그래! 누가 무서워할 줄 알 그, 그래. 맞는 건 조금 무섭기야 하다만.

어이가 없다. 내 말투에 왜 지가 화를 내지? 나는 어이라는 놈이 ‘잘 있어, 아샤. 나는 간다!’라고 인사하며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을 느꼈다.

지 말투는 뭐 얼마나 곱다고. 나는 천민이고 지는 귀족이니 말본새 사용 레벨이라도 지정돼있다는 건가? ‘system:삐빅- 아샤 님은 천민이므로 비속어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기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로남불식 레벨은 누가 정했는데. 니가 정했어? 그런 거냐? 그런 걸 왜 니 맘대로 정해? 이런 괘씸한 새X!

내 머리에는 점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주전자의 뚜껑이 삐이이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래. 바로 내 머리의 뚜껑이 점차 열리고 있었던 것.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달랑 나 혼자 뿐이었더라면 다소 쫄았을 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나의 양옆에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듬직하고 착하며 정의로운―물론 내 기준에서―친구들이 말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평소보다 내 오지랖과 튀어나온 간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순간. 으아아, 불타오른다!

나는 아처보다도 더한 비웃음을 입가에 한가득 걸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에게 쏘아붙였다.

“저희 주인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시더니, 저만 있을 땐 만만하신가 보죠?”

“뭐? 뭐라 못하긴 누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천민 따위가 건방지게!”

“제가 천민이라는 사실은 또 어디서 주워들으셨대? 이야, 귀도 밝으시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시고 제 뒷조사만 하시나 봐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혹시?”

그, 아처가 벙찌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몹시 분노한 듯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아차, 너무 도발했나? 이러다 정말 갈비뼈에 홈런을 맞겠다는 아찔한 걱정이 들어올 때쯤, 아도라가 대뜸 한발 앞으로 나섰다. 역시, 나의 정의로운 친구!

“그만하시지요. 언행이 과하십니다.”

“누가 할 소린데! 지금 이 미친 기집애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못 들었어? 아아, 그래. 끼리끼리 논다고 꼴에 친구다 이거냐? 한심한 것들 같으니라고.”

만약 지금의 상황을 어느 만화라던가, 드라마 속에서 묘사한다면 아처가 한 말은 분명 ‘한심한 것들’이라고 서술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에 걸리니까. 하지만 실제는 그와는 살짝 달랐으니, 아처가 한 말은 그보다 더 기분이 나쁜 욕이었다.

그렇다. 햇수를 세는 욕설을 ‘한심한’ 뒤에 붙인 것이다.

년 말이야, 년! 감히 그런 심한 욕을? 이런 아처, 이 못된 년이!

“가만. 넌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얘, 누구 조수였지? 피에르.”

“란의 조수, 아도라 페일리아 입니다.”

“아 맞아. 란 녀석에게 꽤 괜찮게 생겨먹은 조수가 있댔지. 그게 얘구나?”

아처가 자신의 뒤를 지키고 선 어느 남자에게 물었다. 피에르? 처음 듣는 이름이다만.

나이는 내 또래일 것 같은데, 총 다섯 명인 아처 패거리의 멤버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루이스만큼 반짝거리는 미남은 아니었지만, 적당히 생긴 범생이 스타일이었달까? 게다가 아처 녀석과 어울릴 만큼 딱히 날라리스럽게 생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지? 왜 이런 애들이랑 노는 거야, 넌? 머리에 나사 하나 빠졌니?

“페일리아? 그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가문이지? 아, 하긴. 출신도 모르는 근본 없는 란 녀석의 조수이니 당연한 건가? 내 조수랑 정말 비교되는군. 그렇지 않아?”

아처가 저리 말하며 피에르라는 남자를 흘낏 눈짓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으윽, 구역질나는 것들의 냄새가 벌써 이곳에 한가득 퍼지고 있다고. 빨리 손쓰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킥킥, 동감이야. 빨리 처리해, 아처. 아니면 야벨에게 없애달라고 의뢰라도 맡기던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 그리고 이것들은 그런 의뢰를 맡기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그럴 가치나 돼야지 말이야.”

아! 저 피에르라는 남자가 아처의 조수인 건가? 헐, 쟤도 참 안 됐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니, 그건 둘째 치고.

“ !”

나는 아처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떠들어대는 말을 듣기가 무섭게, 순간적으로 내 얼굴의 모든 핏기가 싸그리 목 아래로 도망가 버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왜, 어느 만화 속이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자면 ‘날 건드리는 건 참아도, oo를 건드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라는 대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내 심정이 딱 그런 느낌이었다. 아처 녀석이 나를 욕할 때엔 그저 조금 짜증나는 정도였던 감정이, 친구인 아도라가 욕을 먹는 순간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듯 왈칵! 하고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뭐? 없애 달라고 의뢰를 맡겨? 누가 누굴 죽여. 니네가 뭐라고 사람을 없애니 마니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담아? 이런 예비 살인범들 같으니라고!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니들 대낮부터 낮술이라도 했 !”

결국 참다못한 내가 나보다 살짝 앞으로 나섰던 아도라를 옆으로 슬쩍 밀치며 아처에게 덤비려는데 !

“거렁뱅이 패밀리라 하셨나요?”

“ !”

아, 아도라가 팔로 나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한 치의 떨림 없는 꼿꼿한 목소리로 아처에게 물음을 던지는데 어, 응? 이게 무슨 일?

“그래, 이 거렁뱅이 년아. 너 같은 것들이 마법 대학의 물을 흐리는 거라고, 알아?”

그 물음에 아처는 앞뒤 분간 없이 아도라에게 듣기에도 버거운 폭언을 쏟아 부었고, 그럼에도 아처의 말을 아도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듣기만 했다. 오죽하면 그 소심한 마리조차 분한 모양인지 서서히 얼굴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지랖 넓고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인 나는 오죽했으랴?

이 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

“야! 오늘 너 죽고 나 죽 ! 응?”

옷소매를 걷으며 아도라의 기다란 팔을 뿌리치고 아처를 코뿔소마냥 들이받기 위해 앞으로 확 돌진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아도라의 거센 저지에 만류 당했다. 파, 팔 힘이 뭐가 이렇게 좋아? 사실 예쁘게 생긴 남자인 거 아니야, 얘!? 몰래 운동이라도 한 거?

“그렇군요. 거렁뱅이 패밀리라.”

“킥. 이제 좀 주제파악이 되나 보지? 덜 떨어진 수준하고는 ”

빼박 악역 오오라를 풍기는 아처가 세상 그 누구보다 싸가지 없는 표정으로 비아냥거리는데, 그런 아처를 바라보며 아도라는 싱긋이 미소 지었다. 아도라는 꽤 차갑게 생겼지만 미인이었던지라, 옆에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던 나도 흠칫할 만큼 그녀의 외모력은 순간적으로 꽤 치명적이었는데. 곧이어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아처 무리들 중에 이런 얘기가 튀어나왔다.

“야, 얘 생긴 건 꽤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말이야. 이름이 아도라라고 했나? 난 덜 떨어진 천것들이랑 안 어울리는 주의지만, 넌 내가 특별히 데리고 놀아주지.”

내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모양. 아처의 패거리가 질 낮은 대화를 주고받는가 싶더니, 이내 아처가 아도라에게로 한 발짝 성큼 걸어 다가왔다. 그리고는 이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기 패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하는 것이 아닌가. 마리와 내가 동시에 ‘!’하듯 놀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는데,

이게 웬걸!?

탁-!

“죄송합니다. 전교 꼴등 패밀리랑 어울릴 만큼 덜 떨어지진 않아서 말이에요.”

“ ? 뭐?”

그런 아처의 손을 아도라가 소리 나게 쳐내더니, 저리 말한 것이다! 오우야, 언니! 걸크러쉬! 걸크 대박-! 1따봉 드리겠습니다.

아처와 아처 패거리들이 공부를 못하는 무리였나? 그것까진 미처 몰랐던 나였으므로, 방금 그 말에 아처와 아도라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아처의 표정이 점점 붉으락푸르락해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와, 사실인가 봐! 반박을 못하잖아!

“푸흡.”

우스꽝스러워라. 크티티컬 공격에 맞은 아처가 잠시 어버버거리는 동안, 나는 입을 살포시 가리며 그들을 비웃었다. 전교 꼴찌 패밀리라니, 잘 어울리잖아? 하긴,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인 마법 대학이라지만 1등인 루이스가 존재한다면 그 반대인 꼴찌도 존재해야 하는 법. 그게 하필 이 아처 패거리였다니, 뜻밖이면서도 왠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 뒤에서 1등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여러 의미로 대단한 걸?

“너 지금 말 다했냐? 내가 이곳 마법 대학의 학생으로 들어온 것부터가 너네랑은 급이 다르다는 증거야. 원래 같았으면 니들 같은 무지렁이들은 이 마법 대학에 한 발짝도 못 들인다고! 알아?”

아처가 낮게 내리깐 목소리로 으르듯이 말했다. 아도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아처를 마주 바라보며,

“그래서요? 무지렁이들이 이곳에 발을 디딘 게 불만이라면 황제폐하께 따지시든가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조수라는 직위를 만든 것은 황제폐하이니, 그분께 찾아가 따지라는 아도라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다.

하지만

아, 아도라 이렇게 막 나가도 돼 ?

이젠 살짝 뒷일이 걱정되려 한다. 마리와 나는 아처만큼이나 벙찐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젠 머릿속에서 아도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것 같다. ‘나보다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친구’ 정도로.

아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잔뜩 시뻘게진 표정으로 이를 갈듯 ‘이게 !’라는 한마디를 뱉어내는데.

어, 어어-!?

마, 맞는다아아!

“아도라!”

내 외침과 함께 아처의 손이 위로 홱 쳐들리고, 이내 녀석이 그 막돼먹은 손길로 아도라의 뺨을 내리치려는 듯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그 무자비한 손길이 아도라의 여린 뺨을 때리려 허공을 가르고 아래로 내려오는 그 짧은 찰나에, 나와 마리는 헐레벌떡 앞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었다.

“안 돼!”

“안 돼요!”

나와 마리가 동시에 외치며 마리는 아도라의 앞으로, 나는 아처의 손을 막으려 반사적으로 팔을 치켜들려던 그 때 !

탁-!?

“꼴사납게 지금 뭐하는 거야? 아처.”

누군가가 나보다도 먼저 그런 아처의 손을 붙잡았다.

어느 틈엔가 쏜살같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그는, 다름 아닌

“ 뭐야, 너 는!?”

마법 대학 영역 1번 문제입니다. 보기 중 답을 고르시오.

1번) 루이스

2번) 란

3번) 레오니드

4번) 류이

5번) 잡화점 종업원

이번에는 누구일 것 같은가?

“레오니드 !? 여긴 왜?”

그렇다. 이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란도 류이도 루이스도, 하다못해 이곳에 몰래 잠입해 종업원 행세를 하고 있던 은둔 고수도 아닌, 바로 레오니드였다.

허어 재수가 좋다 해야 할지, 아니라 해야 할지. 이런 좁은 공간에서 참 골고루도 만나는구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처 다음엔 레오니드야? 운명의 농간이 좀 지나친데.

“잡화점에 물건 사러 왔지, 왜 왔겠어?”

레오니드는 상냥하게 미소지어보이며 아처에게 답했다. 그런데 그 이후 탁! 소리 나게 그의 손을 내팽개치듯 놔버렸다. 표정과는 정반대인 그의 행동에 당한 아처나 지켜보던 우리들이나 눈이 휘둥그레졌다. 쟤, 저런 캐릭터였어? 상당한 반전.

“그러는 너희야말로,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다른 걸 구하러 왔나보지?”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 ”

레오니드는 평소보단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처 패거리중 하나가 횡설수설하듯 끼어들려는데, 레오니드가 역겹다는 표정으로 슬그머니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정학 2달로는 부족한 거지? 더 늘리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야? 진작 그렇게 말을 하지.”

라고, 매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너에게 관심이 생겼어’ 라고 말할 때나 써먹는 사근사근하고 다정한 목소리밖에 못 내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놀랐다.

“아니! 레오니드,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억울하거든? 내가 먼저 시비 건 게 아니라고!”

네가 건 게 아니면 누가 걸었냐? 귀신이 걸었냐! 아처의 어이없는 변명에 콧방귀를 흥하고 뀌었는데, 하필이면 녀석이 그걸 들었는지 내게로 눈깔을 부라려왔다. 왜? 뭐! 한 대 쳐보시지!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면 말이야!

라는 눈빛을 마찬가지로 부리부리하게 쏘아 보냈더니, 아처는 이내 내게서 시선을 회수하며 레오니드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주절거리던 변명을 마저 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정학을 당해야 해? 가뜩이나 저번 그 정학도 어이없게 당한,”

“뭐?”

“ 아, 아니. 루이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처가 이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아니, 이제 고작 두 번 본 사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말실수를 내뱉은 지금의 아처가 짓고 있는 표정은 루이스로부터 두 달 정학을 당했을 때보다 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왜지? 어째서 루이스보다 레오니드를 더 무서워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리와 아도라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 오는데 마리는 ‘다행이야, 정말!’하는 표정으로 안도한 듯 살짝이 미소지어왔고, 아도라는 김빠진 사람처럼 눈썹을 실룩여보였다. 뭐야, 그 반응은. 너, 자칫하면 한 대 맞을 뻔했다고?

일단 레오니드가 개입한 지금의 상황이니, 더는 내가 아처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다. 슬쩍 뒤로 빠지며 마리에게 ‘왜 저렇게 레오니드를 무서워 해?’라고 소곤소곤 물어보았더니, 이내 마리가 내게 귓속말로

“레오니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제일 보기 싫어해. 신사답지 못하다고. 아마 그래서일 거야.”

라고, 속닥이며 답해왔다. 아하, 그런 거로군. 고마워요, 마리 웨건!

레오니드는 능글맞은 바람둥이 타입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는 뼛속부터 신사 체질이라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가 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게 ‘관심이 생겼다’고 말한 그 행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세상에는 아처 같은 쓰레기 녀석들이 판칠 게 아니라, 레오니드 같은 착한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건데 말이다.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의 상황을 지켜보자니, 돌아가는 꼬라지는 꽤 흥미진진했다.

“네가 정학 처분에 불만이 아주 많다는 사실은 루이스에게 잘 전해주도록 하지.”

“아니, 레오니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너까지 왜 그래? 우리 사이 괜찮았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

“괜찮았다는 건 어디까지나 네 기준이고. 너와 더는 할 말이 없다, 아처. 혹시 이번 경진 대회에 참여하려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몸 사리는 게 좋을 거야. 그마저도 출입 금지당하기 싫다면 말이야.”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나 루이스나, 저번부터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고작 천민 조수 나부랭이 좀 괴롭혔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괴롭혔다는 건 잘 자각하고 있나보군. 네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 헌터 가문의 후계자라고 소문이나 내줄까?”

“아니, 방금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

“앞으로 한 번만 더 타인을 괴롭히는 광경이 내 눈에 띈다면, 그 땐 정학만으로는 끝나지 않아. 전교 꼴등이라지만 이 정도 말쯤은 이해하겠지, 아처?”

레오니드는 서리가 내릴 듯 몹시 냉정하고 차디찬 목소리로 아처에게 말했다. 어우야, 성적 공격 오지구요. 그 영향을 받은 듯 녀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버리고, 이내 레오니드는 몸을 돌려 우리들에게로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 오는데.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 으응 아니, 네.”

와, 방금 전 그 목소리는 대체 어디로 갔니? 태세변환이 우디르 뺨치겠다.

“다 골랐으면 나갈까? 계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아샤.”

“어? 괘, 괜찮은데요. 저희가 낼 건데 엥?”

“나가자, 나가.”

“ 자, 잠깐만요! 어억!”

레오니드가 나의 양 어깨를 붙잡더니 내 몸을 반대로 돌려버렸다. 출입구 방향으로. 레오니드의 손에 의해 떠밀리듯 출입구 쪽으로 퇴장 당하던 내가 ‘계산 아직 안 했다구요!’라고 외치며 파닥거리자, 그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라고 답해왔다. 아니, 내가 한다고! 내가, 우리가 사는 물건이잖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또 빚을 져버리는 건 싫다. 기필코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레오니드의 손을 뿌리쳐보려는데, 옆에서 아도라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해왔다.

“지금 같이 나가지 않으면 보복당할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거든요.”

라고. 그 말을 들은 내가 레오니드의 손에 의해 잡화점을 퇴장당하기 직전, 뒤를 흘끔 돌아봤더니

“!”

아처가 나를 찢어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헉. 저건 진짜 부모를 죽인 원수라도 바라보는 눈빛인데? 순간 생각했다. 내가 아처의 부모님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적이 있나? 없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어느 누군가로부터 저런 눈빛까지 받아야하는 거지? 하고.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봐도, 역시 내가 잘못한 건 없었다. 시작은 모두 아처 저놈 자식이었지 않은가.

레오니드의 손에 이끌려 잡화점에서 빠져나온 후, 나와 마리, 아도라는 한동안 레오니드 패거리와 함께 걸었다. 잡화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아, 왜 패거리냐고? 그야, 레오니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패거리’라고 하면 아처 패거리처럼 뭔가 엄청 불량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무리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 꽤 선량한 학생모임 같달까? 이들은 레오니드를 포함해 총 네 명이었다.

오, 가만 보니 이거 마치 미팅이라도 하러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쪽 인원이 한 명 부족하네? 하하, 기다려. 지금이라도 내가 한 명 더 구해올 테니까. 정 안 구해지면 대학 정문을 지키고 있는 뱁새라도 데리고 오겠 !

“네가 아샤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 루이스에게 똑똑한 조수가 새로 들어왔다더라고.”

내가 뻘생각을 하는 틈에 레오니드 친구 중의 한 명이 내게 말을 건네어왔다. 응, 그래. 내가 바로 그 자자한 소문의 주인공인 아샤란다. 그런데 내가 똑똑하다고? 어라, 그건 좀

“똑똑하다니. 저한테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만. 누가 그런 거짓된 망발을 ?”

“하핫!? 얘 말하는 것 좀 봐. 레오니드, 되게 재밌는 애라더니 틀린 말이 아니네.”

“그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점이 매력이라니까.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인상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이런 여자애는 난생 처음 봤어.”

지금 이 얘기들은, 과연 나를 향한 칭찬인 것인가 아니면 돌려까기인 것인가. 이어지는 ‘생긴 것도 나름 귀엽고’ 라던가, ‘여자는 조금 튀어줘야 매력적이지’ 하는 대화들을 듣자니 또 칭찬 같고. 어라, 이거 기뻐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

“아샤.”

긴가민가하고 있자니, 내 옆에서 남들보다 다리가 짧은 편인지라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던 마리가 소곤소곤 귓속말을 건네 왔다. 응, 왜?

“레오니드 님, 역시 네게 관심이 있으신가 봐.”

“ 하, 하하.”

마리의 말에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글쎄다. 관심이라기 보단 ‘이리저리 튀는 탱탱볼 같은 여자애’정도로 생각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만.

뭐,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어쨌거나 둘 다 나름 긍정적인 의미지. 아처처럼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놈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 나는 마리의 말에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사실 이 미소에는 ‘응, 아니야’라는 속마음이 내포되어 있었지만, 마리는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얘는 레오니드가 내게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마리는 내가 류이와의 해프닝이 있었을 때에도 이랬었다. ‘류이 님, 혹시 네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면서.

후우, 마리. 그럴 리가 있겠니? 레오니드나 류이나, 전생에서로 치자면 영국 황태자와 삼송기업 외동아들 급이라 보면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알바인생 흙수저인 내게 관심을 보인다고? 그런 황당하고 개연성 없는 막장 스토리는 삼류 판타지 소설 속에서도 보기 힘들겠다, 얘. 이 세계에는 드라마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너는 어쩜 이리 상상력이 풍부하니? 신기할 정도야.

“그런데, 원단은 왜 사가는 거야?”

레오니드 친구들 중 공부를 잘할 것처럼 생긴 안경잡이가 내게 물어왔다. 말이 안경잡이지, 란 녀석과는 분위기부터가 틀렸다. 그 자식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 같다면, 눈앞의 안경잡이는 정말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온 사람 같았으니. 머리도 군인마냥 빡빡 밀다시피 했고, 안경은 눈이 안 좋아서 쓴 것 같다. 그래, 자고로 학생이라면 이래야지. 더벅머리에다 이상한 뺑글이 안경이나 쓰고 다니는 란 놈 같을 게 아니라 말이다.

“이번 대회에서 입을 옷을 만들어 보려구요.”

“옷? 아무 드레스나 사서 입으면 되지 않아? 왜 만들어?”

내 대답을 들은 레오니드가 호기심이 반짝거리는 눈빛을 내게로 돌려오며 묻기에, 나는 사실대로 말할지 조금 돌려 말할지 고민했다. 그래, 돌려 말하자!

“드레스들이 죄다 치렁치렁해서 말이에요. 춤출 때 방해되잖아요?”

“아아, 짧은 드레스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예?”

“적당히 짧은 길이의 드레스면 돼? 어떤 걸로 구해다 줄까? 원하는 디자인을 말해봐. 드레스를 맞추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아, 아니 괜찮아요. 절대로, 네버.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레오니드의 어머니께서 세계적 규모의 마법 재료 상단을 운영하고 있다 했던가? 말이 마법 재료지, 보통 그런 큰 규모의 상단들은 드레스며 보석, 기타 생필품 등 온갖 분야에도 손을 뻗친다. 한마디로 문어발 기업이라는 거. 내가 기억하는 전생에서의 각종 대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여러 분야에 손을 대듯이, 이 세계라고 해서 그런 점들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다.

레오니드는 아무래도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 입장이다 보니 저런 호의가 별다른 생각을 거치지도 않고 술술 튀어나오나본데 어, 음. 가뜩이나 나는 이백만 베른을 빚지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팔자인데, 여기서 더 빚을 늘려서 뭐하겠니? 신세지고 나면 괜히 마음만 찝찝하지. 물론 너처럼 가진 애들은 그런 걸 '신세'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지만.

나는 확고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어보였다. 레오니드가 ‘그래? 아쉽다.’라고 나직이 덧붙여왔다. 뭐지? 못 도와준 게 왜 아쉽다는 거지. 이상한 녀석이로군.

“시간 나면 언제 한 번 루이스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 괜찮지?”

그가 말해왔다. 오, 그건 괜찮겠는데.

“좋아요.”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저녁 먹자는 걸 보아하니 그 날엔 내가 저녁상을 차릴 필요가 없겠군. 그럼 나야 이득인 부분 아닌가? 그 날 하루는 저녁밥 안 차려도 되겠네. 야호! 주인님, 밥값 굳었다고요!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대회 준비로 바빠서 말이야.”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레오니드가 우리 무리와 헤어지려는 듯 저리 말하며 손을 살랑살랑 흔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이제 갈림길이었다. 왼쪽으로 가면 기숙사와 학생 서재가, 오른쪽으로 가면 상가가 나온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상가를 돌기로 예정되어있었으므로, 이쯤에서 그와 헤어지는 게 맞았으니.

마리와 아도라가 빠릿빠릿하게 먼저 인사했고, 다음은 나였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응. 아처가 또 괴롭히면 말해. 언제든 달려와 줄 테니까.”

“하하,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너도. 대회 때 보자.”

레오니드는 예쁘게 미소 지으며 저리 말하고는 왼쪽 길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가면서 그의 친구들이 뒤를 돌아보며

“안녕!”

“다음에 또 봐-.”

라고 인사해오기에, 나와 마리, 아도라들은 일심동체로 슬그머니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향해 흔들어주었다. 흔들흔들.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순수하고 착한 학생들이로구나, 쟤네는.

“학교에 저런 사람들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레오니드 무리가 멀어진 후, 마리가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아도라와 나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매우 깊이 공감되는 한마디였으므로.

아처 같은 놈들은 죄다 퇴학시켜버리고, 다음 해 입학시험부터는 인성 시험도 함께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학.

저기요. 듣고 계십니까? 황제 폐하! 지금의 이 대학은 뭔가 엄청 잘못됐다구요! 아처가! 아처 때문에! 그러니 부디 다음 해부터는 인성도 좀 보고 학생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

“저희도 대회 준비나 마저 하죠.”

“ 아? 그래. 우리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마법 대학의 앞날이나 걱정하고 있을 때인가? 당연히 아니다. 아도라의 말에 정신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비록 정학 당했다지만 그 녀석, 이번 대회에는 참가한다고 했던가? 좋아, 결투다!

부디 우리 주인님이 모든 부문에서 아처를 자근자근 짓밟아주시길 기도하며, 나는 다짐했다. 나 또한 피에르를 밟아주기로. 피에르가 딱히 내게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아처의 조수이지 않은가? 지면 무척이나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 방금 전 일을 계기로 하여 이번에야말로 나는 마음 속 깊이 다짐했다. 나의 모든 사활을 걸어서라도, 기필코 이번 대회의 우승자가 되고야 말겠다고.

지켜봐주세요, 주인님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조수인지를!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고? 예를 들어 우연스럽게 류이 황자를 딱! 하고 마주친다던가, 또는 주인님과의 므흣한 썸씽이라던가 하는 게 일어날 리가 없잖아? 아직도 속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미련한 중생이여! 나무아미타불. 내 인생에 그런 로맨스란 없다. 아처를 만나 해코지를 당했으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내게 일어날 리 없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춤 연습과 더불어, 우리 트리오가 부르게 될 노래와 춤출 곡을 악보로 만들어 대회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끝마쳤다. 전생에 피아노를 오래 배웠던 게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부모님이 보내서 억지로 다녔던 학원의 학습 효과를 다음 생에서나 보게 되다니, 이런 상황은 아마 우리 부모님도 예상치 못하셨을 거야, 음. 물론 전생의 부모님 말이다.

하여튼 대회 준비는 순조로웠다. 그리고 나와 주인님과의 사이도 순조로웠다.

그 말인즉슨, 특별한 일이란 1도 없다는 뜻이다.

“ 이건 대체 무슨 음식이야?”

루이스가 나무젓가락을 뜯다 말고 영 께름칙하다는 듯 내가 만든 음식을 내려다보며 물어왔다. 이것도 몰라? 이건 자그마치!

“짜장면.”

“자장명? 그게 뭐야.”

아, 이거 프란치아 제국민들에겐 발음이 좀 어렵겠구나. 어눌한 발음으로 따라하는 루이스에게, 나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다시금 말했다.

“짜장면이요, 짜.장.면. 제가 개발해봤어요, 어때요?”

사실은 개발이 아니라 전생의 음식을 표절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작곡해서 제출한 악보들도 죄다 표절이 아니던가? 쿡쿡 나란 인간, 프로표절러.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어. 게다가, 왜 일회용 젓가락이야? 멀쩡한 젓가락은 어쩌고?”

“나무젓가락은 안 멀쩡한가요, 뭐. 원래 이런 음식을 먹을 땐 일회용 젓가락을 써야 한다구요.”

"?"

루이스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살포시 찡그린다. 흥, 먹어보고 반하지나 말라구.

짜장면 옆에는 자그마치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컵이 놓여있었다. 컵 안의 액체는 물이냐고? 그런 평범한 걸 내가 담아놨을 리가 없잖아! 우리 특별한 루.이.스 주인님께서 드실 액체인데 말이다.

루이스가 물인 줄 알았나본지 유리컵을 들어 올리다 말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컵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섬짓하기라도 한 듯 몸을 살짝 떨었다. 그리고는 내게,

“이거, 저번에 그거잖아. 용의 숨을 넣은 ”

이라고, 불안한 듯 물어오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뭐?

“제가 개발한 음료수예요. 이름은 오이다라고 지었어요. 한 번 마셔나 봐요, 안 죽으니까.”

왜 오이다냐면, 전생에서는 사이다였으니 이번 생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차원에서 오이다라고 지었다. 맛은 한 단계 퇴화한 느낌이지만 말이다.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사이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걸.

“불안한데 ”

루이스가 영 꺼려하는 표정으로 유리컵을 든 채로 망설인다. 아니, 저런 답답이! 먹어도 안 죽는다 해도 저러네, 참.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내가 루이스를 빤히 응시하자, 그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유리컵을 입가로 갖다 댔다.

주인이 왜 노예의 눈치를 보냐고? 어, 그러게?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주종관계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었다. 루이스가 너무 착한 주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성격도 워낙에 괄괄한지라 아주 루이스를 단단히 휘어잡고 있는 요즘이었다. 노예 주제에 건방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루이스가 아무런 불만이 없는 눈치였기에, 따라서 이런 우리들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물론 그래서 로맨스도 없는 것이고. 따흐흑!

“ !”

루이스가 사이, 아니지. 오이다를 한 입 삼키더니 “!?”하는 표정으로 유리컵을 입가에서 떼며 안에 든 액체를 홀린 듯 응시했다. 오, 저 반응. 역시 나의 예상대로!

“맛있죠, 맛있죠!?”

“응. 용의 숨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다니, 신기해. 넌 이런 걸 어떻게 안 거야?”

루이스가 순수하게 감탄하며 내게 물어왔다. 나는 흐뭇-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답했다.

“제가 워낙 천재라서 말이에요. 후후, 나 같은 천재 조수를 두다니. 우리 주인님은 복도 참 많으시지.”

물론 환생의 천재 말야.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 루이스가 한심하다는 듯 눈을 게슴츠레 뜨고서 바라봐오는 시선 따윈 가뿐히 무시해버리고, 으쓱거리는 제스쳐를 해보이던 나는 이내 나무젓가락을 뜯었다.

자, 이제 식사해보실까?

“이건 먹어도 되는 음식이야? 냄새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점심이랍시고 차려놨겠니? 마치 아이클레이로 만든 음식 모형을 바라보기라도 하는 눈빛인 루이스를 향해 톡 쏘듯 말했다.

“맛도 괜찮거든요? 한 번 드셔보세요.”

“ 응, 한번 믿어볼게.”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인 짜장면을 눈앞에 두고서 루이스가 주저하다가 이내 젓가락을 면 안으로 푹 꽂아 넣었다.

그래, 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춘장이랑 비슷한 된장을 구하기 위해 자그마치 학교 바깥의 대형 식료품점을 돌고 오기까지 했었다. 왜 그랬냐고? 그야 짜장면이 먹고 싶었으니까.

이 세계에서 살다 보면 전생의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많다. 여긴 너무 느끼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인데, 전생과 비유하자면 기름지고 버터 듬뿍 떡칠한 미국 음식 같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요즘 들어 부쩍 김치가 그리워지는 나날이야.

“아샤.”

“네?”

짜장면을 호로록 흡입하고 있자니 우리의 주인님이 나를 불러왔다. 나는 그가 건네 오는 말에 웅얼거리듯 대답했다.

루이스는 무슨 말을 하려는데 목 위로 올라오지 않는 듯, 하라는 식사는 안 하고 어떤 말을 꺼내기 위해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뭐지? 한낱 노예인 내게 주인 된 이가 저리 꾸물거리며 말 못할 주제가 뭐가 있는 거지.

입에 든 것을 우물거리며 그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자니,

“이번 대회 마지막 날의 파티에서 말인데 ”

“녜.”

우물우물. 내가 만든 지금의 짜장면은 비록 맛은 있었지만 전생에서의 짜장면보다는 다소 시큼하고 니글거리는 맛이 강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구한 된장이 춘장과 완벽히 똑같은 맛은 아니다보니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맛인 덕분에 김치가 더욱 간절해져오고 있어.

아무래도 이제 곧 겨울이니 조만간 김장이라도 해야

“구구!”

“김치 어?”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웬 방해꾼이 등장했다.

갑작스럽게 새소리가 들려와, 화들짝 놀라버린 나는 그만 머릿속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 나가버렸다. 다행히도 내 ‘김치’라는 소리에 루이스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주저하며 무언가를 말할지 말지 망설이던 태도를 온데간데없이 지워버리고, 이내 그 새소리의 근원지로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뭐지, 나란 존재에게 해야 할 말을 금세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저 태도라니. 너무 쿨한데? 서글퍼지게 말이야.

“웬 전서구지?”

루이스가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다말고 그것을 내려놓고서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러고 보니 방금 났던 그 새소리는 창문 밖에서 어느 비둘기가 낸 소리였던 모양. 이런 시기에 무슨 일로 온 전서구일까? 가끔 날아오는 걸 보긴 했다만, 그럴 땐 대학 측에서 통지해준 수업 날짜 변경 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금은 대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모든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데. 대회에 관한 소식인가? 앗, 혹시 이거 갑작스런 취소 통보는 아닌지? 취소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처의 콧대를 제대로 짓밟아줄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

“뭐예요?”

부디 대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던가 하는 내용이 아니길 바라며, 젓가락을 짜장면 그릇 위에 내려놓고 마찬가지로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루이스의 옆에 슬그머니 따라붙으며 그가 비둘기의 다리에 묶여 있었던 편지를 꺼내어 열어보는 순간을 슬그머니 훔쳐보자니

응!? 겉에 적힌 글씨의 이름은, 다름 아닌 !

“류, 류이 황자 !?”

난데없는 그 인물, 바로 반듯한 검은 단발의 소유자인 예쁜 언니 ! 는 훼이크고, 여자보다 예쁘게 생겨먹은 오빠라던 이가 보낸 편지였다.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 2학년이라더라? 루이스와 란이 존댓말을 하기에 황자라는 신분이라 그런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 그냥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였다. 뜬금없는 반전.

그나저나 황자가 보낸 편지 아니랄까봐, 전서구에다 편지를 묶은 실조차 황금 실이야! 돈지랄도 저런 돈지랄이 따로 없구나- 하는 넋 나간 표정으로 비둘기가 거치적거린다는 듯 걷어차고 있는 그 실을 뚫어져라 쳐다보자니, 어느새 루이스는 주섬주섬 편지를 열어보고 있었다.

앗! 같이 봐요, 주인님아!

“뭐예요? 무슨 내용?”

내가 알기로 루이스는 내가 대형 사고를 치기 이전까지만 해도 류이와 단 세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다던데. 그런 관계인 둘 사이에 전서구까지 주고받을 일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의아함을 살짝 감춰두고서 넌지시 묻는 나의 말에, 루이스는 그 편지를 읽다 말고 슬그머니 내게로 넘겨왔다. 마치 읽어보라는 듯.

어, 나한테도 읽게 해주는 거야? 역시 우리 주인님은 착하다니까!

“아예 주실 것까진 없는데. 고마워요! 금방 읽어보고 돌려드릴 ”

“너한테 온 거야.”

“ 예?”

구, 구라지? 그거!?

류이가 내게 편지를 보낼 일은 뭐가 있는데? 단 세마디도 나눠보지 않은 루이스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보다도 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아니던가. 대체 일개 조수인 나한테 왜? 황자인 그가 무슨 일로? 어째서? Why!?

곰곰이 고민해보던 나는, 이내 충격과 공포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여태껏 내가 걸어온 행보와 대비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경우의 수이기도 했으니.

이, 이거 호 혹시! 사형 날짜 통보서는 아닐까!?

그래! 그런 게 아니고서야, 류이가 내게 편지를 보낼 일이 뭐가 있겠냐고!

“아앗 !”

눈을 질끈 감았다.

이 편지, 읽을 자신이 없어져버렸어. 어쩌지? 그냥 주인님께 읽어달라고 할까? 도저히 내 두 눈으로는 읽을 엄두가 안 난다. 내 사형 날짜가 적혔을 게 분명해. 그래. 그 때 그렇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이후에 자신의 조수가 되지 않겠냐는 그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나는 거절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선처를 베풀어주려 한 의도였을지도 모른다.

그와의 관계가 사형수와 사형집행자의 정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정도의 사이로 완화되었다고 느낀 것은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게다가 나는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 차버린 멍청한 사형수 그래, 그런 거야, 이건! 틀림없어!

“엉엉 주인님. 제 삶도 여기까지인가 보 ”

“뭐해? 안 읽고.”

“ 제 삶을 마감하게 될 날짜가 적혀있을 텐데, 어떻게 쉽게 볼 수 있겠어요. 주인님, 마음 아프니까 저를 대신해서 읽어 주시 ”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읽어.”

어느새 루이스는 먹던 점심을 마저 먹기 위해 태평스럽게 소파로 돌아가고 있었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눈을 번쩍 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뭔데? 그 남자가 나한테 편지를 보낼 일이 도대체 뭐가, 무엇이, 그 어떤 게 존재하느냔 말이다!

"?"

나는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금 돌돌 말려버린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서 훑어보았다.

「아샤, 당신의 사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제국력 185년 11월 5일 오후 13시 집행 예정이니, 옷은 간단하게 입고 그 날 하루는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

같은 내용은 척 보기에도 아니었다. 얼핏 보기에도 숫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데.

뭐지?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았다.

“안녕, 아샤. 대회 준비로 바빠 만나기가 힘들어 편지로 보내게 되었어. 미안해 응? 미안하다고? 아니, 황자씩이나 되는 사람이 뭐가!”

편지가 아니라 모스 부호로 전달해온대도 내 입장에선 영광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그마치 천민과 황자씩이나 되는 신분 차이인데 말이야!

첫줄부터 심상치 않다. 나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다름이 아니라, 너만 괜찮다면 이번 대회의 마지막 날에 있을 파티에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하 뭐라고!!!”

이게 웬 뜬금포 이벤트-!?

나는 말 그대로 펄쩍 뛰었다. 이거 거짓말이지? 응? 몰카지!? 어서 빨리 누가 튀어나와서 그런 거라고 해! ‘짜잔, 몰래카메라였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이경규 씨, 대체 어디 계신 거죠? 어디에 숨어있으신 거 !

“축하해.”

“말도 안! 에? 뭐라고요, 주인님?”

뒤에서 루이스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창가 쪽을 향해 서있던 몸을 옆으로 반쯤 돌렸다. 고개는 완전히 루이스에게로 돌린 채 ‘ ?’하는 표정을 짓고 있자니, 그는 다시금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해왔다.

“축하해, 그의 파트너가 된 걸.”

이라고.

축하할 일인가? 이게? 왜? 어째서!?

그 반대 아니야? 그와 파트너를 했다간, 나는 여자들의 테이저건 같은 눈빛에 쏘이다 못해 눈칫밥만 배터지게 먹고 결국은 체해서 죽어버리는 엔딩 절차를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과연 우리의 주인님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런 건가? 프린세스 메이커를 할 때 비극적인 엔딩을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변태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셨던 건가?

“이게 어딜 봐서 축하할 일이에요?”

“ ? 당연한 거잖아. 류 제국 황자의 곁은 이 대학 내에서 가장 귀한 자리야. 아무나 될 수 없어.”

“아니, 그렇기야 하겠지만 !”

누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라고 소리칠 뻔한 걸 꿀꺽 삼켜버렸다. 그렇게 루이스에게 따진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확실한 건, 루이스가 류이에게 ‘아샤를 파트너 삼아 달라’라고 요구한 적은 없을 것이며, 류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은 더더욱 아닐 것 같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그런 짓을 벌일 만큼 못되게 생겨먹지도,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인간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듯하고 예쁘게만 생겨먹었지. 만약 그가 나를 불경죄로 사형시킨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법도에 따라 행하는 일일 뿐인 거지, 못돼 처먹은 악역이라 ‘너 사형!’이러고 죽이려 드는 게 아닐 거란 얘기다.

그래. 류이가 그런 썩 괜찮은 남자인 거, 나도 알고는 있는 부분인데

“제, 제, 제가 타국 황자의 파트너가 된다고요? 저, 천민이고 노예인데요? 주인님, 미치셨죠?”

“그 말, 내가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해야 하는 말 같은데.”

루이스가 맛이 괜찮은 모양인지 모처럼 찡그리지 않은 표정으로 짜장면을 호로록 먹다말고 내게 받아쳐왔다. 헉, 맞는 말.

그렇다고 류이의 앞에서 ‘미치셨어요?’라고 씨부렸다간 내 모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그가 착하고 너그러운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시건방지고 불경스런 인물을 살려둘 만큼 속이 넓지는 않을 터.

이 제안을 나는 어찌해야 하지? 귀중한 편지를 두 손으로 고이 붙잡은 채, 나는 우두커니 선 자세로 고민했다.

받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주인님, 어떡할까요?”

루이스에게 물어보았다. 그래, 일단 내 주인은 루이스니까. 루이스가 하지 말라면 그 핑계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심 루이스가 ‘하지마, 내 조수면 맡은 일이나 잘하라고.’라는 대답을 해주길 바랐다. 그런 싹퉁바가지스런 대답을 할 인물은 아니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야 하다만, 그래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루이스의 뇌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증명해주듯, 그의 우아한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 대답은

“좋은 기회잖아. 한 번 해봐.”

였다.

“하여튼, 도움 안 되는 주인님!”

빼액! 고래 소리 지르는 나를 루이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봐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멘탈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를 중얼거리며 침몰해가는 과정을 한 치의 빠짐없이 느끼며, 머릿속이 새하얘져버리기 시작했음을 자각했다.

에라, 모르겠다! 춤 파트너라고? 그래. 류이의 발을 밟든, 휘청거리다 넘어져 못 볼꼴을 보이든 그게 어디 내 잘못이겠는가? 나를 파트너로 택한 류이의 잘못인 거지!

“몰라 몰라 다 몰라!”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며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지금이라도 대회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면 아니, 그냥 이대로 확 미쳐버리고 싶다. 귀 옆에 꽃이나 하나 꽂고 미친년인 척 할까? 아니면 확 아프다는 핑계로 기숙사에 틀어박혀버려?

내 머릿속에 지진이라도 난 듯 혼란스러워지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지금, 루이스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짜장면을 흡입하고 있었다.

그는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맛있네.”

라고.

그래, 맛있지? 우리 주인님.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하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더 좋지 않을까? 영원히 ‘맛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흐흑!

“그냥 확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

중얼. 모 드라마의 터무니없는 마지막 회 대사를 입 밖으로 내어 중얼거리자니, 루이스가 담담한 목소리로 내게 조언인 양 건네 오는 한 마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의 그 황당한 말이 씨가 되듯, 포기하지 않은 내게 무정한 시간은 몹시 빠르게도 흘러

시간이 멈춰 버렸, 아니. 어느덧 대회 당일이 되었다.

마법 대학의 외곽에는 축제를 기념하는 대학 로고가 그려진 깃발들이 줄지어 꽂혔으며, 대학 본관을 비롯한 모든 건물에는 마법의 힘으로 빛을 뿜어내는 조명들이 설치되었다.

학생들의 교실은 수업이 없는 관계로 문을 폐쇄했으며, 오로지 대연회장과 마법연무장, 조리실, 그리고 휴게실만이 개방되었다.

그리고 학생 기숙사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바로 고급 마차와 그것을 이끄는 말들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다그닥거리며 달려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와우!

“ 겁나 많네, 사람들.”

남은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버려, 오늘은 바야흐로 대회 첫날이었다. 자그마치 3일 동안 진행되는 큰 규모의 축제이니만큼 대학 외부나 타국에서도 손님들이 올 거라더니,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던 모양.

속속들이 도착하는 고풍스런 마차에서 내리는 인물들의 존귀하신 용안들을 구경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들은 생김새와 느낌이 하나같이 제각각이었다.

피부가 구릿빛인 서양인들도 보이고, 백옥인 양 새하얀 피부의 동양인들도 심심찮게 보이고. 어라, 북쪽 나라 사람도 있는 것 같은 응? 저건 뭐야. 한쪽 젖을 까고 있는 괴이한 복장을 한 남자도 마차에서 내렸다. 뭐, 뭐지. 저 사람은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데.

하나무라는 여기가 아니라 오버워치 속에 있다고요, 아저씨! 라고 외쳐주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저 젖을 깐 남자가 어떤 신분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만일 그랬다간 오히려 내가 시공간 속 가상의 오버워치 세계로 영원히 유배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막장 인생을 살고 싶진 않으니, 드넓은 오지랖은 이만 얌전히 접어두도록 하지.

“진짜 많네요.”

창문의 커튼을 도로 치며 루이스에게 말했다. 오늘 날씨는 좋아도 너무 좋은지라 햇빛 때문에 눈이 아릴 지경이다.

지금은 아침 9시. 마법 시약 제조 대회는 10시부터 시작이었다. 조수들의 대회는 이틀 뒤부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내 심장 녀석은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유는 아마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저 수많은 구경꾼 인파들 때문이라 보면 될 듯.

사실상 그들은 나 따위 일개 조수에겐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심장이라는 게 뇌의 명령대로 조종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저런 풍경을 봤다 해서 내 주제에 이렇게나 쓸데없이 바짝 긴장해있는 걸 보면 말이야.

들뜬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심호흡을 해보았다. 그러나 별 효과는 없었다. 침착해야 해, 아샤! 괜히 호들갑 떠는 꼬락서니를 보여 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응? 아, 왜냐고? 그건, 정작 오늘부터 대회에 참가하는 당사자인 루이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신경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긴장?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라고는 ‘그게 뭐죠?’하는 느낌으로 티끌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보기에 루이스는 정말 긴장이라는 감정 따위는 개나 줘버렸기에 저리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사실 저 인간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로봇이라던가, 뭐 그런 설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큰 대회를 앞둔 인간이 저렇게나 담담할 수가 있지? 이렇게 대박 사건 규모의 대회 출전을 앞두고서 말이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내가 고정관념 덩어리에 멍청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당사자인 루이스도 몰래 청심환을 사먹고 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저리 태평한 마당에, 오늘 당장 출전하지도 않는 내가 호들갑을 떨기엔 좀 쪽팔린 감이 있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흉내 내며 루이스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전신거울을 바라보며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있었다.

“이번엔 심사위원들을 외부에서도 들여왔다더라고.”

“에? 왜요!?”

화들짝 놀라며 루이스에게 되물으니, 그가 넥타이가 꽉 끼는 모양인지 손으로 살짝 풀어헤치면서 내게 고개를 돌려와 답했다. 헉, 그런 치명적인 포즈를 취하며 나를 바라봐오면 어쩌자는 거니! 당장 심장이라도 부여잡고 부정맥으로 쓰러져주길 바라는 것이야?

하여튼 간에, 정말이지 도움도 안 되고 눈치도 없는 저놈의 얼굴 같으니라고. 나설데 안 나설 데가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다.

“매번 대학 교수들만이 심사를 하니, 편파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항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구했대.”

“아, 헐.”

그렇다는 건, 조수들의 대회 심사에도 그 외부 심사위원들이 관여한다는 뜻이겠지?

그의 대답에, 나는 잠시 턱을 어루만지며 생각해보았다. 과연 내게 좋은 일인가, 그 반대인 것인가.

답은 하나였다. 어차피 내부 교수건, 외부 손님이건 간에 내 점수에 변동이 있을 리가 없다. 잘 받아도 내 운이오, 못 받아도 내 운일 뿐이야. 그래, 빽이라고는 아처의 개념만큼이나 없는 천민 아샤로서 생각해보자면 말이다.

“잘됐네요, 뭐. 공평하게 심사할 거 아녜요?”

“알아서들 하겠지.”

루이스는 지금의 주제에 별 관심도 없는 듯, 자고 일어날 때부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말끔하게 세팅되어있었던 머리카락―정작 그는 세팅의 ‘ㅅ’자도 한 적이 없지만―을 정돈하려는 듯 슬쩍 쓸어 넘긴다. 짧은 길이는 아니다 보니 거추장스러웠던 모양. 옆머리를 귀 뒤로 넘겨 꽂는 루이스를 바라보며, 나는 입을 헤벌렸다.

남성미 뿜뿜하는 남자 연예인이 CF속 한 장면처럼 무스를 바르는 광경도 아닌데, 뭐지? 머리카락을 넘기는 사소한 동작조차 어느 란제리 화보보다도 섹시하게 느껴지는 저 남자의 존재란 !

“ 뭘 그렇게 봐?”

“신기해서요. 주인님, 사람 아니죠?”

괜히 심술이 난다. 저 인간은 대체 어떤 걸 얼마나 먹고 자랐길래 세상 누구보다 잘나고 예쁘게 생긴 얼굴을 갖게 된 거지? 나한테도 좀 나눠주면 안 되나? 치사하게 왜 지 혼자만 다해먹냐고.

오리인 양 주둥이를 삐쭉 내밀고 그에게 시비를 걸어보자니, 루이스가 다시금 넥타이를 매만지다 말고 피식 웃었다.

방금 내 말이 웃겼냐! 진심으로 한 말이었는데. 너는 진짜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알고 보면 잘생긴 어느 신의 숨겨진 사생아라던가, 그런 설정이 숨겨져 있을 지도 모른다고. 알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며 소파에 앉아 멍청한 표정으로 루이스를 응시하고 있자니, 문득 지금 저 남자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상황파악이 됐다.

"?"

네, 넥타이를 못 묶고 있는 꼬락서니였다. 너, 공작가문 외동아들 맞냐?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거를 못해? 아니, 그리고 그냥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학생 유니폼의 넥타이는 뒤에 달린 줄만 잡아당기면 간편하게 맬 수 있는 구조였지만, 루이스가 지금 어찌 매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 저 넥타이는 학생 유니폼이 아니라 턱시도 넥타이였다. 왜, 길쭉한 비단 재질로만 된 넥타이 있잖은가.

대회 때는 외부 손님들의 눈을 생각해 깔쌈한 턱시도만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그가 모처럼 잘 들어가지도 않던 드레스 룸 안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이 바로 저 검은색 넥타이였다. 리본으로 된 보타이는 별로라서 싫다나, 뭐라나. 그나저나 저건 무슨 장례식장 패션인지? 보나마나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나왔을 게 분명해 보인다만.

알아서 잘 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울에 비친 루이스의 넥타이 상태를 슬쩍 훔쳐보자니 멀쩡한 꼴은 아니었다. 매는 흉내는 대충 낸 모양인데, 완성된 모습이 영 삐뚤빼뚤한 게 저 상태로 바깥에 나갔다간 ‘당신이 레플리카 가문의 후계자라고요? 넥타이도 그 모양으로 매놓고서!?’하는 황당함에 찬 목소리를 듣기 딱 좋을 듯.

어휴, 어쩔 수 없지. 다재다능한 조수 아샤, 출동이다!

“주인님, 딱 기다려 봐요!”

"?"

쌔앵! 날래게 몸을 움직여 루이스의 서재 안쪽에 위치한 기숙사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그의 성격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한 치의 빈틈없이 정돈된 깔끔하고 깨끗하면서도 귀족 치곤 소박한 루이스의 방 내부 인테리어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하늘색 이불이 구김 없이 펼쳐져 정리되어있는 침대였다.

저, 저기가 바로 우리 세젤멋 주인님이 누워서 잠들고 꿈을 꾸며 내일을 기약하는 이부자리인가 !

내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있던 변태 세포가 깨어나 ‘저기야! 저기가 바로 네가 뼈를 묻어야 할 곳이라고! 가서 뒹굴어!’를 외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는 덤덤히 그 침대를 지나쳐 안쪽의 드레스 룸으로 향했다. 내 변태 세포가 뇌에 이런 요구를 들이밀었던 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젠 이렇게 씹어버리는 게 아주 익숙해져서 말이야.

“왜?”

루이스가 기숙사 문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는다. 나는 그런 그에게 ‘잠시만요!’라고 외쳐 말한 뒤, 드레스 룸 안쪽에서 가장 적당해 보이는 넥타이를 집어 든 후 밖으로 빠져나와, 그에게 그것을 들어 올려 흔들어보였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너무 요란하지 않아?”

이게 대체 어딜 봐서? 내가 고른 것은 회색의 체크무늬가 있는 밤색 넥타이였다. 아니, 아무리 눈에 띄기 싫어하는 인간이라도 그렇지.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가 어디 말이나 되니? 누구 장례를 치르려고. 설마 나냐? 누구 맘대로!

“그냥 고분고분하게 제 말 들으세요, 주인님. 그런 넥타이 하고 나가셨다간 욕먹기 딱 좋아요.”

“ ? 왜 ”

루이스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래서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먼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들이 세상물정을 참 모른다니까. 깔깔 웃어주며 나는 그에게 툭 던지듯 대답했다.

“장례식장 왔냐고 욕한다고요.”

“ 아.”

루이스가 듣고 보니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 인간,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못하는 걸 보면 때때로 전교 1등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라, 이거 살짝 불안해지는데. 오늘 시약 제조 대회, 과연 괜찮을까? 세상물정 모르는 것과 마법 실력은 별개라지만, 그래도 루이스의 실력이 조금 미심쩍어지는 순간.

“주인님. 못해도 아처 헌터만큼은 꼭 이겨주세요.”

“응.”

스리슬쩍 건네본 말에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답해왔다.

좋아, 그 대답 아주 마음에 들었어.

나는 서재에 위치한 전신거울 앞으로 루이스와 함께 걸어가, 그의 셔츠 목에 걸린 검은색 넥타이를 빼내고 소파 쪽으로 휙 던져버린 후 내가 골라온 밤색 넥타이를 묶어주기 시작했다.

하이얀 셔츠를 입은 잘생긴 주인님과 그런 주인님의 목에 넥타이를 매주고 있는 노예 사이에 벌어지는 음란하고 므흣한 일 ! 같은 건 절대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주인님은 그런 분야 쪽으로는 담백하기가 아주 세계서열 0위 수준이었으니.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예, 바로 나. 그렇기에 마음을 비우고 본분이나 다하려 고사리 같은 손길로 넥타이를 매주려고 했는데,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 인간, 키가 뭐 이렇게 커!

내가 난쟁이 똥자루인 건지, 눈앞의 이 남자가 해그리드인 건지. 울컥 치솟는 난쟁이의 울분과 짜증을 억누르며 까치발을 들려는데, 얌전히 넥타이를 묶어주는 대로 가만히 서있던 루이스가 시선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려왔다.

하필이면 내가 고개를 딱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기에 동시에 눈이 마주쳐버려, 나는 그의 푸른 눈동자를 불과 30cm쯤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는데.

“!”

지, 진정해 미친 심장아! 루이스는 내게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는 인물이라고! 녀석의 얼굴이 아무리 북한의 아기돼지가 만든 핵무기 급이라지만 주제도 모르고 반해서는 안 된다.

이 세계에 태어난 후로부터 천민으로서의 행동강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켜온 나였기에, 미쳐 날뛰는 변태 세포 녀석을 내 뇌가 뛰어난 무에타이 실력으로 제압했다. 간만에 도움이 됐어, 마이 뇌.

훌륭한 나의 절제능력에 내심 감탄하며 뿌듯한 표정을 짓자니, 루이스가 대뜸 내 양 어깨를 붙잡아왔다.

허, 헉. 뭐야! 잠시 우쭐거리고 있었던 뇌가 다급히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하고, 변태 세포들이 환호의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 !”

루이스가 나를 뒤로 돌아보게끔 홱 돌렸다. 그리고는 양 어깨를 붙잡은 채 나를 천천히 앞으로 미는데. 그는 나를 테이블과 소파가 있는 쪽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뭐야, 지금 이건 대체 무슨 상황!? ‘혹시 소파 플레이인가요!’를 외치며 꺅꺅거리는 미친 변태 세포들에게서 살인충동, 아니지. 살세포충동을 느끼고 있는 지금, 루이스는 나를 소파 앞까지 데려갔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놓으며 자신이 천천히 소파에 털썩 앉았다. 뭐지, 이건. 다리가 아팠던 거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루이스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자니, 그가 넥타이를 가리켰다.

아!

“와, 이거 배려해주신 거예요? 제 키가 작아서?”

“힘들어 보여서.”

“친절도 하셔라.”

배시시 웃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주인님은 참 무신경하고 공부밖에는 모르는 것 같다 싶다가도, 은근히 배려심 쩌는 기특한 면모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지.

하긴, 아처에게 갈비뼈를 폭행당했을 때에도 나를 구해주었던 주인님이 아닌가. 게다가 아처에게 폭풍 정학을 날리는 초 간지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루이스를 마냥 ‘공부벌레’라고만 생각했던 내 뇌에게 나는 충고했다. ‘지금부터는 그냥 공부벌레가 아니라 잘생기고 친절한 공부벌레로 정정해!’라고.

그렇게, 내게 있어 잘생겼는데 친절하기까지 한 공부벌레 주인님이 된 루이스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나는 서서 넥타이를 매주다 말고, 그의 기다랗고 예쁜 황금색 속눈썹을 가만히 응시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넥타이 묶어주는데 눈은 왜 감니?

“주인님, 제가 뽀뽀라도 해주길 바라세요?”

“아니, 졸려서 ”

내 황당한 발언에 어이없다는 듯 대답하며 가느다랗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루이스. 그는 정말 졸린 표정이었다.

무안해진 나는, 넥타이를 다 맨 후 슬그머니 아까 전 소파에 던져두었던 검은색 넥타이를 집어 들어 루이스의 눈에 둘러주었다.

루이스가 더 황당하다는 듯 그것을 풀더니 저 멀리로 홱 던져버렸다. 아앗, 뻘쭘해라.

“이제 가자.”

소파에서 일어선 루이스가 전신거울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옷매무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확인해본다. 그리고는 내게 가자며 말해온다. 일순간 나는 생각했다 음, 자기 넥타이도 혼자 못 매는 녀석이 저런 건 꼼꼼하게도 보는군.

만일 그가 평범한 남성이었더라면 아마 지금 저 전신거울을 바라보며 ‘나란 남자 훗, 너무 잘생겼어!’라고 머릿속에서 자화자찬함과 동시에 입가에는 슬그머니 속 보이는 미소를 띠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내게 그런 재미있는 구경을 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무려 루이스는 ‘평범한 남성’이 아니었던 것!

시시하게도, 내게 아무런 구경거리도 선사해주지 않고 준비를 끝마친 루이스가 내게 가자는 눈짓을 보내왔다. 나는 그런 그를 총총거리며 따라 나섰다. 언젠가 소설 속 남주마냥 완벽하기만 한 이 남자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리라, 라고 다짐하며. 나만 뻘쭘한 상황을 겪으면 좀 억울하잖아.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할까? 차라리 루이스가 알고 보니 인간이 아니라 요정이었다던가, 뭐 그런 전개가 더 신빙성 있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쳐다봐?”

나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온몸으로 느낀 듯, 기숙사 복도를 걸어가다 말고 루이스가 소름끼친다는 표정으로 옆을 돌아봐왔다 응? 왜 그런 표정이야, 너.

“아, 잘생기셔서요.”

나는 그런 그에게 기분전환이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칭찬조로 대답했는데, 이 남자는 영 께름칙하다는 느낌으로 눈썹을 살포시 찡그리더니, 이내 내게 말해왔다.

“입맞춤이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알아봐.”

라는 응? 뭐, 뭐라고!

“오해거든요, 그거!”

나는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누군 하고 싶은 줄 알아!?

“하여튼,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건지 어쩐 건지 ”

중얼중얼, 투덜투덜. 우리의 잘난 주인님에게는 분명 왕자병이 없을 거라고 믿었건만. 아까 전의 그 황당한 한마디의 발언 때문에 나는 오리에 빙의해버렸다.

물론 저 인간이 보는 인간이 미쳐버릴 만큼 뇌쇄적으로 생긴 남자인 건 확실하다만, 그렇다고 아까같이 말할 필요는 있었느냔 말이다. 엉? 입맞춤이라니. 입맞춤이라니! 내 입술을 뭘로 보고. 아무리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나라지만, 아무 남자에게나 함부로 들이대진 않아.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불쾌하다고, 흥!

‘나 삐졌다고요!’를 어필하기 위해 주둥이를 삐쭉 내민 채로 루이스를 뒤를 따라갔지만, 눈치라는 걸 기숙사에 놔두고 온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모를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쳇.

덕분에 오래 걸리지 않아 본관 건물 내부까지 도착했다. 꽤 이른 시간이건만 벌써부터 외부 손님들과 학생 및 조수들로 북적거리는 풍경인데 그중에는 아처도 있었으니. 그를 발견한 나는 재빨리 고개를 옆으로 홱 돌려버렸다. 모르는 척하자, 모르는 척!

다행히도 아처는 나를 보지 못한 듯, 별다른 마찰 없이 루이스를 따라 무사히 시약 제조 대회장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신이시여, 간만에 도와주시는군요.

“헐 ! 대박 넓다.”

커다란 대회장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곧바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 대학에 들어온 이후로 이곳은 처음 들어와 보는데. 게다가 꾸미는 건 어찌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벌어진 턱이 제자리를 되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정도.

이곳 대회장은 뭐랄까 드넓은 강당 느낌이긴 한데, 전생에서의 학교 강당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쫘악 깔려있었고, 저 위의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까지 수십 개가 걸려 있는 흡사 파티장스러운 장소였으니. 게다가 속속들이 대회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학생들의 복장들은 하나같이 턱시도 차림이었기에 더욱이 연회장 느낌을 물씬 풍겼다. 뭐, 다들 파트너가 없다는 점만 빼면 말이야.

중앙에는 대회를 위한 테이블이 마치 시험장처럼 줄지어 세팅되어있었다. 그 테이블마저 금테로 장식된 우아하기 그지없는 귀족용 테이블이었으니. 하여튼 이 대학의 학비가 비싼 데엔 이유가 있다니까.

그 비싸 보이는 테이블들에는 정면과 양옆으로 투명 칸막이도 쳐져 있었다. 저건 아무래도 컨닝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음,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른다.

참 안됐네, 아처. 전교 꼴등인 실력이라면 컨닝이라도 해야 할 텐데 말이야. 많이 아쉽겠어.

근데 왜 칸막이가 투명한 거지? 저러면 다 보이는 거 아닌가? 어라, 이거 의아해지네.

“아, 레플리카 가의 영랑 아니십니까!”

휘황찬란하면서도 기이한 대회장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자니, 내 옆에 서있던 주인님이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없었다. 근데 갑작스레 옆에서 웬 목청 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싶어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버거스 후작.”

“저야 물론이지요! 영랑께서는 대학 생활에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십니까? 아, 그러고 보니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일은 잘 해결되셨는지요?”

“해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어느 배불뚝이 아저씨 후작에게 붙잡혀 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 저기, 난 안 괜찮은데?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인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 바보 주인님아. 당신보단 내 의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안 그래?

별로 흥미롭지 않은 주제로 떠드는 이들의 대화를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 있자니, 내 눈에 흥미로운 것이 들어왔다.

아앗! 저것은 만화 속에서만 봤던 바로 그!

“아, 감사.”

연회장도 아닌데 지나가던 웨이터가 쟁반에 샴페인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닌가. 와, 이런 거 실제로 처음 봐. 신기하기도 하고 샴페인이 탐이 나기도 하여 냉큼 따라가 하나를 집어 들었더니, 웨이터가 ‘뭐지? 이 사람?’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온다. 왜, 조수는 이런 거 한잔 하면 안 되니?

조수들은 대회 3일차 전까지는 유니폼을 입고 오라는 규정이 있었기에 대회장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는 유니폼 차림의 조수들은 무수히 많았다. 그런 고로, 내가 귀족가의 조수인지 천민 조수인지는 이 웨이터도 모를 거란 말씀.

지금 내가 조수라고 해서 이런 것도 못 마시게 하는 거냐! 라는 눈빛을 쏘아 보내 줄랬더니, 이내 그 웨이터는 사뿐히 나를 무시해버리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기다랗게 일자로 마련되어 있는 귀빈용 테이블, 그리고 위의 디저트들을 집어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 귀족 영애와 영랑들에게로 가버렸다.

저들은 이곳 학생이 아니라 외부 손님 같은데. 그와 그녀들이 수다를 떨면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웨이터가 들고 있는 쟁반 위의 샴페인 잔을 집어 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내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내려다보았다. 이내 그 귀족 영애들 중 어떤 키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샴페인을 우아하게 홀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나 또한 샴페인 잔을 입가에 갖다 대어 홀짝여보았다.

구웨엑, 맛없어.

“이딴 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내 입맛이 유치원생 입맛인 건지는 몰라도 진짜 더럽게 맛없다. 와인이 아니라 샴페인이면 나름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에이드 같은 맛을 기대했는데 비슷하긴 해도 더 쓰디쓴 에이드의 느낌이었다.

나직이 불평하며 이 샴페인을 어찌 처분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나로부터 약 10m는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한 루이스 쪽을 흘끔 보았더니, 버거스 후작이란 자는 용건이 끝난 모양인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대신 날파리들만이 잔뜩 꼬여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오호라? 가까이 가보자.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채로 촐랑거리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좀 신난 것 같다고? 취한 거 아니냐고? 에이, 설마. 이거 조금 먹는다고 취하겠어?

“루이스! 이번 파티 때, 같이 춤 출 파트너는 정했어?”

“루이스, 나랑 파트너 할 생각 없어?”

“저기 말야, 루이스. 파트너 ”

“파트너 ”

“파트 ”

돌림노래인가?

날파리들은 하나 같이 녹음이라도 한 듯, 죄다 똑같은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똑같은 말들을 떠들어대고 있었다. 치렁치렁하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드레스들을 차려입은 복색들을 보아하니 대학의 학생인 것 같은데.

내가 보고 있는 눈앞의 풍경이 과연 현실인가? 무슨 소설 속 남주에게나 생겨날 법한 일이 아닌가, 저런 풍경은. 저런 하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루이스를 위해 내가 친히 소설 한 편을 써주자면, 이렇다.

[귀족 중에서도 최강의 귀족 루이스가 울부짓었따

루이스는 졸라멋잇써서 학생들중에서 최강이엇따

황족이나 왕족도 이겼따 다덤벼도 얼굴로 발랐따

루이스는 세상에서 하나였다 어쨌든 걔는 인기포풍이엇따]

“ 음, 좋군.”

끄덕끄덕. 크, 이 정도면 명작.

긍지 높고, 콧대 높고, 자존심까지 센 귀족가의 영애들이 저리 구애하는 광경이란 아마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어 관 속에 누운 뒤 뚜껑에 못이 박힐 때까지도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새삼 대단해. 루이스의 매력은 대체 뭘까? 대체 그의 어떤 점이, 저 대단하신 영애들을 저런 날파리 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그래. 그냥 얼굴이 졸라 잘생겼으니까 그런 거겠지.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었군. 세계 최강 투명루이스 같으니라고.

“흠 ?”

이제 슬슬 10시가 다 되어 가는 듯해, 시약 제조 대회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대회장 앞쪽의 무대 비슷한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곧 대회를 개최하려는 듯 분주히 대학 관계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리 갔다리하며 열심히 자리를 세팅하고 있었다. 뒷배경을 장식하는 휘장과 양 옆으로 줄지어 세운 깃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 푹신하고 비쌀 것 같은 소파를 중앙에 다섯 개나 나란히 놓기에, 저건 대체 어디다 쓰려는 것일지도 궁금해 유심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소파에 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대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며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으려니까, 머지않아 5분 뒤에 10시 정각이 되었다.

그리고 대회의 개최식을 위해 사회자로 추정되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자 대학 교수인 이가 무대 위로 올라설 때, 나는 누군가의 어떠한 외침으로 인해 소파들의 쓰임새를 알게 되었다.

“황제 폐하 드십니다-!”

뭐, 뭐라고!? 황제? 황제가 여길 왜 와!

화들짝 놀라는 바람에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만약 여기서 잔을 떨어뜨려 ‘깨장창!’하는 소리를 냈다간 불경죄로 끌려가 처형당할지도 몰라! 목숨이 걸린 샴페인 잔이었기에 필사적으로 붙잡는 데에 성공했다. 휴우.

지금만큼은 농담으로 처형이니 사형이니 떠드는 게 아니었다. 이곳에 온 저 인물이 진짜 황제라면, 그 어떤 사소한 실수도 이 공간에서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나는 진짜로 황제가 이곳에 왔다는 건가 싶어 두 눈을 부릅뜨고 무대 쪽의 대회장 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정말로 !

“드시지요, 폐하.”

“음.”

얼굴에 ‘나 황제요’를 써붙여 놓은 듯한 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짐짓 근엄한 표정을 한 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것도 머리에는 왕관까지 장착한 모습인데 !

저기,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온몸으로 홍보하지 않으셔도 댁이 황제인 건 프란치아 제국민들은 물론이고 저 바다 건너 류국의 시골 동네 강가에 사는 도롱뇽도 알아보겠는데요!

“폐하, 이쪽으로.”

“폐하, 그동안 강녕하셨습니까.”

“그렇다오. 파르페 경은?”

“저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은 황제는 철갑옷으로 완전무장을 한 기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꽤 친분이 있어 보이는 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곳 대회장으로 입장하고 있었다. 이야, 세상 요란하기도 하지.

그런데 왜 벌써 온 걸까? 대학을 지은 인물이라서 참석한 걸까? 만약 참석한다 해도 제일 재미있는 대회라던 마법 경합은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판단 미스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다른 고위 귀족들도 시약 제조라는 다소 따분할 수 있는 대회에도 바글바글할만큼 참석한 걸 보면 흠. 재미를 떠나서, 어쩌면 그냥 사교를 위해 이곳에 오는 게 아닐지.

내가 떠올린 생각이지만 꽤 그럴싸하다. 하긴, 이런 사교의 장에 귀족들이 빠져서야 되겠어? 아무렴 빠지는 것보단 참석하는 편이 친분 쌓는 데에는 더 도움이 되겠지.

“뭐해?”

옆에서 누가 대뜸 말을 걸어오기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익숙한 목소리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퇴치하고 오셨어요? 주인님.”

“퇴치라니.”

그였다. 내 말을 들은 루이스가 단어 선택이 미묘하다는 듯 애매한 표정을 짓기에, 나는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방금 것은 너무 건방져 보일 법했다고 생각해 다급히 ‘앗, 방금 건!’이라고 수습하려 했는데

“적당한 표현이군.”

라고 말하며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인다. 뭐냐고, 그 한 발 늦은 반응은! 감탄할 거면 좀 더 빨리 감탄하던가, 사람 심장 쫄리게 말이야.

“웬 샴페인이지?”

“아, 이거요?”

살짝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자니 루이스가 물어왔다. 나는 돌아다니며 샴페인을 나눠주다 말고, 황제가 입장함으로 인해 경건한 느낌으로 무대 방향을 깍듯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어느 웨이터를 가리켰다. 저 남자가 줬어.

“그렇군. 술은 몸에 좋지 않으니 적당히 하도록 해.”

“ 아, 네.”

방금 그 말, 담배를 달고 산다던 어느 예쁘장한 꼴초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였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마침 내 시야에 배정된 테이블로 이동 중인 이제는 꽤 낯익은 얼굴의 두 명이 들어왔다.

바로 그 꼴초와 란이었으니. 본인의 테이블을 찾아가 그 앞에 서는 그들의 뒤통수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자니, 깨닫게 된 것 한 가지. 둘의 자리는 고작 옆으로 두 칸 차이였다. 뭐, 가까워봤자 둘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니 딱히 소통할 일은 없겠지만.

다른 학생들도 곧 안내에 따라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테이블을 찾아가 그 앞에 섰을 때, 무대 위에서 대회 개최를 알리는 식이 시작됐다.

그제야 내 눈에 들어온 어느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의 와이프로 추정되는 아니지. 그냥 황후라고 하면 되잖아? 황후로 추정되는 여성과 두 명의 남자, 또 한 명의 여자가 나란히 황제의 뒤를 이어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식의 시작을 알리기에 앞서, 무대 위에 마련되어있는 다섯 개의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물론 중앙의 두 자리는 황제와 황후가 나란히 앉았고, 왼쪽의 두 자리는 꽤 장성한 황태자와 황자, 오른쪽의 한자리에는 황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앉았다. 황태자는 나이가 스물 중반은 될 것 같고, 나머지 둘은 내 또래에서 조금 더 많은 나이일 듯.

프란치아 황가의 구성인원은 다섯 명이었구나. 하도 관심이 없어서 잊고 살았었다.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해. 천하디천한 천민 신분의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 황실 사람들을 두 눈으로 이렇게나 가까이서 보게 되다니. 새삼 신기하다. 원래대로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 경우가 아닌가.

아마 저 황실 사람들은 모르겠지? 지금 이 눈부시기만 한 자리에, 저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존재인 천민이 섞여있는 줄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자니, 아무도 내게 칼을 겨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순 모가지에 서늘한 날붙이가 다가온 것만 같은 오싹함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이런 존엄한 자리에 감히 천민 따위가!’라는 대사를 외치며 나를 이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릴 것만 같은 상상이 들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럼, 제 26회 프란치아 황립 마법 대학의 대회 개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싹함을 묻어두려 샴페인을 홀짝이면서 정면 무대만을 빤히 응시했다. 그러는 통에,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접근해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또, 나를 보호해줄 인물인 루이스가 대회 참가를 위해 자신에게 배정된 테이블로 이동해버리고 없다는 사실도.

옆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리기에 고개를 돌렸다. 아, 이 때 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보잘 것 없는 천민 나부랭이에겐 너무 버거운 장소지?”

킥, 하고 웃으며 놈이 내게 말해왔다. 그것도 거의 귓속말 수준으로 내게 씨부리는 바람에, 나는 갑작스레 느껴진 그의 소름 돋는 숨결에 부르르 몸을 떨어야만 했다. 으악! 내 귀 썩는다, 썩어.

“뭐라고요?”

내가 상체를 그의 반대쪽으로 기울이며 인상을 찡그리고 되묻자, 그 놈, 아처는 내게 기울였던 몸을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리며 썩소를 지어왔다. 와, 못생긴 게 저런 표정까지 지으니까 더 못생겨 보이네.

“주제파악 좀 잘하고, 꺼질 수 있을 때 꺼지라고. 목숨이 아깝다면 말이야.”

놈이 내게 싸가지라곤 오늘 아침에 스프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듯한 한마디를 건네 오기에, 나는 대답을 툭 던졌다.

“싫은데요?”

내 대답에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리는 아처. 이내 녀석이 ‘두고 보자, 너?’라는 말을 씹듯이 뱉어내더니만 배정된 테이블을 찾아가려는 듯 내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쌩하니 앞으로 튀어나가 버렸다. 저, 저. 정장 바지 주머니에 손 꽂고 걷는 것 좀 보소. 안 쪽팔리나? 허세가 뇌를 지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망가 버린 아처 덕분에, 대회장의 뒤쪽이자 조수들이 모여 서서 자기 주인을 응원하고 있는 이곳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인 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더불어 내 분노도 함께.

저 웬수 같은 놈. 아주 시비 거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일상이지?

“하여튼, 저 골 때리는 자식.”

인상을 팍 찡그리며 남은 샴페인을 원샷해 버렸다. 크! 에이드보다는 쓰고 와인보다는 약하지만 나름 술은 술이라는 건지, 톡톡 쏘고 시큼한 게 마시는 맛이 있구만. 열 받는 일을 겪어서 그런가, 지금만큼은 마치 샴페인이 에이드라도 되는 양 달달하다. 이런 게 바로 술맛인가.

에라이, 망할 자식! 나는 샴페인 잔을 든 채로 대회장 중앙에 걸어 들어가는 아처를 향해 주먹감자를 날려보였다. 어차피 이 세계에서는 주먹감자의 의미 따위는 모르니까, 누가 본다 해도 알 게 뭐야?

주먹감자 포즈에서 슬그머니 중지도 치켜세워주려는데, 문득 이번에는 내 옆에 다른 인물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 헉!”

“안녕하십니까.”

그, 그

아처의 조수인, 피에르라는 남자가 서있었다. 모, 못 들었겠지?

“바, 방금 제가 한 말 들으셨어요?”

넌지시 물어보았다. 피에르라는 남자는 무표정으로 내게 대답해왔다.

“저희 도련님을 때리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거든요!?”

어떻게 오해를 해도 더 위험한 쪽으로 오해하는 건데!?

제자리에서 날듯이 펄쩍 뛰며 부정하는 나를 바라보던 피에르라는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다.

‘역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군 ’ 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지 주인 닮은 놈을 봤나!

“때리고 싶다가 아니라, 골 때린다고요. 골 때린다는 말, 몰라요?”

“아.”

내가 억울하다는 듯 반 소리치듯이 하는 말에, 피에르가 눈을 동그랗게 떠온다. 그리고는 내게,

“저희 도련님이 골 때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오는데 그래, 그거야! 딩동댕, 정답입니다!

“바로 그거 ! 어? 마, 맞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막 그분을 비방하려던 의도가 아니라 ”

“그럼 무슨 의도입니까?”

“그, 그게 ”

이쯤에서 시전하는 시선회피 스킬. 이제 보니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잘못 들은 거였나 보다. 이제는 너무 찰떡같이 알아들어버리는 그로 인해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자, 나는 시선을 슬그머니 옆으로 돌려버리며 콧노래 부르는 척을 했다.

흐흥흥 개, 개최식 구경이나 할까나?

“그럼, 대회 시작에 앞서 황제폐하께서 대학의 학생 여러분께 ”

무대 측은 사회자가 주절거리며 떠드느라 바빴다. 아앗, 현기증이! 전생에서부터 있었던 ‘교장선생님 연설 기피증’이 하필이면 이런 때에 발동해버리다니. 저 무대에 으리으리한 소파 다섯 개를 차지하고서 수많은 기사들을 거느린 채 이곳에 와있는 저 인물들은 분명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아니라 자그마치 이 프란치아 대제국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지금의 내게 그런 사실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눈앞에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으면, 마치 꿈속인 것처럼만 느껴져서 뇌가 더 무감각해져버리는 증상도 있나 보다. 나는 ‘저 인간들이 진짜 황족이라고 ?’ 하는 눈빛으로 무대를 쳐다보았다. 전생대로 치자면 저들이 대통령 가족 정도 되는 거고, 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쯤인 게 아닐까. 상식적으로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듯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일어날 리 없어야 정상인데, 이 세계에서는 덜컥 이뤄져버렸네? 그것도 난 여전히 천민인 신분인 채로 말이다.

하여튼 이 세계는 정상이 아니라니까. 물론 나도 정상은 아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자니, 옆에서 누군가가 내게 동의한다는 듯 한마디를 건네 왔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쵸? 아무리 봐도 이 세계는 제정신이 아니 예? 잠깐, 뭐라고요?”

너, 안 갔었니?

나는 분명 쌩까려고 시선을 회피한 것이었건만, 이 피에르라는 녀석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여전히 내 옆에 덩그러니 서있었다. 그것도 나를 향해 ‘동감합니다’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뭐 뭘 동감한다는 건데? 설마 이 녀석이 내 머릿속을 읽었을 리는 없고. 그렇게 맥락 없이 말하면 듣는 사람더러 어쩌란 거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데, 엉!

내가 무대를 바라보며 황제 일가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남자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었는지 빠르게 떠올려 내보았다. 그것은,

어?

“아, 아처가, 아니. 아처 님이 골 때린다는 말에 동감한다고요!?”

‘님’이라는 한 글자조차 아까운 그 못돼 처먹은 자식의 조수인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진심이야, 그거?

“예. 제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 그, 그, 그렇게 말해도 돼요? 다, 당신은 아처 조수잖아요.”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라, 괜찮습니다.”

“!?”

뭐지, 이 녀석. 대체 뭐하는 인물이지? 너무나도 솔직하고 담대한 대답에 나는 입을 딱 벌렸다. 아처는 피에르를 잘난 조수라고 그렇게나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남이랑 비교하고 다니던데, 정작 그 조수는 제 주인을 까는 모습이라.

솔직히 웃겼다. 풋! 하고 웃어버리는 나로 인해, 피에르가 무대 쪽을 바라보다 말고 나를 흘끔 쳐다봐왔다. 눈이 마주치자, 나는 물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거?”

“물론입니다. 저분이 하고 다니는 행실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 지금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일러바치려는 건 아니죠? ‘그 아샤라는 기집애가 주인님 뒷담을 깠습니다!’하면서.”

“그럴 일 없습니다. 제 가문을 걸고 맹세하죠.”

피에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질색이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진짜 아처가 끔찍이도 싫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는 속마음을 대변하는 표정이었다. 믿지 않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그의 표정에,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푸흐흡 !”

간만에 속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내심 기쁘기도 하면서, 저 멍청한 아처 녀석이 뒤에서는 자신의 조수에게 뒷담이나 까이는 신세라는 점이 몹시 우스워 한참을 배를 잡고 웃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기에, 조용히 웃느라 진짜 힘들었어.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위험한 인물처럼 음험한 느낌으로 끅끅거리며 웃던 나는, 웃음이 멎어갈 때쯤 고개를 들어 피에르에게 물었다.

“또 뭐 없어요? 웃긴 거.”

그러자, 피에르는 많고 많은 게 그 인간의 에피소드라는 듯 곧바로 답해왔다.

“아처 님께서는 주무실 때 침을 많이 흘리십니다. 베개가 흥건한 날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본인은 잘 모르십니다. 가끔 가다 알게 되는 날에는 짜증을 내며 저한테 침 뭍은 베개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 ”

“아, 당신이 왜 아처를 싫어하는지 알겠네요 ”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개최식을 하는 동안 피에르와 이런저런 아처에 대한 뒷담화를 까고 있었을까, 뒤에서 조수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마리, 아도라!”

그녀들이 눈에 들어왔다. 꽤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개최식이었던지라 큰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기에, 작은 목소리로 외치듯 부르자 그녀들이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이쪽을 쳐다봐왔다.

“아샤!”

그리고 동시에 내 이름을 외치며 내 근처로 다가와 붙는 둘. 단짝 친구들 같은 느낌이라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랄까, 이번 대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셋은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드디어 동성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랄까?

이곳에서는 원래 친구가 없었던 마리와 아도라이기에 그녀들 또한 나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내가 방긋 웃으며 그녀들에게 인사하자, 그녀들도 내게 ‘잘 주무셨습니까?’라던가 ‘아침은 든든히 먹었어?’하는 둥의 인사를 건네 왔다. 암만, 나야 물론 잘 자고 잘 먹었지. 아주 돼지처럼 말이야.

“그런데, 옆에는 누구? 왠지 낯이 익은데.”

마리가 내게 물어왔다 응? 뭐야, 얘! 아직도 안 갔어?

고개를 뒤로 돌리자 피에르의 녹색 눈동자를 딱 마주쳤다. 그러고 보니 얘도 녹색 눈동자구나. 어쩐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더라니. 눈동자색이 잘 통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사, 상관있다. 내가 있다면 있는 거야!

“인사해. 여기는 피에르야.”

“아하, 피에 응? 피에르!? 저번에 만났던 아처의 조수잖아!”

내 소개에 마리가 펄쩍 뛸 듯이 놀라는데,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다급히 그녀의 입을 탁 틀어막았다. 반면 피에르는 ‘네, 제가 바로 그 피에르입니다’하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뭐냐고, 그 담담한 반응은!

“아처의 조수라니, 탐탁지 않군요. 저희와 약 10m정도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 !?”

으, 으응? 이번에는 아도라가 말했다. 저기, 아도라. 10m씩이나 떨어져있을 필요가 있는 거야 ? 게다가 안전거리라니, 완전 범죄자 취급이잖아!

나는 다급히 피에르에게 손사래를 치며 안 그래도 된다는 눈빛을 보내주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마리와 아도라에게,

“피에르는 괜찮은 것 같아. 아처를 싫어한다더라고.”

라고 소곤소곤 말해주니까,

“예? 그게 진실일지 거짓일지 어찌 압니까?”

“마,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둘이 말해왔다. 텔레파시라도 통했니? 라고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 !?”

그, 그런가? 팔랑귀 기질이 다분한 내가 마리와 아도라의 말을 듣고서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며 피에르를 쳐다보았다. 너, 내 뒷담화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따지고 보면 피에르가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보장도, 또 진짜 이 남자가 아처를 싫어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피에르는 우리들의 미심쩍어하는 표정을 읽은 듯, 갑자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우리 세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소곤거려오는데

“아처 님께서는 목욕하실 때 머리가 많이 빠지십니다.”

?

“흔히들 ‘탈모’라고 하지요. 하지만 마법으로 그걸 감추고 다니십니다. 이건 굉장한 극비이니, 되도록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자그마치 아처가 탈!모! 라는, 충격적인 비밀을 전해왔다.

우리 세 명은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와, 아처에게 탈모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새빨간 머리는 그럼 마법으로 저렇게 덮어놓은 거란 얘기야?

와, 지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탈모인들에게 미리 사과합니다. 나와 마리, 아도라들은 속닥거렸다. ‘이게 다 인과응보야.’, ‘맞아맞아!’하면서.

“사람을 잘못 봤었군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도라 페일리아입니다.”

“저는 마리 블러셔입니다!”

날 닮은 건지 부모님을 닮은 건지 모를 나의 친구들은 냉큼 태세를 전환하며 피에르에게 인사한다. 그 인사를 받은 피에르가, 살짝 쑥스러운 듯 자신의 기다랗게 땋은 머리의 끄트머리를 매만진다. 아무래도 습관인 듯.

아, 스쳐 지나갈 엑스트라가 될지도 몰라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었다만, 피에르의 머리는 자그마치 굉장한 장발이었다. 그것도 춘향이처럼 한 갈래로 길게 땋은. 이상할 것 같다고? 나도 피에르를 보기 전까지는 남자의 장발이란 그런 느낌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류이의 단발만큼이나 이 남자도 장발이 나름 잘 어울렸다. 막 엄청 잘생긴 얼굴까지는 아니다만, 신기하게도.

“저는 피에르 벨제뷔트 입니다.”

“벨제뷔 에? 벨제뷔트라면 !”

“혹시 발루아에서 온 건가요?”

“맞습니다.”

“ !”

“와, 발루아 사람은 처음 만나 봐요! 여, 영광이에요! 저, 싸인 좀 !”

이게 대체 무슨 대화들이지? 마리와 아도라가 피에르의 대답을 듣고선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리고는 저렇듯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대화에 끼지 못하고,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뚱하니 서있었는데.

무슨 얘기들인 거지? 발루아는 뭐야? 무슨 나라 이름인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영 모르겠다. 외계어인가?

“발루아를 모르십니까?”

나의 시큰둥한 표정을 본 듯, 아도라가 소곤거리며 물어왔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리가 ‘헉’하는 소리를 내더니 이번에도 역시 설명충에 빙의가 되어 내게 아웃사이더 급의 속사포로,

“발루아는 마법사들의 나라야! 아디티보다도 더 진한 순혈 마법사들의 피가 흘러. 엄청 작은 규모의 나라이기는 한데, 그 안에는 마법사가 아닌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들었어. 소수민족이지만 강하기도 하고, 마법도 잘 다뤄서 여러 의미로 대단한 나라라던 걸.”

“아 아하?”

이라며 내게 설명해주었다. 비록 말 속도는 빨랐지만 족집게처럼 중요한 점들을 콕콕 집어주는 그녀의 설명에, 나는 ‘아하, 그렇군!’하며 무릎을 탁 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 혹시 아처의 조수가 된 것도 그래서인가요?”

마리의 설명을 들은 후, 피에르에게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물론입니다. 제 가문에 굉장한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가문의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팔리다시피 오긴 왔습니다만 썩 도움 되는 도련님은 아닌 듯합니다.”

였다.

“ 그런.”

“고생이 많으시겠군요.”

“힘내세요 ”

우리들은 다른 이목구비지만 똑같은 표정을 짓고서 피에르의 어깨를 토닥여주기 위해 손을 들어올렸다.

마리는 왼쪽 어깨, 아도라는 오른쪽 어깨를 토닥이는데 나는 토닥여줄 곳이 없어서 그의 뱃살을 토닥거려주었다. 토닥토닥 엇!? 뱃살 없는 것 좀 보게. 이것은 복근인가? 어린 녀석이 대단하군.

아, 이거 성희롱 아니냐고? 그렇다면 나도 내 뱃살을 기꺼이 만지게 해줄 수 있음이다. 훗, 나는 변태니까

난생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탄탄한 빨래판 감촉에 새삼 감탄하며 ‘오’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려니까, 마리와 아도라가 무대 쪽으로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아차, 그러고 보니 지금 한창 황제폐하라던 그분께서 연설을 하는 중이셨지 않나. 그 사실을 이제야 번뜩 깨달은 나와 내 친구들, 그리고 피에르는 시선을 무대 쪽으로 고정했다. 황제폐하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도 불경죄에 해당되니까.

“음, 그럼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

아직까지도 황제폐하께선 연설 중이셨다. 과연, 높으신 분들께서는 다들 ‘교장선생님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 그리 확신하며 중년의 황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니, 그 뒤에 앉은 황녀와 황자들이 서로 떨어진 거리에서 상체를 기울이며 뭐라뭐라 수다를 떨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황제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하며 멍하니 그들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을까,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설명 아니, 마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았다.

“저기, 마리. 저 앞에 있는 황족들은 다들 머리카락이 주황색인데, 왜 황녀만 검은색이야?”

그랬다. 저 무대에 앉은 황족들 중, 황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머리카락이 주황색이었다. 황비는 금발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혈족일 테니 주황색이 아닌 게 어찌 보면 당연해.

하지만 황녀는 아니지 않은가. 적어도 주황색이나 금발머리 중 하나였어야 정상일 황녀의 머리는 왜 때문에 검은색인 것이지? 내 멍청한 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의문점을 마리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마치 답이 없다는 듯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다.

뭐가 답이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나도 그 이유를 몰랐으나, 이어지는 마리와 황제의 발언에 나는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번에 유이 황자님께서 네 머리카락 색을 보고 오해하셨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바로 ”

“류 제국의 유이 황자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오.”

마리의 속삭임이 끝맺어지기도 전에, 대뜸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렸다. 다름 아닌 황제의 입으로부터.

“ 류이 황자를 왜?”

내가 뜬금없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두 눈을 크게 뜨고서 마리에게 묻는데,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무대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왜 이렇게 황당해하는 것?

이 때까지만 해도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던 나. 이내 황제의 뒤쪽으로 보이는 황녀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그 이유를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이 깨달을 수 있었다.

얼굴이 잔뜩 빨개져서는, 당장이라도 좋아 죽을 듯이 오라비 되는 황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 흑발의 황녀가 말이다.

“아샤!”

“어, 어? 왜 ?”

갑자기 마리가 다급히 내 이름을 외쳐 불러왔다. 살짝 당황하며 마리를 돌아보자, 그녀는 짐짓 성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봐오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 내일모레에 있을 파티의 파트너가 누구랬지?”

“나? 그, 그게 ”

누구겠어? 이미 어제 마리와 아도라에게 말해줬던 사실이다. 내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들었을 때 그녀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고 기뻐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내 기억력이었기에, 나는 지금의 마리가 물어온 이 질문이 정말 ‘몰라서’라는 이유가 아님을 파악했다.

류이인 게 당연하잖아. 처음 편지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찌 거절해야 하나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마땅히 거절할 이유나 멘트 따위는 찾지 못했기에 승낙했었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천민인 내가 황족씩이나 되는 이의 요구를 감히 거절할 순 없는 노릇이니.

“저 사람이지 ”

나는 무대를 향해 길쭉한 다리를 뻗으며 걸어 나가고 있는 훌륭한 비율의 그 남자를 가리켰다. 그가 내딛는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리듬이라도 타듯이 주변 곳곳에서는 혼절해 쓰러지려하는 여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정도로 잘난 인물이라는 거겠지, 저 사람은.

나를 새침한 느낌으로 노려보듯 올려다보던 마리가, 이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어왔다.

“너, 앞에 좀 둘러봐봐. 검은색 머리가 몇 명이나 보여?”

“응?”

검은색 머리가 몇 명이나 보이냐니? 마리의 황당한 물음에 앞을 돌아보았다. 검은색 머리가 류이 말고 또 있어? 내가 알기론 류 출신의 학생은 류이 뿐이니 당연히 그뿐이어야 할 텐,

데? 어라, 또 있다. 왜 있지? 나처럼 서양 피가 반쯤 섞인 혼혈이라도 되는 건가? 그런 거 드물 텐데. 어째서

“하나, 둘?”

“그치, 두 명이나 보이지?”

“응. 저게 다 뭐야?”

마리에게 물어보며, 나는 테이블을 지키고 선 두 명의 검은색머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둘 다 여자라는 점이었다. 한 명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장발이고, 다른 한 명은 류이를 닮은 단발.

게다가 장발 쪽 여자는 염색한 머리인 모양인지, 두피 쪽에 원래 머리카락 색이 비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뭐라고? 염색?

“저 여자들, 둘 다 엄청 집요한 스토커라 매일 같이 유이 님의 서재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연스레 마주친 척 달려들곤 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 !”

“원래는 저 둘이 라이벌 같은 느낌이었는데, 장발 쪽 보이지? 저 사람이 먼저 머리를 염색하고 나니까, 단발 쪽도 따라한 거 있지. 원래는 저 사람도 긴 파마머리였는데, 머리까지 단발로 자르고 학교에 왔었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정말.”

마리의 구구절절한 설명에 ‘아하?’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거였나. 이곳에 들어온 지 몇 주나 지났지만 미처 몰랐어. 이놈의 학교는 워낙 넓은지라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지나다니며 마주칠 기회가 드물다.

그래서 저 검은색 머리의 여학생들을 마주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마주쳤는데도 내가 별다른 생각을 못하고 지나친 것일지도. 전생에서 살적엔 검은 머리란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널리고 깔린 존재였으니 말이다.

류이가 왜 그렇게 내 머리카락 색에 질색하며 시비 걸었었는지를 이제야 납득했다. 머리색까지 따라할 정도면, 그 외의 상황에는 얼마나 지겹도록 스토킹하며 따라다닐지를 감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최악인 건 역시 ”

마리가 내게 귀를 가까이 대어보라는 듯 손짓하기에, 나는 상체를 숙여 그녀에게 귀를 빌려주었다. 마리는 내게 소곤거려왔다.

“저 샤를린 황녀야. 원래는 루이스 님만큼이나 진한 황금색 머리카락이었는데, 몇 주쯤 전에 저렇게 염색했더라고. 소문 중에는 ‘자기는 류에 가서 살게 될 테니 미리 적응하기 위해 색을 바꿨다’고 말했다고도 해. 소름 돋지 않아?”

흠.

마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저 샤를린 황녀라는 이가 꽤 소름 돋는 인물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끄덕.

“처음 마주쳤을 때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

“그치? 원래 유이 황자님은 나쁜 분이 아니야. 여학생들에게도 친절하셨고. 그런데 이곳에서 너무 괴롭힘 당하신 나머지, 최근 들어 많이 까칠해지신 것 같더라고.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마리가 고개를 도리질치며 끔찍하다는 듯 말하기에, 나는 ‘그러게.’라고 중얼거렸다. 공작이나 후작이라던가 하는 신분도 아닌, 하필이면 황녀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혹시, 아주 혹시 말인데. 프란치아 제국과 류 제국 둘 다 대제국 규모의 큰 나라가 아닌가. 만약 두 나라 사이에 혼담이 오고간다면? 성사될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왜,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지 않은가. 기업과 기업 간에 혼담을 맺고, 나라와 나라 간에 공주와 왕자를 결혼시켜 동맹을 맺게 하는 거.

어쩌면 비밀리에 그런 게 오고가는 중이라 저 황녀도 설레발 차원에서 미리 머리까지 물들인 게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

만약 그런 거라면, 류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지 않은가? 저 남자는 그런 부류의 여자들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 같았다만.

“샤를린 황녀, 엄청 성깔 더럽단 말이야. 내가 유이 황자 입장이었어도 싫을 거야. 차라리 저기 테이블에 서있는 두 명들이 나을 정도라고.”

“아, 그 정도야?”

흐음. 나는 황족들에 대한 소문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 잘 모르겠는데.

마리의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류이 황자, 꽤 안 됐네?’였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이라고? 맞다. 어쨌거나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 바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뜻. 일개 천민인 나와 황족들 간의 혼담이라는 주제에는 단 0.0001%퍼센트의 연관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입장인 주제에, 감히 뭘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 있겠는가.

류이 황자가 저 샤를린 황녀랑 결혼하게 되든,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두 검은 머리랑 결혼하게 되든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다. 이내 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변하며 이 주제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났다.

“프란치아의 황제폐하를 뵙습니다.”

평소에 자주 입고 다녀서인지는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인 류이가 무대 밑에서 짤막히 목례하며 황제에게 인사를 올린다. 뒷모습만 보이는데도 잘생김이 묻어난다. 저런 게 흔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음 다른 이들은 체크무늬 정장이라던가, 하얀색 턱시도라던가, 아주 별 꼴같잖은 옷들까지 입고 나와도 별로 간지가 안 사는데. 이상하게도 류이 저 인간은 그저 하얀 셔츠에 정장 조끼만, 검은색 정장 바지만 입은 게 전부인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빛난다.

루이스는 어떻냐고? 아, 얘는 패스. 얼굴이 넘사벽이라 정장이 루이스빨을 받고 있기 때문. 유일하게 류이의 옆에 갖다 붙여놨을 때 꿀리지 않을 존재가 바로 루이스라고 보면 된다. 반면에 란 녀석은 장례식장이라도 온 것처럼 우중충한 검은 정장 패션으로 테이블에 한쪽 손을 짚은 채 비스듬히 서있는 뒷모습이었고, 문제의 하얀 턱시도는 바로 아처 놈의 옷차림이었다.

우웩. 지가 무슨 강남 제비야? 토 나오게.

어쨌거나 이 수많은 인파들 중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연 돋보이는 외모의 소유자인 류이 황자께서는 인사만 올린 채 돌아서려 했는데, 그런 그는 황제가 ‘잠깐 올라와주시오’라고 말해버린 탓에 도로 무대 위에 올라야만 했다.

일순 보고야 말았는데 류이의 표정, 엄청 똥 씹은 것 같았어. 하긴, 눈에 띄길 싫어해서 골목길에 처박혀 사는 저 인간 성격이라면 그럴 만도.

“류 제국의 빛나는 인재인 황자가 친히 이 대학에 수학하러 와주어, 짐은 굉장히 기쁘다오.”

황제의 주절거림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학생 전체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의 류이에게만 독단적으로 건네는 사설이었으니. 저 무대 위에 올라간 이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할까?

그러고 보니, ‘류’ 발음이 안 되는 건 프란치아인들의 종특인 듯. 지존이라 불리는 황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아, 류이는 유이라고 하면서 류 제국은 왜 멀쩡하게 ‘류’라고 칭하냐고? ‘ㄹ’발음이 안 되는 민족이라면 루이스도 우이스로, 레오니드도 에오니드로, 로사는 오사로, 란은 안으로 발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오, 특이한 발상인데?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프란치아 사람들은 류 제국식 발음인 ‘류’라는 발음을 못하는 것이지, ‘ㄹ’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프란치아에서의 ‘류 제국’은 읽을 때 ‘류’라는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미국에서는 코리아로, 일본에서는 강코쿠라 부르듯이 이곳에서는 다른 발음법이 존재한다는 뜻. 설명이 되었는가? 혹시나 궁금해 할 사람들을 위해 잠깐 마리를 빙의시켜 보았다.

계속해서 류이를 ‘유이’라고 부르며 이어가는 황제의 연설을 들으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나.

이내 이어지는 황제의 한마디에, 원치 않게 눈이 튀어나올 듯이 깜짝 놀라야만 했다.

“그대만 괜찮다면, 이틀 뒤에 있을 그대의 춤 경연 파트너에 나의 딸아이를 붙여주고 싶소만 괜찮겠소? 나이도 같고 하니, 좋은 인연이 될 거라 생각하오.”

왜 이런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저런 요청을 하는 거지! 대체 어째서? 저래도 되는 건가!?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듯 놀라버린 나의 옆에서, 잔뜩 경악한 마리가 내 어깨를 마구 때리듯이 쳐왔다.

아도라도 다소 놀란 듯 내 팔을 붙잡고 흔들어오는데, 그와는 대조적인 누군가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무대 위의 소파에 앉아 자신의 양 볼에 손바닥으로 덮은 채 몸을 마구 비틀어대며 기뻐하고 이는 흑발의 황녀였으니.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혼사가 결정이라도 난 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박수치며 축하해주고 있는 그녀의 오라비들도.

“어,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있다간 파트너를 뺏기게 생겼어요 아샤!”

“미쳤어, 미쳤어! 지금 황녀를 류이 님과 붙여주겠다고 공표하는 셈이잖아, 저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셈이야, 응? 눈 시퍼렇게 뜬 채로 파트너를 뺏길 셈이냐고, 아샤!”

“ !”

마리와 아도라가 나를 흔들며 닦달해온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머리가 차게 식는다. 당황하고 놀랐지만, 나의 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두뇌회전. 그리고 이내 내 뇌가 내린 대답은

응!

차라리 뺏기는 게 나아!

옆에서 아도라와 마리가 뭐라고 떠들든, 내 뇌는 일관성 있게 외쳐대고 있었다. ‘바로 이거야! 모처럼 운명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고.

이번에는 나의 콩알 만한 심장과 간도 뇌의 의견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래, 저런 버거운 상대는 차라리 뺏기는 게 나아!’하면서.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기실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든, 시뻘겋게 뜬 상태든 신분부터가 끝없이 낮은 천민인데 어디 황녀와 비빌 구석이나 있겠느냔 말이다. 뺏기면 어쩔 거고, 되찾겠다면 무슨 수로 되찾을 건데? 애초부터 불가능한 싸움이다, 이 말씀이야.

이건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디까지나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다. 보아하니 황제는 혼담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같은 일을 벌이는 것 같은데, 황녀라면 타국 황자인 류이와 파트너를 하던 결혼을 하던 문제가 없지만 천민 신분인 내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됐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나는 내 파트너인 저 쓸데없이 잘난 남자를 황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 못사는 류이를 드리겠다고요, 황녀님!

나는 그리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황제폐하. 제겐 이미 파트너가 있습니다.”

“ !”

아니, 대체 사람이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데!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일을 고작 ‘파트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냐고!

바로 위에 있는 저 느낌표는 나의 반응이 아니었다. 자그마치 황제와 그 뒤에 앉아있던 황녀 및 그녀의 오라비들이 보인 반응이었으니.

‘감히 이런 자리에서 건넨 황제폐하의 요청을 거부해 !? 대체 파트너가 누구기에!’하는 표정으로 부들거리는 황자들과 황녀의 표정이란 감히 핏줄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다. 씨 도둑질은 못하겠군, 프란치아 황가는.

그나저나 대체 왜 거부한 건데!? 마리와 아도라가 환호하며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나의 어깨를 마구 두드리고 있는 지금,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류이의 뒤통수를 노려보았다.

지금 이 장소는 주변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호위 기사들의 숫자도 어마무시한 데다, 지켜보는 고위 귀족들의 시선들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든 무엇으로든 간에.

아마 황제도 이런 보는 눈들과 이곳의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이용해서 오케이를 받아내려 했던 것 같은데, 저 남자는 과연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당당하게 거절해버렸다. 이런 무거운 장소에서, 무거운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아주 많이 당당했다는 것이다.

태생부터가 황자라서 그런 건가? 감히 황제씩이나 되는 이의 요청을 그리 간단하게 단칼로 거절하다니 ! 미쳤냐, 너!

“그, 그렇소? 흐음, 그것 참 안타깝게 됐군.”

황제폐하, 감추려고 하셔도 뻘쭘해하는 거 다 티 난다고요!

수염을 매만지며 크흠거리는 황제폐하는 딱 보기에도 ‘나 지금 많이 불편하다’를 드러내고 있는 작태였다. 자그마치 일국의 황제가, 류이의 대답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

그리고 그 원인인 나는 점점 등골이 싸해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이거 이대로 갔다간, 이틀 뒤에 있을 파티에서 내가 류이의 파트너라는 걸 만인에게 드러내게 되는 그 즉시 돌팔매질당해 죽게 될 수도 있겠는 걸!? 아니면, 황녀가 부리는 수족들에 의해 몰래 뒤에서 암살당해버린다던가 하는 최악의 결말이 빚어질 수도 !

“정말 다행이다! 그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분이로군요, 저 황자님은. 아샤 님, 다행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거니 ?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을 입술을 깨물어가며 참았다. 아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구나. 정체불명의 살인마법사가 아닌, 프란치아 황실 손에 내가 비명횡사하게 생겼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결말로 이번 생을 마무리하게 될 줄이야. 차마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나는 슬퍼졌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보다 내가 처한 이 비극이 더 슬프지 싶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으며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흐느끼자, 양옆에서 눈치 없는 두 명이 그런 나를 달래어 왔다.

“아샤, 얼마나 기뻤으면 ”

“이제 안심해요. 저 황자님은 아샤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

대체 눈치라는 놈을 어디다 버리고 온 건지

그녀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슬픔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나.

무대 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오가고 있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보았다.

“흠, 흠 내 이건 그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오. 듣자 하니 류 제국의 드레스가 그리도 아름답다더군. 내 특별히 그대가 이틀 뒤에 있을 파티에 입어주었으면 하여 준비해보았으니, 부디 입어 주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보는 눈을 이롭게 해주시오.”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황제폐하.”

황제는 류이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다. 그것도 본인 손으로 직접. 무언가 적당한 크기의 박스 두 개인데, 류 제국의 드레스 어쩌구 하는 걸 보아하니 옷인 모양이었다. 뒤에서 검은 머리의 황녀가 분노를 참지 못하겠는 듯 드레스 옷소매를 물어뜯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저 황녀가 입을 뻔했던 옷인가? 싶기도. 아무래도 춤 경연을 위한 옷 선물이면 파트너 것까지 준비했다는 말이 되는 거겠지?

아, 잠깐만. 그럼 내가 입게 된다는 건가?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 많이 부담스러워. 역시 류이의 파트너 제안을 거절하는 게 옳았다 하는 후회를 일순간 수백 번은 하며 한숨을 푹 내쉬자니,

“다행이야,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마리와 아도라는 이번에도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 줄 안 모양이었다. 제발 그만들 좀 해, 이 눈새들아!

‘류이의 파트너 자리를 경매에 부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래고래 외쳐버리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힘겹게 참아냈다. 그런 자리를 경매 상품으로 올리면, 아마 이백만 베른은 뚝딱 갚아버리고도 남을 듯한데. 분노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대 쪽의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자, 이제 막 류이는 황제폐하의 선물을 건네받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중이었다.

아직도 황제폐하의 표정은 영 떨떠름했는데, 몇 초 후에 그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황제라서 그런 것인지는 어쩐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빠른 황제 아저씨의 표정 회복 속도에 나는 은근히 놀라다가, 퇴장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말고 은신 마법 중이던 진에게 슬그머니 상자를 건네는 류이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사실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나를 포함해 이 공간 안의 사람들 중 절반은 될 것이다. 진은 상자를 건네받더니 다시금 은신 마법으로 스르르 사라지고, 주변 구경꾼들이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역시 황자가 부리는 수족은 은신 마법을 자유자재로 !’하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인지 무대 측에서 사회자가 헛기침소리를 냈다. 황제폐하를 눈앞에 두고서 시선들이 너무 엉뚱한 데에 가있었던 탓인 듯.

진 저 자식, 돌팔이 마법사 아니었나? 이런 장소에서는 새삼 간지 나는 척하고 사라지는 것 좀 보게. 그리고 그의 주인인 저 남자도 마음에 안 들어. 대체 왜 황제의 제안을 거절한 거야? 누구 곤란해지라고!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테이블에 돌아가는 류이의 뒤통수를 부리부리한 눈깔로 째려보는데, 갑작스레 원래 자리로 돌아간 그가 뒤로 고개를 홱 돌려왔다.

“ !”

헉, 빌어먹을!

하필이면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부라리고 있던 눈빛을 그가 딱 봐버릴 건 뭐란 말인가. 황급히 시선을 돌려버리며 무대의 황제폐하를 바라보는 척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게 계속해서 시선이 다가와 꽂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바늘처럼, 콕콕.

뭐지? 결국 이번에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결국 무대에서 살짝 왼쪽 편에 위치한 류이의 테이블 쪽으로 슬그머니 시선을 향해보는데.

아직까지도 꽤 인상을 찌푸린 채인 나의 눈과, 담담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류이의 눈이 마주쳤다. 일순간 나는 류이의 바로 두 칸 건너 옆자리에 위치한 안경잡이도 시야에 담을 수 있었는데, 그 또한 내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바늘은 한 개가 아니었던 것인가.

시원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만 같은 착각이 느껴질 때, 나는 그 두 명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관찰해냈다. 그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류이는 웃었다. 한쪽 입꼬리만 끌어올려 짓는 비웃음이 아닌, 양쪽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가며 마치 심장 녀석에게 보란 듯이 ‘네가 이러고도 배겨?’하는 느낌으로다가 말이다.

그런 그와 눈이 딱 마주친 내가 ‘윽!’하는 표정으로 인상을 확 찡그리며 심장 부근을 움켜잡으려는데, 그런 나보다 더 먼저 튀어나온 반응들이 있었다. 그것은 나나 내 친구들의 반응이 아니었다.

“봐, 봤어? 방금 유이 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셨어 !”

“아냐, 나야! 나를 보고 웃으신 거라고!”

?

그래. 나도 부디 너희들에게 향한 미소이기를 바란다.

나와 멀지 않은 거리인 옆에 서있던 두 명의 여자 조수들이 방방 뛰며 좋아 날뛰다말고 ‘내 미소다’, ‘아니다’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건 무시하고, 나는 류이가 황제폐하의 연설에 집중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란 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쳐다봐오고 있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잘 모르겠다. 안경이 불투명하다보니 눈동자가 안 보여서 누굴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

나인가? 아니면 아도라나 마리인가. 우리들 중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영 모르겠단 말이지. 지금 나와 눈이 마주친 건가, 아니면 옆에서 마리와 수다를 떨고 있는 이 아도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마리는 아닐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며 갸웃거리고 있자니, 이번에는 옆에서 이런 소리들이 튀어나왔다.

“근데, 저 괴상한 안경은 왜 우릴 보고 있는 거야? 기분 나빠 ”

“몰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란이라던가? 하여튼 엄청 께름칙한 사람이야. 여긴 왜 쳐다보는 거람? 짜증나게 ”

?

머리가 많이 아픈 친구들인가 보군. 착각은 자유라지만 저 정도면 너무 자유로운 영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그 자리에 굳다시피 가만히 선 채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란을 응시했다. 그러다가 문득 아도라의 뒤로 슬그머니 숨어보았다.

아도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 실험해본 것이었는데.

"?"

황녀에 대한 호박씨를 까느라 바쁜 아도라와 마리들 뒤에 숨었다가 문득 그 둘 사이의 어깨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을 때, 나는 류이와는 다른 느낌으로 음험하게 실쭉 웃는 그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다.

더불어,

“!”

저 자식이!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이마 위에 빠직 마크가 떠오른 나는, 슬금슬금 옷소매를 걷으며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저 계란 녀석을 어떻게 쥐어 패줄지를 고민해보았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아처에게 갈비뼈를 걷어차였던 것만큼만 저놈의 란 녀석을 후두려 패줄 수 있다면 딱 좋겠는데. 사실 그 때 아처에게 얻어맞은 것도 기실 란 놈 덕분이 아니었는가?

마음 같아서는 백 번 천 번도 더 때려주었겠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내가 누군가를 패고 자시고 할 처지가 아니었다. 도리어 안 맞고 다니면 다행이지 않겠는가. 크윽, 빵셔틀이나 다름없는 내 인생.

걷었던 소매를 슬그머니 도로 내렸다. 제발 저 인간, 내 꿈에서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 원펀치로 꿀밤이나 거세게 먹여주게 말이다.

“하여튼, 저 미친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 맞은 사람마냥 중얼중얼 욕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나직이 내뱉은 나의 한마디. 그런데 그것을 들어버린 아도라와 마리가 고개를 돌려왔다. 한창 무대에서는 황제폐하께서 ‘이번 시약 제조 대회의 주제는-’하는 말을 떠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누가 ?”

“누가요 ?”

라며, 동시에 내게 물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 둘은 내가 무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기에, 황제를 향해 욕을 한 줄 안 모양. 크게 놀란 표정으로 입술이 스르르 벌어지는 그녀들을 뒤늦게야 확인한 나는 다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니, 아니. 란, 저 인간한테 한 말이야!”

내가 미쳤다고 황제에게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하겠니! 극구 부인하는 나로 인해, 마리와 아도라가 ‘친구를 불경죄로 잃지 않을 수 있어 다행이다’하는 느낌으로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데 아도라, 너는 안도하면 안 되지 않니? 자그마치 나, 네 도련님을 욕한 거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아도라는 태평한 표정으로 무대를 가리켰다. 뭐, 뭐지. 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관대한 건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아서 다행.

“저기 봐요. 이제 주제를 발표하려나 봐요.”

“으응, 그런가 봐.”

“이번에는 어떤 시약을 주제로 줄까요? 작년에는 엄청 쉬워서 실패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던데.”

“그럼 이번에는 반대겠다, 그치?”

“아마도요.”

마리가 아도라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능도 물수능과 불수능이 번갈아 나오듯이, 이런 대회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작년이 그리 쉬웠다면 이번에는 좀 어렵겠지.

하지만 그 어려운 시약을 우리 주인님이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를 일. 루이스가 전교 일등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루이스가 막 엄청난 마법을 구사하는 것까지는 본 적이 없단 말이지. 물론 오이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와주었던 그 약간의 마법을 빼자면 말이다.

그래서 루이스의 마법 실력에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참이다. 넥타이도 혼자서 못 매는 얼빵한―어디까지나 내 기준이지만― 우리 주인님은 과연 대단한 마법사가 맞긴 맞을까? 물론 아처보다야 뛰어난 마법사일 거란 사실은 내 전재산은 물론이오 란 녀석의 없는 개념까지도 모조리 걸고 맹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모르겠다. 루이스가 잘 해낼지 아닐지를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으니, 주제를 발표하기 위해 사회자가 건네주는 웬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드는 황제폐하의 모습을 가만히 선 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주제일까? 내가 치르는 대회도 아닌데, 괜히 맥박이 빨라지며 떨리기 시작한다. 워워. 적당히 날뛰라구, 마이 하트.

“이번 시약 제조 대회의 주제는-”

두루마리를 읽으며 말하는 황제의 근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나와 아도라, 마리들은 다들 침을 꼴깍 삼키며 무대를 응시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경꾼들이 잔뜩 긴장한 기색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매우 정적이었다.

이어지는 황제폐하의 한마디가, 그 고요함을 깨뜨렸다.

“미래를 비추는 힘. 바로 ‘투영의 비약’이오.”

“ 투영의 비약!”

“세, 세상에. 너무 고난이도잖아, 그거 !”

주제가 발표되기 무섭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 투영의 비약이라는 게 무슨 비약인지는 재료 공부 깨나 했다고 자부하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어려운 비약인 모양.

그런데 뭐가 얼마나 어렵기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만 모아 놓은 곳이라던 대학의 학생들이 저리 호들갑이란 말인가? 영문을 모르겠어서 두리번거리며 어수선해진 주변 분위기를 살피자니, 옆에서 아도라가 내 반응을 읽은 모양인지 소곤거리며 말을 건네 왔다.

“아샤. 과거로 돌아가는 비약을 만들기는 쉬워도, 미래의 모습으로 변하는 비약은 만들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응? 알지,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 미래와 과거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다.

과거는 이미 지난 시간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 내가 ‘10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비약을 만든다 치자. 그 비약에는 딱히 고급 재료도, 어려운 마법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내가 걸어왔던 길이고, 자라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좌표’가 생성되어 있는 셈. 따라서 그리 까다로운 마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아니지 않은가. 앞으로의 내가 몇 살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남들은커녕 나 자신도 모른다. 그렇기에 아직 지나지 않은 이 미래라는 길의 좌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마법 재료들 중에서도 상급 이상,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도 아주 뛰어난 마법 실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저 투영의 비약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 ‘미래를 비추는 힘’이라더니, 설마?

“변신 비약이야?”

“네, 그 부류에 속하죠. 더 정확히는 ‘죽기 한 시간 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비약이에요. 말하자면 노인이 됐을 때의 자기 모습을 지금의 육체에 투영시키는 거라고나 할까요.”

“아하.”

간단명료한 설명에 단번에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어주는 비약이다 이거지?

더 먼 미래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비약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번 시약 제조 대회의 난이도는 보통을 훨씬 넘어선 상에서 최상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자니 무대 쪽에서 황제폐하가 축복의 한마디를 온 학생들에게 건넨다.

딱히 ‘우리 주인님이 그런 어려운 걸 만들 수 있을까?’같은 걱정을 할 틈은 없었다.

“그럼, 그대들의 앞날에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제한 시간은 삼십분입니다. 그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스피디함이야. 황제폐하가 무대 중앙에 마련된 소파 쪽으로 이동해 앉고, 사회자가 다시 중앙으로 올라와 시약 제조 대회의 시작을 알린다.

그와 동시에 마법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그 사회자는 개인 지팡이로 추측되는 물건을 꺼내어 학생들이 서있는 테이블 쪽을 향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리듯 휘두르는데

펑─!

“ !”

이런 호그와트스러운 스타트일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 동의? 어 보감.

사회자가 지팡이를 휘두름과 동시에 학생들이 서있는 모든 테이블에 시약 재료들이 뿅! 하듯 나타나는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버리고야 말았다. 이러니까 진짜 마법 대학 같다는 느낌이 물씬 들어.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위에 놓인 재료들을 눈으로 쫙 훑어보았다. 저건

“!”

헉! 페리드의 뿔과 트롤의 심장이잖아!?

자그마치 팔면 내 10년 치 생활비는 될 법한 어마무시한 가격의 재료들이 각 테이블 위마다 놓여있는 눈앞의 상황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손으로 눈을 부비적거려보았다. 다시 보아도 재료들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새로 떠보아도 그 재료들은 그대로였다. 와, 대학 아니랄까봐 재료 스케일부터 남다르네.

저런 무지막지한 상급 재료들이 들어가는 비약이라면, 대체 얼마나 성공률이 희박하단 말인가? 귀한 재료가 들어갈수록 어려운 비약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이 세계였기에, 나는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져가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 주인님, 망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아처만큼은 이기기를 바라며, 나는 두 손을 꼭 모아 쥐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루이스가 제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멘아미타불.

대학의 학생들은 분주히 재료들로 손을 뻗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테이블의 칸막이는 투명했으니, 슬그머니 떠오르는 의문. 저럴 거면 칸막이가 왜 있는 거지?

대회가 시작된 지금, 학생들의 집중을 위해 귀족들이며 황제며 가릴 것 없이 조용해진 장내였기에, 나는 남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마리에게 물었다.

“칸막이가 투명한데, 저러면 컨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처 놈과 루이스의 자리를 보아하니, 루이스가 아처보다 두 칸 정도 앞에 있었다. 옆으로 한 칸 앞으로 두 칸. 마음먹고 고개를 기웃거리며 쳐다보면 충분히 컨닝도 가능할 것 같은 그 거리에 내심 불안해져서 물어본 한마디에,

“아, 저거? 우리한테만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테이블 앞에 선 사람들한테는 사방이 까맣게 보여.”

“!? 아, 그렇구나.”

마리가 마치 내가 순수해 보인다는 듯 배시시 미소 짓더니 답해왔다.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촌년처럼 엉뚱한 걱정이나 하고 있었잖아? 나는 아무래도 뇌가 순수한 듯.

그렇다면 아처 놈이 루이스의 제조 방식을 컨닝할 일은 없겠다. 하긴 뭐, 이렇게나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남의 테이블을 훔쳐 볼만큼 간이고 쓸개고 출타해버리고 없는 녀석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세와 가오로 가득 찬 아처 녀석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면 안심이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루이스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다른 학생들에게서는 갈피를 못 잡고 허둥지둥거리며 플라스크에 재료를 이것저것 때려 넣고 있는 광경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역시 내 주인님.

그는 전교 일등이자 엘리트라는 말이 헛소문만은 아닌 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분류해 알맞은 제조법으로 딱딱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었다. 틈틈이 마법을 곁들여가며.

명불허전이야. 엄청 유명한 마법사의 아들이라더니, 핏줄이 어디 가지는 않는 모양이다. 아마 저 뒤태도 레플리카 공작이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겠지?

그가 지닌 샹들리에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금발에, 적당하게 넓고 훌륭하게 섹시한 저 어깨넓이란 가히 치.명.적. xx염색체는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줄줄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그의 탐스러운 뒤태를 지켜보다가, 나는 내 뇌가 ‘변태 세포가 탈옥했어!’를 외치고 있음을 깨닫고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생각해보니 나도 xx염색체였던 것이다.

더 보고 있다간 루이스가 아니라 내가 루이스에게 기사의 맹세를 걸어주겠다고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어, 이거. 내가 마법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후우, 하아.

“이디아 아가씨 화이팅!”

마리는 옆에서 조용히 응원의 한마디를 외치고 있고, 아도라는 옆에서 별 흥미도 없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멀뚱히 서있다. 그녀들의 사이에서 나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려보았다.

일단 루이스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더 볼 필요도 없겠다. 그의 결과물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어쨌거나 심장에 가히 치명적인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기보다는 다른 이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른 인물을 물색해보았다.

내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강남 제비였다. 하필이면 왜? 내 레이더지만 내가 다 기분 나쁘군.

저놈은 뒤통수부터가 주먹을 부르는 강렬한 인상이다. 무스까지 바른 것 같은데, 크윽 ! 극혐.

때리고 싶게 생긴 뒤통수도 존재하는 걸까?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아처 놈의 뒤통수를 본 순간 확신했다. 그런 건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저 제비 녀석은 자기 딴엔 돋보이겠다고 입었을 하얀 턱시도가 내 눈에는 그저 꼴같잖은 멋부림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뭐 그래봤자 ‘천민 따위의 안목이 그럼 그렇지!’라며 정신승리할 자식인 건 알고 있다만.

“ 흠.”

좀 아니꼬워졌다. 전교 꼴찌에 맴돈다는 놈이 왜 저렇게 실실 쪼개면서 만들고 있단 말인가. 혹시 어제 비약 제조 개인 과외라도 받고 온 것인지. 몹시 당당하게 플라스크에 재료들을 투하하고 있는 녀석의 뒤통수를 째려보다가, 문득 옆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피에르였다. 일부러 날 쳐다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눈이 마주쳐버렸다. 뭐지, 왠지 찝찝한데. 피에르도 아처를 싫어하긴 한다지만,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아처를 노려보고 있는 광경을 들키니 기분이 좀 그랬다. 시선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며 딴청부리는 척을 잠시 하자니, 이내 피에르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휴우.

다시 탐색을 시작해볼까? 두리번거리자, 이번에는 ‘그 남자’라고 쓰고 그 놈이라 읽어야 할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란이다.

“하이고 ”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플라스크에 ‘이건가?’, ‘응, 이게 아닌가?’하는 표정으로 재료들을 넣었다 뺐다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멍청하게 생긴 그의 뒤통수란 더 볼 가치가 없군.

한숨을 절로 부르는 그의 뒷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루이스와 비슷한 키, 비슷한 체격에 어깨인데 어찌 이리 뒷모습을 보고도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단 말인가? 신기할 따름이다.

미안하지만 아도라, 네 주인에게 승산이란 없겠구나. 이어서 란이 플라스크에 무슨 마법을 거는데, ‘펑!’하는 소리가 나서 구경꾼으로 참석한 귀족들의 이목이 란에게로 쏠렸다. 이내 그가 멋쩍은 듯 실실 웃으며 뒤통수를 긁는 시늉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은 산산이 흩어져버린다 실력도 없는데 인기조차 없다니, 불쌍한 란.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았다. 너무 학생들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이곳에 구경꾼으로 참석한 다른 귀족들을 훑어보기 위함이었다.

대충 세도 이백 명은 될 듯한 숫자에 새삼 입이 딱 벌어진다. 그 많은 숫자의 귀족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창가 쪽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들은 끝없이 많았다. 한창 대회가 진행 중인 중앙을 배제하고 저쪽만 보자면 완벽한 파티장 분위기라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게 가능한 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강당이 너무나도, 굉장히 드넓었기 때문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족들끼리 모여 손에는 샴페인 잔을 하나씩 들고 수다를 떨며 대회 관람을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자니, 문득 그 사이사이에 조수들이 끼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 저쪽으로 간 거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우리 뒤쪽에 모여 있었던 조수들이 어느 틈엔가 온데간데없었다.

기껏해야 우리 트리오, 그리고 피에르 정도를 합해 열 명 정도 될 듯. 그러고 보니 조수들도 귀족은 귀족이었구나. 조수 유니폼을 입고도 당연한 듯 귀족들 사이에 뒤섞여 수다를 떨고 있는 이들을 지켜보며, 다시금 이 공간에 천민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저 귀족들 틈에 끼어들어서 ‘샴페인 한 잔 하실래요?’하는 멘트를 친다면, 분명 ‘이게 미쳤나?’하는 말을 듣기 십상이겠지. 전생으로 치자면 일개 여고생이 국회의원과 각종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데에 슬그머니 끼어들어 ‘포도주스 한 잔 하실래요?’하는 급이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해봐도 살짝 머리가 아픈 애처럼 보일 것 같다.

실천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해보는 짓 따윈 영양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도리질 치며 나는 시선을 왼쪽으로 돌렸다. 하던 대회 구경이나 마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나의 시선에, 이번에는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류이였다.

과연

쌔끈하군. 자타가 공인할 그의 잘빠진 뒤태는 루이스와는 다른 느낌으로 매력적이었다. 말하자면 xx염색체뿐만이 아니라, xy염색체도 ‘두근 !’거리게 만들 수 있을 듯한 자태라고나 할까.

키도 루이스나 란보다 한 뼘은 작은 것 같고, 어깨도 루이스나 란보다는 살짝 좁은 그. 하지만 그만큼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여자로 오해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잘빠지고 예쁜 사람’이라는 뜻.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여자로 오해할 법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뒷모습만 봐도 저리 예쁜데, 앞모습은 더한 게 당연하잖아. 잘생쁨의 정석이랄까?

게다가 신분은 자그마치 류국 황자가 아닌가. 재력이든, 신분이든, 외모든 다 충족해버린 류이의 뒷모습은 몹시 이기적이었다. 루이스도 이기적이지만 저 인간은 더하다는 뜻이다. 있는 놈들이 가질 거 다 가져가버리니까 나처럼 없는 것만 가득한 천민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는가. 흥.

살랑거리며 흔들리는 그의 단발머리를 지그시 응시하자니, 잠시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존재가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황녀였으니. 이번에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향해보았다.

샤를린 황녀는 몸을 앞으로 잔뜩 기울인 채, 무릎에 양 팔꿈치를 괴고서 손으로는 턱을 짚고 있었다. 그리고 하염없이 어느 한 명에게로 시선을 고정한 채였는데, 그게 누구일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누구나 알 만한 부분이겠지.

저게 바로 ‘사랑에 빠진 이의 눈빛’이라는 건가? 사랑에 빠진 건지 재력과 신분의 매력에 빠진 건지는 저 눈빛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황녀의 사랑을 응원하기로 했다. 화이팅.

뭐, 그런다고 이틀 뒤 파티에서의 내 파트너가 류이에서 다른 누군가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정작 응원해야할 주인인 루이스에게는 관심도 없고, 엉뚱한 인간이나 응원하고 있자니 시간은 잘도 흘러갔다. 사실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주어진 시간은 삼십분이랬던가? 중간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아닌 ‘대회’라서 학생들이 실패하기라도 바란 것인지, 시간을 몹시 짜게 줬다.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끝이야?’하는 느낌으로 장내에 쩌렁쩌렁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났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 테이블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하아아 ”

사회자의 종료 선언이 울려 퍼지자, 학생들 사이사이에서 탄식이 마구 터져 나왔다. 아마 비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들의 한숨일 테지. 성공적으로 제조에 성공했다면 저런 소리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단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남들의 비약 성공 여부가 아니라, 루이스의 목소리도 저 탄식에 섞여 있느냐 아니냐였다. 루이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니, 그는 별 문제 없었다는 듯이 무난히 서있는 게 아닌가. 딱히 자조하는 느낌도, 실망하는 기색도 비치지 않는데. 호오, 과연 우리 주인님.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이건가?

이번 대회, 난이도가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하게 비약을 만들어낸 거라면 오늘 저녁은 주인님과 특별한 걸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진지하게 무언가를 고민하는 척 턱을 쓰다듬고 있었다. 특별한 게 뭐지? 우리 잘난 공작가 도련님께는 뭐가 맛있는 음식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자니 아도라가 옆에서 내게 슬쩍 말해왔다.

“비약의 색이 은은한 보랏빛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약은 모조리 실격이라고 보면 돼요.”

“아하?”

그건 또 몰랐군. 아도라의 말을 듣고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과연 다른 학생들이 만든 비약은 보랏빛이 날 것인가?

는 무슨. 가히 충격적인 결과물들이었다. 무슨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 총집합도 아니고, 주변에 보이는 비약들의 색이란 참 다채로웠다. 예쁘다고 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알록달록한 그 색감들에 나는 잠시 입을 헤벌렸다. 헤에, 망했다고는 하지만 색은 꽤 예쁜데.

아차, 우리 주인님 건!?

그제야 루이스의 성공 여부가 생각난 나는, 다급히 우리 주인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았다. 루이스는 비약을 제조한 플라스크를 들어 올려 색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뒤쪽에 서있던 나도 그 색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보, 보라색!”

보라색 맛 났어! 모 게임의 짜리몽땅한 캐릭터가 자주 중얼거리는 대사를 머릿속으로 외치며, 나는 자리에서 방방 뛰었다. 세상에 맙소사, 역시 우리 주인님은 천재였잖아!

그 어렵다는 비약을 불과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 내다니. 루이스의 조수가 된지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것은 물론 그와 꽤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인 것도 이유지만, 우리 주인님이 이겨야 아처도 이기게 되고, 또 나의 콧대를 한층 드높여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윈윈이지, 암! 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기쁨이었다. 이야, 좋아라.

볼에 홍조까지 띄워 올리며 잔뜩 신나하자니, 옆에서 아도라가 콧방귀를 흥하고 뀌었다 응? 이건 또 무슨 반응이래.

“왜?”

아도라를 돌아보며 물으니, 그녀가 란 쪽을 슬그머니 가리켰다. 네 주인님이 왜? 비약이 검은색으로 연성되기라도 했

니가 아니잖아!?

“뭐야! 저놈이 어떻게?”

비약은 완전한 보라색이었다. 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란 주제에, 란 따위가 말이야!

“웃기죠? 굼벵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사실을 저희 도련님을 보다 보면 느낍니다.”

“어이가 없, 아니. 아도라 너 너무 란한테 막말하는 거 아니야? 굼벵이가 뭐야, 굼벵이가.”

“아, 불편하셨다면 죄송 ”

“구더기 정도로 하자.”

끄덕. 진지한 표정으로 건넨 내 더한 막말에, 아도라가 마찬가지로 진지한 표정을 한 채 고개를 한번 깊이 끄덕였다. 역시, 우리는 잘 통하는 친구사이야. 말하자면 일심동체.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걸어 올리며 고개를 돌렸다.

보자보자, 우리 강남 제비자식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나?

뭐지, 저건.

망했다고 해야 할지 성공했다고 해야 할지 판별이 애매한 결과물이 나왔다. 아처가 들고 있는 플라스크 속 액체는 기묘한 색이었다.

저건 마치, 보라색과 파란색의 중간 ? 애매한데. 루이스가 만들어낸 비약이 완연한 보랏빛의 짬뽕이라면, 저건 그냥 짬짜면이었다. 그럼 그렇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플라스크에 재료를 마구 때려 넣을 때부터 저 자식은 망조가 보였다고.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젓는데, 옆에서 살짝 떨어진 거리에 서있던 피에르가 눈에 들어왔다. 피에르 역시 ‘그럼 그렇지’하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아처를 응시하고 있었으니. 뭐랄까, 이쯤 되면 저 한심한 아처 녀석의 인생이 불쌍해지려한다. 좀 영양가 있게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걸까? 뭐, 내 인생도 아니니 사실 알 바 아니지만.

“그럼, 지금부터 비약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자리에 착석해주십시오.”

무대의 앞쪽에는 미리 마련된 심사위원석이 있었다. 마치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일자로 마련된 그 심사위원석에는 대학의 교수들과, 대학 외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간달프 같이 생긴 할아버지,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 같이 생긴 할머니 한분이 앉았다. 나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법사들을 초빙해온 것 같았다. 외모부터가 딱 ‘내가 바로 대마법사다’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총 다섯 명. 그들이 착석하자, 사회자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말은 장내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에서 제조한 비약은, 만든 이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라 는 황제폐하의 황명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한 장내. 대체로 ‘그건 안 되는데 !’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외않됀데? 안 될 게 뭐가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비약이 아닌가. 부작용이 두려워서 먹기 싫어하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옆에서 마리가 소곤거리며 나와 아도라에게 말해왔다.

“프란치아는 유독 귀족들 간의 서열 다툼이라던가 가문 내의 후계자 다툼이 심해서, 투영의 비약 같은 걸 먹은 모습을 타인에게 들켜서 좋을 게 없어.”

라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투영의 비약을 먹으면 죽기 한 시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했던가? 결국 먹은 이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를 보여주는 비약인 것과 다름없으니, 그런 식으로 다른 가문에게 정해진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들켜버리는 건 좋지 않다는 뜻인 듯.

예를 들어 가문의 후계자라는 중요한 입지에 놓인 인물의 수명이 30살까지밖에 안 된다는 위태로운 사실을 다른 가문에게 들켰다 치자.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제일 먼저 결혼부터 못하게 되지 싶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이른 나이에 죽을 사람과 귀한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어 하겠어? 나 같아도 안 시킨다. 또, 후계자 자리를 다른 형제에게 뺏기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질 인물에게 가문을 왜 맡기겠나. 나 같아도 안 맡긴다.

확실히 루이스 같은 인물들은 먹으면 안 되는 비약인 듯. 만약 루이스가 저 훌륭하게 제조한 비약을 마시고서 펑! 하고 변신했는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닌 20대나 30대의 젊은 모습이라면 꽤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마리의 말에 십분 동의했다. 저런 건 우리 주인님 같은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 안 돼. 아처라면 몰라도.

나는 황제가 지금이라도 부디 그 ‘만든 이가 먹어라’고 했던 지시를 철폐해주길 간곡히 빌었다. 우리 마음씨 착한 주인님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장차 가문을 이끌어가야 할 인물들에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투영의 비약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폐하께서는 다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지만 나는 그래서는 안 됐다. 루이스를 위해 빌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 비는 것이 옳았다. 차라리 그가 마시는 게 이후 벌어질 일보다는 백배고 천배고 더 나았을 테니까.

“각 학생의 조수들이 비약을 마시는 것입니다.”

“ !”

“뭐 ? 우리가!”

“맙소사, 우리가 투영의 비약을 먹어야 한다고?”

창가 측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귀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던 귀족 조수들은 아주 난리가 났다. 비싼 재료가 듬뿍 들어간 최상급 비약은 살면서 먹어볼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하필 지금 같은 순간에 그런 기회가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는 안 했다. 저들이라고 자신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를 알고 싶겠는가? 게다가 저들 중에도 가문의 후계자가 있을지 모를 일인데. 물론 마법사 가문에서 나고 자란 대학의 학생들보다야 못한 입장이겠지만 말이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보여야만 했다. 턱이 반사적으로 아래로 뚝 떨어지며, 이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 내가 저걸 먹는다고? 왜! 왜 그래야 하는데!?

“맙소사 이건 거짓말이야.”

옆에서 마리도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양 뺨에 손바닥을 댄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혼돈의 카오스라는 것인가.

졸지에 궁금하지도 않던 자신의 수명을 알게 될 상황에 놓인 모든 조수들은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그런 티를 최대한 내지 않기 위해 다들 표정으로만 기겁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대놓고 황제폐하께 ‘이건 안 됩니다! 결사반대요!’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귀족들이라 해서 불경죄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음, 불경죄 앞에서는 천민이든 귀족이든 만인이 평등하군.

어쨌거나 나는 영 찝찝해졌다. 내 수명 따위 별로 안 궁금한데. 게다가 나는 정체불명의 살인마법사에게 언제 어떻게 목숨을 위협 당할지 모르는 입장이 아니던가?

만약 저 비약을 먹었는데 남들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할 때 나 혼자만이 연분홍색의 조수복을 떡하니 차려입은 꽃다운 청춘의 18살이라면 세상 마음 아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인상을 살포시 찡그리고 있자니, 야속한 사회자는 계속해서 대회를 진행했다.

“부작용을 고려해, 투영의 비약이라면 응당 나야 할 ‘보랏빛’이 돌지 않는 시약을 제조한 학생과 그 조수는 이번 심사에서 제외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이번 시약 제조 대회에서의 점수가 없습니다.”

“앗, 아아 ”

“휴우 ”

탄식 소리도 튀어나오고, 안도의 한숨소리도 튀어나온다. 탄식은 학생일 테고, 한숨은 조수의 것이겠지. 차라리 저런 조수들이 부럽다고 생각하며 루이스의 짙디짙은 보라색 비약을 노려보았다. 왜 그렇게 잘 만든 거니? 엉엉, 이 몹쓸 주인님아. 꼭 나를 이런 시련에 빠뜨려야만 했어? 했냐고!

“그럼, 보라색 시약을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한 학생들과 해당 조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수들의 타들어가는 마음 따위는 알고 있지도,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야속한 사회자의 한마디. 결국 나와 아도라, 마리는 똥 씹은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이디아 조지아의 얼굴을 몰라서 미처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마리가 모시는 아가씨도 시약 제조에 성공한 모양.

하아, 어째 우리들 인생은 죄다 이 모양이라니. 백 명 가까이 되는 숫자의 학생들 중에 약 스무 명 정도만이 무대 앞으로 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스무 명에 우리들의 주인님이 다 해당될 건 뭐란 말인가. 어쩜 이렇게 재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주인님만 둔 우리 트리오일까. 한숨을 푹푹 쉬며 아도라와 마리의 뒤에 숨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마냥 앞으로 향했다. 흑 꿀꿀.

황족들이 위치한 무대보다 낮은 위치인 무대 앞, 이 앞에 모인 학생들 중 한 명인 루이스가 나를 쳐다본다. 왠지 조금 미안해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바라봐도 네가 성공해버린 시약이 어디로 뿅! 하고 사라져주는 건 아니잖니? 마음 아프니까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줄래?

“그럼, 지금부터 투영의 비약이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겠습니다. 조수들은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뛰어난 주인님을 둔 이들만 괴롭다. 제조에 성공한 주인을 두지 않은 조수들은 잔뜩 안심한 표정으로 창가의 테이블 의자를 끼고 앉아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심사위원석을 앞에 둔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좋겠다, 여유로울 수 있어서.

이곳에 끌려나온 조수들은 죄다 끌려나온 돼지처럼 썩어 들어간 표정을 하고서 일렬로 모여 섰다. 이제 차례로 저희들의 목을 치면 되는 겁니까? 차라리 도살해주십시오, 예?

“각 학생들은 제조한 시약을 조수들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마시게 한 뒤, 변신 결과를 보고 심사하려나 보다. 이어진 사회자의 말에 루이스가 나를 힐끔 보더니 자신이 만든 비약을 내려다본다. ‘이걸 마시게 해도 될까 ?’하는 표정으로 고민하는 것 같던 그가 내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창가 측 귀족들 사이에서 ‘루이스의 조수가 쟤야? 못 보던 얼굴인데?’하는 대화가 튀어나오는 게 들린다. 응, 나야. 루이스의 조수는 나야 나, 나야 나!

그리고, 이어서 ‘그럼 별로 오래 살 팔자는 아니겠네.’하는 뒷말도 들려왔다. 아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렇지? 빨리 그렇다고 해줘

하.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필이면 왜 내가 루이스의 조수가 된 것일까. 새삼 눈물이 나려 한다. 주륵.

주변을 둘러보니 아처 놈도 있었다. 저 망한 것 같은 비약은 왜 심사 받겠다고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보랏빛 도는 비약이긴 하니까 심사받을 자격이 있는 모양이었다. 피에르가 썩어 들어가는 표정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로 그에게서 플라스크를 받아든다. 너나 나나, 인생 참 안습이로구나.

란은 아도라에게 플라스크를 건네고, 마리는 처음 보는 얼굴인 이디아 조지아에게 플라스크를 건네어 받는다. 이디아 조지아는 얼굴에 주근깨가 꽤 많은, 예쁘진 않지만 수수하게 귀염상인 얼굴이었다. 키 크고 주근깨 많은 마리 같은 느낌이랄까?

어쨌거나 다들 플라스크를 주고받은 후 학생들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나와 루이스, 그리고 류이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조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눈썹을 찌푸린 채 조수들 틈에 끼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눈치였고, 다른 한 명이자 내 주인님이기도 한 루이스는,

“마시기 싫으면 말해, 아샤.”

라고 말하며 내게 플라스크를 건네주지 않고 있었다.

아까까지는 나나 피에르나 같은 신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 우리 주인님은 아처 같은 놈보다는 좀 더, 아니지. 훨씬 인간미 있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피에르와 나는 비슷하기는 해도, 썩 같지만은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피에르에겐 안 된 얘기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었다. 내 주인님이 나를 잘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점이 말이다.

근데 주인님아. 너, 그거 아니? 그래서 더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

샹들리에 빛으로 인해 반짝이는 루이스의 금발과 빚은 듯 아름다운 그의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온다. 키도 빌어먹을 만큼 큰 이 남자는 자신보다 한참은 작은 내 앞에 서서 ‘싫으면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괜히 심장 떨리게.

그런다고 내가 안 할까봐?

사실은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안 마시겠다고 하면, 루이스가 이번 심사를 포기해버릴 것 같으니까. 결심했어.

입가에 싱긋이 미소를 걸어 올렸다. 내 미소를 보고 루이스가 살짝 당황한다.

“주세요, 그거.”

까짓 거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걸 먹고 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는가? 대학 내에서 비명횡사당할 걱정은 접어도 될 테니 말이야.

이런 비싼 비약을 먹을 일 따위 내 인생에 절대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참에 먹어보기도 하고. 역시 세상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 몸값보다 비싼 비약을 먹게 될 날이 오다니 말이야.

귀한 보약이라도 먹는 셈 치자, 라고 생각하며 루이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영 주기 꺼려진다는 표정으로 망설이는데, 주변에서 지켜보는 눈동자들이 너무 많았다. 사회자를 포함해서.

덕분에 이런 식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루이스가 망설이던 것을 그만두고 내게 플라스크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들었다. 흐음, 색깔 좋고.

내게 시약을 건네준 루이스가 뒤로 빠지고, 이제 남은 건 류이였다.

“류이 황자께서는 조수가 없으시니, 다른 학생의 조수가 자리를 대신하도록 ”

“잠깐, 멈추게!”

응? 이건 웬 뜬금포람.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듯이 내내 생글생글 웃으며 류이를 지켜보던 샤를린 황녀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계단을 밟아 무대 아래로 내려온다. 황제를 비롯한 나머지 황족들이 ‘저럴 줄 알았다’하는 표정으로 샤를린을 쳐다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 대체 뭘 하려고?

모두가 황녀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당당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외친다. 황제 핏줄 아니랄까봐, 과연 목소리는 우렁찼다. 이 세계엔 기차도 없는데, 뭘 삶아먹은 것이지?

“류이 황자의 시약은 내가 먹겠다!”

류이의 환심을 사려고 나선 건 분명한 듯한데, 무대 아래로 내려와 볼에 홍조를 띤 채 저리 말하는 황녀를 바라보고 있는 류이의 표정을 해석해보자면 한마디로 과유불급 그 자체. ‘왜 나댈 데 안 나댈 데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러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황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란

사랑에 빠지기 직전의 이가 보일 법한 눈빛은 확실히 아니었다. 가망이 없는 짝사랑 같은데, 저거.

“하지만 황녀님, 부작용도 고려하심이 ”

“그리 하라.”

사회자가 만류하려는데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버렸다. 사회자가 ‘에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황제폐하를 향해 ‘예, 폐하.’라고 대답하더니 진행을 계속한다.

“그럼, 류이 황자의 시약은 황녀전하께서 대신 드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녀가 뿌듯해하는 표정으로 류이를 쳐다보는데, 그 시선을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류이 잘난 남자의 인생도 참 고달픈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조수들이 나란히 선 일렬의 줄에 황녀가 난입한다. 끄트머리에 가서 서도 될 법한데, 굳이 정중앙에 끼어든 그녀로 인해 조수들은 한 발짝씩 옆으로 비켜서야만 했다.

윽, 신종 민폐인가.

그런 황녀에게 류이가 짜증을 애써 억누르는 표정으로 플라스크를 건네고, 그런 그와는 반전될 만큼 사랑에 푹 빠진 얼굴을 한 황녀는 그것을 받아든다.

이제 모든 조수들―과 황녀를 포함해―이 시약이 든 플라스크를 하나씩 들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럼, 조수분들께서는 시약을 마셔주십시오.”

사회자의 한마디가 떨어짐과 동시에, 나를 비롯한 모든 조수들은 플라스크를 들어 올려 입가에 갖다 댔다.

그리고 들이켰다.

흠? 비약의 맛은 살짝 걸쭉한 감기약 같았다. 굳이 맛을 표현하자면 포도맛 감기약? 주변의 다른 조수들이 시원하게 원샷을 때려버리기에 나도 플라스크 안의 내용물을 모조리 마셔버리긴 했는데, 뒷맛은 약간 써서 인상이 저절로 찡그려졌다.

딱히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느낌인데. 다 마신 후, 입맛을 다시며 텅 빈 플라스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바로 트롤의 심장과 페리드의 뿔을 녹여 만든 비약이라 이거지? 그런 것치고는 너무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 난생 처음 먹어본 비약의 맛에 솔직히 조금 놀랐다. 이 정도면 설탕을 탄 건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 혹시 트롤과 페리드에게 당뇨라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듯.

그나저나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끓는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겉모습이 변하지는 않았다. 주변의 다른 조수들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였다.

헉. 설마 다 실패인 건 !?

펑!

“응 !?”

화들짝. 제일 먼저 ‘펑!’하는 보랏빛 연기가 터짐과 함께 변신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마리였다.

하필이면 나의 바로 왼쪽에 서있던 마리부터 변할 건 뭐란 말인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마리에게로 쏠린다. 나한테 쏠린 건 아니라지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마리의 바로 옆에 서있는 입장이었기에 내 몸이 괜히 경직돼버린다.

“이디아 조지아의 조수, 마리 블러셔 양에게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났군요. 비약의 반응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놀라운 제조 실력이에요.”

사회자가 칭찬하고, 심사위원들은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깃펜으로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좋은 평가겠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일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은 바로 이디아 조지아의 조수인 마리였다.

“흐어엉 ”

마리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것도 꼬부랑 할머니가.

그것도 지팡이가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모양인지, 마리는 변신한 후부터 본능적으로 내 팔을 덥썩 붙잡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도 쏠려오는 것이다. 일단 그건 둘째 치고, 지금 마리의 모습

너무 할머니 같다! 아니지, 그냥 할머니인가?

잔뜩 울먹이는 표정으로 마리, 아니지 마리 할머니는 나를 올려다봐온다. ‘어떡해? 아샤 ? 너무 쪽팔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보태어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었기에 마리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사실 할머니가 된다는 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노년 모습을 들키게 되는 건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닐 거다.

이건 뭐, 거의 실험체 수준인데? 왜 조수들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겪어야 하는가!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며 마리를 토닥여주다가 원망스러움을 담은 눈초리로 루이스를 노려보았다. 때마침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루이스는 미안하다는 듯 내게 슬며시 미소지어왔다. 그, 그렇게 웃으면 누가 용서해줄 줄 알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옆에서 ‘펑!’하는 소리가 터진다. 이번에도 보랏빛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데 이번엔 누구!?

“!”

고개를 옆으로 돌려 확인해보니,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연달아 펑! 펑! 펑! 하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대여섯 명의 조수들이 일제히 변신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니

“아, 시약 제조에 착오가 있었나보군요. 스트로베리 마카롱의 조수 콘 프라이트가 사자로 변신했습니다! 토베 한손 학생은 제조 순서를 헷갈린 모양입니다. 투영의 비약이 아닌 투명의 비약이 제조되었군요. 조수인 무 민이 투명인간이 되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벼, 별별 실수가 다 터져 나오는구나 사자와 얼룩말에 이어, 투명인간으로까지 변신해버린 지금의 상황이란 참, 어이가 없다는 말 한마디로도 표현이 불가능.

이어서 피에르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개구리로 변신했을 땐, 흡사 이곳이 동물원인지 생태계의 한 일부분인지 분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실패한 비약은 동물로 변신하게 되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갖가지 동물과 파충류들로 펑! 펑! 하는 소리들과 함께 변신하기 시작한 게 아니겠는가.

그럼 그렇지. 아처 따위가 비약 제조에 성공할 리 없었어.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피에르를 노려보는 아처 놈의 면상이 눈에 들어왔다. 지가 실패해놓고 조수인 피에르는 왜 노려보는지 모르겠군.

꼬부랑 할머니가 된 마리가, 내 손을 붙잡은 채 다리를 달달 떨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내게 소곤거리며 한마디 건네어 왔다.

“ 투영의 비약 약효는 한 시간이야. 난 차라리 다행이다, 제대로 변신해서.”

이가 빠지고 없는 듯, 많이 새는 발음이었지만 알아듣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끄덕. 나도 동감해, 마리.

동물이나 파충류가 된 채 한 시간동안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늙은 모습이더라도 차라리 사람인 게 낫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자니, 다들 펑펑거리는 소리와 함께 꼬부랑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동물로 변신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도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숙취인가?’싶은 느낌으로 니글거리는 느낌이 들끓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루이스가 설마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내 오른쪽에 서있던 아도라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변신했다.

그녀가 변신한 모습은

“ 호, 홀홀 ”

“아, 란의 조수 아도라 페일리아가 변신했군요. 완벽히 나이든 노인의 모습입니다. 투영의 비약이 성공적이었나 보군요.”

!

앞선 마리의 변신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였다. 나와 할머니가 된 마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도라는 열 손가락에 모두에 무거워 보이는 반지를 끼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세어버린 데다, 마리보다 허리는 꼿꼿이 편 채 서있을 수 있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정신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건 그녀가 입고 있는 요란하리만치 화려한 드레스와 머리 위에 쓰고 있는 왕관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다. 헐, 뭐야. 이거 설마 !

“아, 아도,”

“우리 손녀 왔는가 ? 할미가 맛있는 걸 주려고 챙겨놨지. 자 ”

“ !?”

치매냐-!!!

나는 아도라의 손녀가 아니란 말이다. 나는 당신의 손녀가 아니라고요, 할머님! 패닉에 가까운 표정으로 아도라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주변에 서있던 얼룩말과 사자, 개구리들이 우리들의 광경을 말간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더불어 아도라가 나의 양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꼬옥 붙잡아오는데, 그런 덕분에 구경꾼 귀족들을 포함한 수많은 눈동자들이 내게로 향해오는 것이 느껴져 나는 허둥지둥 그 손을 빼려 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미를 피하는 것이야 ?”

아도라가 저리 말하며 글썽글썽한 눈망울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으아아아! 왜 사람을 패륜아로 만드십니까. 나는 분명 아도라의 손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

“그, 그게 아니구요 ”

나 왜 존댓말 하니? 젠장!

“할미가 맛있는 땅콩 챙겨왔단다. 자, 먹으렴 ”

아도라는 품 안에서 웬 호주머니를 꺼내는가 싶더니, 그 안에서 아몬드를 꺼내어 내게 내밀어왔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에게 받는 아몬드라니, 어디선가 많이 본 전개가 아니던가?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생각에, 나는 그녀가 건네준 한 움큼의 아몬드를 받아든 뒤 슬그머니 코 가까이로 갖다대보았다.

아악- 초코냄새 나잖아! 이거 그거지? 그렇고 그런 아몬드 맞는 거지!?

“괘, 괜찮아요, 할머니. 전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이 분께 주시는 건 어떨까요?”

“뭐어? 아샤, 너무하잖아 !”

옆에 서있던 마리를 가리켜보였더니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외쳐온다. 아도라가 할머니 마리를 향해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은 누구 ?’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문득 사방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 주위를 둘러보니 변신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황녀뿐이었다. 나나 황녀나, 어리둥절하단 눈빛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본다.

뭐야. 나 왜 변신 안 해? 몸에서 펑! 하는 소리도 안 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설마 실패인가? 하지만 루이스가 실패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니었던 듯, 사회자가 입을 열었다.

“유일하게 변신하지 않는 조수는 딱 두 명,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인 아샤와 류이 황자의 조수 대타로 나온 샤를린 황녀 전하십니다. 비약의 반응이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보는 것으로 ”

“앗!”

황녀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짧게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사회자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갑작스레 변신해버렸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황녀!”

“샤를린!?”

황녀는 변신했다.

할머니가 아닌 젊디젊은 모습의 아줌마 황녀였냐고? 차라리 그런 거라면 다행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였다. 덕분에 무대 위에서 이쪽을 내려다보던 황족들이 깜짝 놀라 황녀의 이름을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류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는다. 나는 새삼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 손바닥 하나에 얼굴이 다 가려지는 모습이었으니까. 저 남자, 대체 머리가 얼마나 작은 거야? 이쯤 되면 류이라는 사람은 나란 존재와는 다른 종족인 게 아닐까 싶어지는데.

“화, 황녀! 괜찮은 것이냐, 저거!?”

하나뿐인 따님한테 ‘저거’라니요

황제가 다급히 황녀를 향해 삿대질하며 외치듯 누군가에게 물었다. 옆에서 시종장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황제에게 속삭이는데, 아마 ‘비약의 약효는 한 시간이니 괜찮을 것이옵니다, 폐하’같은 대답이 아닐지를 감히 예상해본다. 황제의 순간 시퍼래졌던 안색이 금세 원상태로 돌아왔으니까.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있던 황후나 황자들은, 죄다 가릴 것 없이 놀란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게, 황녀는 오크로 변신했다. 그렇다. 몬스터 ‘오크’ 말이다.

“화, 황녀 전하께서는 몬스터로 변신하셨습니다. 동물도 아닌 몬스터이니, 실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류이 황자께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군요 ”

사회자도 뭐라 쉽게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황녀의 상태를 설명한다. 힐끔 류이의 표정을 바라보니, 결과물은 안습이지만 황녀를 골탕 먹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나름 이득이군–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나 황녀가 싫은 거니? 뭐, 싫을 만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크는 좀 너무했다고, 못된 황자님아.

하지만 류이라고 해서 샤를린 황녀가 저 비약을 먹겠다고 나설 줄 알았겠는가. 당연히 아닐 테지. 게다가 류이 황자의 비약 제조 실력이 저렇게까지 최악 수준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오크 특유의 가쁜 숨소리가 진지한 분위기로 인해 고요한 장내를 울린다. 바로 황녀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숨소리였다.

오크로 변신했다지만 정신은 멀쩡한 황녀였기에,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듯 코를 틀어막는다. 하지만 숨을 안 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결국 눈으로만 보았던 텍스트적 표현인 ‘쿰척쿰척’이 어떤 숨소리인지를 직접 들려주는 듯했던 황녀는 수치스러움을 참는 것을 포기하고 장내를 뛰쳐나갔다.

“오크오크! 오크크!”

하는 이상한 말을 내뱉으면서 말이다. 오크족으로 변신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구나. 심히 안타까운 황녀의, 아니지. 오크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그 뒤를 다급히 둘째 황자로 추정되는 이가 따라 쫓아가는 것과, 그 뒤를 이어 호위 기사들이 줄줄이 장내를 빠져나가는 것까지 구경한 후에야 대회는 계속되었다.

황제와 황후의 표정은 가히 똥 씹은 표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황제와 황후한테 완전히 찍혀버린 것 같은데, 류이. 아무래도 프란치아의 사윗감이 되기에는 글러먹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거에는 코딱지만큼의 관심도 없었을 그는, 이런 결과가 매우 마음에 든다는 듯 입가에 눈치 채기 힘들 만큼의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런저런, 저거 완전 나쁜 남자잖아? 아무리 얼굴이며 몸매가 탈인간 급이라지만, 황녀는 저런 남자의 어디가 그리 좋다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기세로 구애하는 것인지. 내가 황녀라면 절대로 안 그런 어, 뭐야. 내 간이랑 쓸개 어디 갔지? 따란! 류이에게 빼주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 명만이 남았는데요 어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쯤 되면 실패작으로 간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사회자가 말한다. 그제야 나는 저 말이 나를 향한 대사임을 깨달았다. 헐, 그러고 보니 아직도 나만 반응이 없잖아?

뭐지, 왜 이런 거지. 투영의 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에, 나는 잔뜩 당황한 눈빛으로 눈동자를 우왕좌왕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다시피 한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니. 게다가 뱃속에서 부글거리던 이상한 느낌까지도 사라져버렸다. 설마 했던 실패가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 설마 했던 주인님이 이걸?

루이스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그 옆에 서있는 란 녀석의 표정은 늘 그렇듯 읽을 수 없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무표정에 가까웠달까. 그 옆에 서있는 류이의 표정은 뭐, 황녀를 쫓아내어 기뻐하던 기색은 이젠 온데간데없고 나를 빤히 응시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눈빛에서 묻어나오는 걱정이라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더 부담스러워졌어. 댁은 일단 내 간이랑 쓸개부터 돌려내라고.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루이스 레플리카의 시약은 완전 실패한 것으로 ”

사회자가 결론을 내리려 했다. 앗, 그건 안 되는데! 내 수명에 대해 알고 싶은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루이스가 대회 성적을 훌륭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 대립되는 마음이 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순간, 그걸 눈치라도 챈 것인지 마치 ‘이 때다!’하는 느낌으로 스파크가 튀듯 내 몸 안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앗 !”

눈을 질끈 감았다. 모, 몸이 뜨거워! 갑작스럽게 뱃속에서부터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는 감각에 놀라기도 잠시, ‘펑!’하는 소리가 터졌다. 바로 내 몸에서부터 난 소리였고, 더불어 사방에 보라색 연기가 자욱해졌다.

이, 이게 바로 변신인가! 캐릭캐릭 체인지, 애뮬릿 하 ! 가 아니고.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연기 속에 가려져있는 나는, 내가 어떠한 상태로 변신하긴 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거울이 없어 알 수 없었다.

보랏빛 연기가 차츰 허공으로 날아가 흩어지고, 내 모습이 수많은 이들의 눈앞에 공개되었다.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기 한 시간 전의 모습은 과연 어떤 행색일까?

궁금하면서도 조금은 마주하기 두려운 사실을 직시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이들의 반응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새하얗게 질려버린 루이스와 류이의 얼굴. 그리고 당황한 듯 입술을 스르르 벌리고 있는 란의 모습이었다.

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기에, 저들이 저렇게까지 경악한 표정을 짓는단 말인가?

놀란 것은 비단 그 세 명뿐만이 아니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내 수명에 대한 얘기들인 듯했다.

나는 옆을 돌아보았다.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군댈 때, 나는 내 모습을 알 수 없어 마리에게 물어보았다.

“나, 몇 살로 보여?”

“아, 아샤 ”

내 물음에, 할머니 마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울리려고 물어본 게 아닌데, 마리의 반응에 나 또한 당황했다. 뭐, 뭐야. 내가 어떤 상태로 변신했기에, 다들 이런 당혹스런 반응을 보인단 말인가.

내 팔을 붙잡은 채로 훌쩍거리며 엉엉 울기 시작한 할머니 마리를 끌어안다시피 한 채,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다 말고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깨끗하다. 주름 하나 없고, 검버섯 하나 들지 않는 새하얗고 젊은이의 손. 그제야 나는 왜 주변의 반응이 이리도 서늘해져버렸는지를 깨달았다. 동시에 내 심장도 서늘해지다 못해 차가워지며, 어디론가 아래로 ‘쿵’하듯 꺼져버리는 감각을 느꼈다.

“아니, 저건 !”

황제가 소리치는 것이 들려 왔다. 황제폐하께서 나를 향해 소리치시다니 ?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 아연한 표정으로 무대 위를 올려다보는데, 다른 이들만큼이나 기겁한 표정으로 황제가 나를 가리켰다.

“어째서 저 아이가 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냐!?”

황제가 외치듯 말한다. 나는 그제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다보았다. 웬 드레스였는데, 프란치아의 드레스는 확실히 아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복색이지? 왼손으로는 마리를 부축한 채, 오른손을 들어 옷소매를 확인해보았다. 나풀거린다. 프란치아의 드레스 소매는 이렇게 넓지 않다. 게다가 레이스로 치렁치렁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옷소매는 아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복과 고려시대 옷을 섞어놓은 듯한 디자인의 비단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대체 이게 무슨 옷이란 말인가. 그리고 죽기 한 시간 전의 나는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지? 황제는 왜 저리 놀라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매만져보았다. 원래의 내 피부와 다를 것 없이 탱탱하고 젊은 그 피부의 감촉에 나는 크게 울적해졌다. 울적해졌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듯 치솟아 오르며 눈물이 고이려는데, 누군가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류이였다.

이번 생에도 꽃다운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라니. 믿기 어려운 현실에 두 눈에 그렁그렁 고였던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이런 많은 이들이 보는 앞,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는 것은 전생에서도 그렇고 이번 생에서도 그렇고 난생 처음이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도 얼마 못 살 거라는 내 목숨에 대한 슬픔이 더 커서, 나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다. 이 세계에서 태어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인물에게 참 많이도 얻어 맞았었다지만 단 한 번도 운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구슬피 우는 것은, 이곳에서 태어나 살아온 내 18년 삶 중 처음이었다.

“아샤.”

그가 이름을 부르는가 싶더니, 내 양 어깨를 붙잡아왔다. 순간 보았다. 류이의 눈동자에 불꽃을 닮은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그가 옆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진!’이라며 화난 목소리로 외쳐 부르는데, 아무것도 없던 허공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며 나타나더니 이내 진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아까 전 황제에게서 건네받았던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다시 류이가 받았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었는데

“ !”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차려입고 있는, 바로 이 옷이었단 말이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전에 뭐라 했더라? 황제폐하께서 분명 이 옷을 ‘이틀 뒤에 있을 파티에서 입으라’고 하사했지 않았던가.

그렇다는 건, 이틀 뒤에 있을 파티에서

“제,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류이에게 물은 한마디였다. 이 때, 루이스가 갑작스레 나와 류이가 서있는 이곳까지 빠르게 걸어 다가왔다. 그리고는 류이의 옆에 서더니, 황제폐하가 계신 무대 쪽을 향해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루이스의 표정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이번에도 역시 ’하는 자조적인 눈빛으로 가득한 그의 표정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을 쓰라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쓰라릴 수도 없었다. 이미 내 마음속은 머지않은 죽음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다른 감정이 들어설 틈이 없었으니까.

“황제폐하. 무례를 범해도 되겠습니까?”

정중한 물음에도 슬픔이 섞여 있었다. 도저히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내비칠 수 없게 만드는 그 목소리에, 황제폐하는 당혹감 서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루이스가 류이의 손에 들린 상자를 뺏다시피 가로챘다. 그리고는,

화르륵-!

“ !”

그대로 불태워버렸다. 사방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황제폐하께서 하사하신 옷을 !’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지만, 황제는 분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만하다는 표정이었다.

재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드레스였지만,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투영의 비약을 먹고 변신한 모습이기에 2차적인 변화는 없는 모양. 루이스가 드레스는 없앴다지만, 여전히 비약을 먹은 나는 젊다 못해 어린 얼굴 그대로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 드레스를 태우고 다른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닐 거다, 라고.

“그 아이가 유이 황자의 파트너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황제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맥 빠진 목소리로 류이에게 묻는다.

류이는 황제폐하 쪽을 향해 ‘예, 폐하.’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와, 내 두 눈동자를 응시한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못하게끔 너무 빤히 쳐다봐오고 있어서, 덕분에 나는 그에게 여전히 양 팔을 붙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씁쓸하고도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류이. 슬쩍 시선을 피해 옆으로 돌려 보니,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한 채 나를 바라봐오고 있었다.

으응? 죽게 될 건 나인데, 왜 니들이 더 호들갑이니? 누가 보면 벌써 장례 치르고 있는 줄 알겠다.

눈물이 멎었다. 모두가 동물 아니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했는데 나 혼자만이 젊은 모습 그대로 변신해버린 지금 같은 와중에도 웃음은 나나 보다. 우스웠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습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다.

내가 죽는다면 아무도 슬퍼해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고작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이렇게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옆을 돌아보니 마리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었다. 아도라는 뭔지 이해가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 그저 슬픈 분위기인 것 같으니 자신의 손에 낀 반지 열 개를 모조리 빼며 ‘이거 우리 손녀 줄게, 울지 마 ’라고 말하고 있었다.

웃다 말고 울음이 나오려 한다. 이러니까 더 슬프다. 진짜 죽기 직전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아, 틀린 것만도 아닌가?

“투, 투영의 비약은 성공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군요. 이디아 조지아에 이어, 루이스 레플리카. 시약을 훌륭하게 제조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 점수를 ”

“그만.”

당황한 사회자가 어떻게든 대회를 진행하려 하는데, 황제의 무거운 한마디가 떨어졌다. 꽤 진노한 표정의 황제폐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옆에 앉은 황후도 마찬가지로 심각함이 가득한 눈빛이고, 그런 표정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를 제일 많이 응시했다. 그것은 물론 프란치아의 황태자이자 제 1황자인 이도 마찬가지였다.

황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리만치 내게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황제폐하의 말이 이어졌다.

“시약 대회는 여기서 중단하지. 시종장! 긴급회의를 열겠다. 원로들을 모으라.”

단호하면서도 분노 어린 그 한마디에 사회자가 다급히 ‘시약 제조 대회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점수 공개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황제와 황후, 황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수십 명의 완전 무장한 기사들을 대동한 채 장내를 빠져나간다. 묵직한 갑옷의 쇳소리가 한동안 이어지는가 싶더니, 그들은 완전히 빠져나가버린다.

대강당의 문이 다시금 닫혔을 때, 사방에서는 이런 말소리들이 튀어나왔다.

“그럼, 루이스 레플리카의 조수가 또 죽게 된다는 거야?”

“옷을 보아하니 이틀 뒤에 있을 파티 복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틀 뒤에 ?”

“맙소사! 너무 이르지 않아?”

“그런데 저 조수, 천민이라지 않았어? 저렇게까지 감싸고도는 건 대체 무슨 이유에서 ”

“그러니까. 듣자하니 레플리카 공작께서 일부러 천민 조수를 붙였다는 말도 있잖아. 그렇다면 죽든 말든 뭐가 큰 대수라고 ”

“하여튼, 레플리카가 영랑은 마음씨가 너무 넓다니까.”

수군수군. 나더러 들으라고 떠드는 것인지 아닌지, 의도를 모를 그들의 목청 큰 수다소리. 하잘 것 없는 천민 아이면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어린 나이에 비명횡사해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정녕 저들에게 나 같은 신분 낮은 이의 존재란 그저 파리 목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인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못된 소리를 !

그 말들을 듣고 마리가 분노했다. 류이와 루이스도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떠들어대는 귀족들을 향해 거의 입 닥치라는 뜻을 담은 눈빛을―루이스는 ‘그 입, 다물어주십시오’ 정도였다―쏘아 보내는데, 그 눈빛을 눈치 챈 이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보지 못한 인물들은 여전히 나를 삿대질하며 쑥덕거리고들 있었다.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대화에 씁쓸한 미소를 입가에 걸어 올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나의 귀를 틀어막았다.

어느 샌가 나의 코앞까지 다가온 그, 란이었다.

그는 너무나도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증오 어린 표정을 한 그는, 그런 채로 내게 말해 왔다.

“듣지 마.”

놀랐다.

표정과는 달리, 의외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으니까.

“상층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 이틀 뒤에 있을 파티에서 레플리카 가문의 후계자인 네 조수가 죽게 된다면, 그건 프란치아의 제국의 수치와도 다름없다고. 듣자 하니 황실 정예 마법 기사단이 파티 당일 날 이곳에 배치될 모양이야. 더불어 대학 내부의 보안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고.”

“그렇군. 알아봐줘서 고맙다, 레오니드.”

“뭐, 별걸 다. 그런데 아샤, 괜찮아?”

“아, 네 뭐, 괜찮아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요.”

“ 안 괜찮은 모양이네. 힘내, 나도 최선을 다해 널 보호해줄 테니까.”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레오니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쩐지 시약 제조 대회장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니. 본인 말로는 실력이 없어서 참가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시약 제조 대회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에야 그 사실을 접한 레오니드가 황제와 원로들 간에 있었던 긴급회의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 자리에는 나와 루이스, 레오니드 뿐이냐고?

오, 노노. 그건 아니다.

“단지 지킨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미래가 아니야. 투영의 비약은 모든 경우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미래이니까.”

류이가 말했다. 지금의 우리들은 류이의 서재에 모여 있었다. 왜 하필 류이의 서재냐면, 이곳이 모든 학생들의 서재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자그마치 학생 기숙사 두 개를 붙여 만든 서재이자 기숙사라고 한다. 타국에서 건너온 황자인 류이를 위해 대학 측에서 특별히 만들어줬다는 듯. 루이스의 기숙사도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류이의 방에 와보니 루이스의 방은 쨉이 안 되는 그냥 궁전 자체였다.

아차, 지금 중요한 건 방이 으리으리하냐 아니냐 따위가 아니었지? 류이의 서재라는 이곳의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은 최고급 샹들리에를 멍하니 올려보다 말고, 다시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 이곳에는 나와 루이스, 란과 아도라, 그리고 류이, 마리, 레오니드가 널찍한 소파에 모여 앉아있었다. 거의 회의 수준인데. 일단 눈앞의 이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에나 집중하자고.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 봐야지요.”

류이의 말에 아도라가 끼어들었다. 마리와 아도라, 그리고 나는 한 시간이 지나 투영의 비약 약효가 끝났다. 대회가 일찍 파했기에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점심을 먹은 인물은 없었다. 한 끼 식사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은 바로 천민인 나라는 사실! 또르륵.

아도라의 말을 들은 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맞는 말이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아샤가 죽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을 줄도 아는 인간이었나? 내가 처음 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에도 실실 쪼개며 ‘넌 죽이기 쉬운 존재야’라는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씨부렸던 인간이 아닌가. 그 때의 모습과 대조될 만큼 진지한 지금의 란 모습이 적응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란 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물론,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미래를 바꾼 사례는 이 세계에 있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지만 말이야.”

지금 그거,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소리지, 그치? 그런 거지!?

불과 이틀 남았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남은 시간 말이다. 이틀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글쎄 오늘 내 기숙사에 돌아가면 유언장이나 써둘까, 하는 생각 정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다. 나도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끔찍한 사고로 인해 죽음을 겪어본 전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비교적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은 무슨. 한 번 죽어보든 두 번 죽어보든, 죽는 건 역시 무섭다. 차에 치어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죽는 건 어쨌거나 무섭다고.

살고 싶다, 나도. 내 목숨은 파리 목숨 따위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들 지금의 상황을 파훼할 수 있는 해결책이 ‘짜잔! 내가 돌아왔다.’하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또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살려주세요.”

나는 중얼거리듯 툭 내뱉었다. 사실 그리 번거로운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서 꺼낸 말은 아니었다. 단지 죽을 위기에 처한 내 입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해 입 밖에 낸 것뿐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루이스와 류이, 란들의 표정이

하듯 삽시간에 놀람으로 물들었다. 순간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줄 알았다. 단지 살려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 세 명의 남자들은 심각한 표정이 되어버렸다. 란 놈은 안경 때문에 감정 파악이 안 된다지만, 류이와 루이스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미안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

사실 류이는 내 죽음에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가 나를 걱정해줄 이유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다고 보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서도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뭐 어쩌겠는가. 아군이 많다면 일단은 좋은 거니까.

나는 뒷머리를 긁적였다. 긁적긁적. 그리고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말했다.

“저는 평범하게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서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호호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다가 죽어보는 게 소원인데요 ”

전생에서는 못해봤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직 18살밖에 안 됐는데. 저 말이에요, 남자친구조차 한 번도 못 사귀어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생, 이생 다 포함해서 말이야!

“저런.”

레오니드가 안타깝다는 듯 짧게 중얼거린다. 나는 ‘흑흑,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어필하듯 울먹거리는 표정을 해보였다. 하지만 사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나보다도 심각했다.

“그럼, 무슨 수를 쓰는 게 좋을까요?”

마리가 물음을 던졌다. 그 물음에 ‘정답은 oo입니다!’하며 자신 있게 손들어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었다. 나를 포함해서.

투영의 비약이 그렇게나 확실한 비약이라면, 나는 이틀 뒤에 죽는다. 무조건. 이 세계에서 그 비약이 예견한 미래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면서? 그럼 나는 죽는 게 당연하다. 너무나도 씁쓸하고 비통한 생각인데, 더 열 받는 건 이 생각이 결국은 현실이 될 거라는 점이었다.

어쩌면 나, 지금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는 것도 멘탈이 너무 깨져버린 탓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너무 멘붕하면 뇌가 멈춰버리는 현상도 있나 봐. 아무런 생각도 안 든다.

하아, 진짜 그냥 확 유서나 쓰러 갈까.

“그런데, 대체 누구 손에 죽게 된다는 거지?”

다들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가 저런 의문을 던졌다. 바로 류이였다. 이번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누군지 알면 진즉에 범인을 잡았을 테니까. 루이스도 모르고 류이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범인을 이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알겠는가? 당연히 모른다.

아무도 대답이 없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이전의 조수들을 죽였던 그 놈이겠죠.”

란이었다.

“그 정도 추측은 나도 해. 내가 궁금한 건, 아샤가 루이스의 조수가 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살인을 계획할 인물이 누가 있느냐는 거야.”

“어딘가에는 있으니 투영의 비약이 그런 미래를 보여줬겠지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있을 인물이 누구일지를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걸 알아낼 수 있다면, 루이스의 측근이 다섯 명이나 죽을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 참. 말본새 한 번 고약하군, 너.”

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가? 나 대신 죽기라도 작정한 것인지, 자그마치 류국 3황자인 류이에게 시건방지게 저런 말대꾸를 마구 해댄다. 불경죄가 두렵지 않나봐.

아도라와 마리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을 내게 던져오지만, 저런 걸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내 머릿속은 그리 한가롭지가 못했다. 다행히 류이가 어지간히도 대인배인 모양인지, ‘이상한 놈’이라 중얼거리더니 말을 끊었다.

이번에는 란과 류이의 스파크가 튀는 대화를 곰곰이 듣고만 있던 루이스가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란.”

"?"

루이스가 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나나 란이나 아도라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류이를 제외하고서는 다들 놀란 눈으로 루이스를 쳐다보았다. 무슨 용건으로 부른 거지? 그것도 이름을.

“언제부터 말을 그렇게 잘하게 된 거지?”

헉.

그러고 보니, 나나 아도라를 제외한 사람 앞에서 저렇게 또박또박 말한 적은 없었던가?

루이스의 질문에 란이 살짝 당황하는가 싶더니, ‘아, 으음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대답하길,

“원래 잘했어. 내가 아처 같은 멍청한 머저리 놈보다 말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빠른 태세전환이 아닌지? 흡사 이중인격이 의심되는 놈의 발언에 루이스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루이스 본인은 별 생각이 없는 듯했고, 오히려 류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란의 말에 동조했다.

“하긴, 넌 성적도 상위권이라고 들었으니까.”

“2학년들 사이에도 소문이 났습니까?”

“응. 이상하게 생긴 놈이 공부는 잘한다더라.”

“소문이 참 이상하게 났군요. 제가 어딜 봐서 이상하게 생겼다는 건지.”

란이 피식 웃으며 저리 말하는데, 나는 속으로 울부짖듯 외쳤다.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상해!’

그러나 대놓고 그리 말할 수는 없으니, 그저 아도라와 시선을 주고받는 것만이 우리가 보인 반응의 전부였다. 아도라, 네 주인님 방에는 거울이 없다니? 한 대 들여놓던가 해야겠구나. 아, 물론 들여놓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버릴 것 같지만 말이야.

루이스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린다. 무언가 말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듯, 조급한 눈빛으로 한참을 고민하는 그. 이내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어 그가 꺼내온 말은

“아샤.”

내 이름이었다. 어, 왜? 루이스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으로 말해보라는 뜻을 대신하자니, 그가 이어서 말했다.

“기사의 맹세를 맺어줄게.”

라고

“네!? 기사의 맹세를요!?”

이, 이렇게 냉큼 맺어준다 해도 되는 그런 쉬운 계약이었니? 아, 아니지 않나?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혼란이 왔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기사의 맹세와 루이스가 맺어주겠다는 기사의 맹세라는 게 다른 계약인 건 아닐까? 그리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한마디가 그걸 부정했다.

“나와 기사의 맹세를 맺으면, 아무도 네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못할 거야.”

아, 루이스 아까 전에 대회장에서 있었던 귀족들의 수군거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모양. 일순 나는 내 목숨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던 이들과 루이스의 모습이 눈앞에서 오버랩 되는 듯했다. 덕분에 그에게 살짝 감동했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감동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저걸 해석해보자면, 결국 ‘내 목숨이 곧 네 목숨이 될 테니 아무도 널 깔보지 못할 것이다’가 되는 셈이다 응? 내가 아는 그 기사의 맹세가 맞잖아!?

이렇게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거였단 말인가. 이제야 번개에 스친 듯 깨달았다. 루이스는 내가 대놓고 ‘주인님, 저 죽기 싫으니까 기사의 맹세를 맺어주세요!’라고 말했어도 ‘응, 알았어.’라고 대답하며 맺어줄 인물이었다. 그랬던 것이다. 여태껏 나는 대체 무슨 삽질을 해왔던 것이지?

란을 째려보았다. 녀석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 가득해서, 나는 놈보다 더 당황했다. 뭐냐, 너. 늘 꿍꿍이속이 있는 것처럼 굴더니, 이런 때엔 너무 솔직한 반응 보이는 거 아니야? 늘 그래왔듯이 흑막인 것처럼 ‘씨익-’하며 미소 짓고 있으란 말이야. 그래야 덜 불안하다고, 넌!

이런 내 속마음은 모르고 있을 루이스가 이어서 말했다.

“맹세를 맺으려면 계약자들의 피와 마법의 힘이 깃든 매개체가 필요해. 잠시만 기다려, 내가 준비해올 테니 ”

라고 말하며 일어서려던 그. 그런데 누군가의 난입으로 인해 그의 말이나 행동은 이어지지 못했다. 루이스는 일어서려다 말고 그 목소리에 붙잡혔다.

“자살하겠다는 거야?”

란이었다.

그 말에 분위기는 물론 공기까지 싸해져버린다. 애초부터 그리 좋은 주제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었다지만,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나와 버리니 갑작스레 돌변해버리는 분위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것이 바로 갑분싸.

저리 눈치가 없다니.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라면 필시 왕따를 당했을 거야, 저 녀석은. 아, 지금도 이미 왕따지, 참.

내가 판단컨대 아싸 기질이 다분하다못해 흘러넘치는 수준인 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사실 아까도 느낀 건데, 란 녀석

은근히 목소리 깡패인 듯. 신은 저 인간에게 얼굴 대신 목소리를 주신 게 틀림없다. 근데 나한테는 대체 뭘 주신 거지? 불공평이 너무한데, 이거.

“기사의 맹세를 건 다음은? 아샤 대신 루이스, 네가 죽을 건가?”

“도련님 !”

“저기,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 루이스 님은 나름대로 아샤를 구해보려고 그런 건데 ”

“마, 맞습니다. 그리고 꼭 죽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보장이 없다고? 아도라, 언제부터 그리 멍청해졌지? 내가 말했잖아. 투영의 비약은 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틀린 미래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좋으면 무얼 하나. 그 유일한 장점으로 저리 싹퉁바가지스런 대사만 툭툭 내뱉는 것을. 아까 전에 있었던 대회장에서의 ‘듣지 마’라고 한 목소리를 떠올려본다. 상당히 듣기 좋은 달달한 중저음이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 좋은 목소리를 눈치 채지 못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내 답은 금방 나왔다.

예쁜 목소리로 예쁜 말만 하면 모를까, 놈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은 빡침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런 이유로 늘 좋은 목소리가 묻혀버리곤 했던 것이다. 음, 저놈이 떠드는 말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야.

옆에서 면박을 당한 아도라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꼬옥 잡아주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뭐지.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은 나인데, 그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있다. 어째서?

“그러니 부질없는 생각은 그만둬. 미래를 바꾼다고? 그런 건 택도 없는 소리야. 기사의 맹세를 맺어주겠다는 건 결국 대신 죽어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란은 마치 어리석은 이를 비웃듯 앞서 나온 말들에 반박한다. 맞는 말이지만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그의 말투에, 저 모든 것은 루이스를 향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서서히 나빠져 갔다. 우리 주인님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저 인간이 하는 말이 띠꺼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기분 나빠. 나는 인상을 팍 찡그린 채 란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럼, 저더러 이대로 손 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란 말씀이세요?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넌 너 대신 네 주인이 죽길 바라나?”

응?

“ 그건 !”

란의 말에 도리어 내가 말문이 턱 막혔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루이스가 나한테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이 마법 대학에 루이스의 조수로 들여보낸 것은 그의 아버지와 에스테의 아저씨였지, 루이스 본인이 아니지 않은가. 그도 그저 살인마법사에게 죄 없는 수하들을 잃은 피해자일 뿐이었다. 그런 이를, 내가 감히 미끼로 쓴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왜, 무슨 자격으로.

기실 따져보자면 현재의 모든 상황은 루이스로 인해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와 기사의 맹세를 맺는 것이 나로서는 정당한 선택지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양심이 ‘이건 아니야!’라고 외친다. 누구보다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주인님을 어떻게 감히 방패막이로 쓸 수 있겠느냐며. 나는 그런 양심의 외침에 동의했다.

절대로 안 된다. 루이스를 대신 죽이고 살아남아 남은 삶을 떳떳이 살아갈 자신 따위는 없으니 말이다.

“아니요. 그건 싫어요. 그럴 생각, 죽어도 없어.”

란이 나를 비웃는다. 마치 ‘네가? 죽기 싫어서 나와 그런 내기를 했던, 바로 네가?’ 하는 느낌으로. 안경에 가려 눈동자는 보이지 않지만, 치켜 올라간 한쪽 입꼬리며 살짝 찡그린 눈썹 등 그의 모든 이목구비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내 발언을 무시하고 있음을.

그래. 인정한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머릿속이 ‘어떻게 해야 루이스를 잘 꼬셔서 기사의 맹세를 받아낼 수 있을까?’같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지 않은가.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도 기사의 맹세를 받아내기 위한 작전의 일부였고. 그런 속물인 나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란이니까, 그렇기에 저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나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란에게 눈을 부라리며 따졌다.

“예전 같았으면 냉큼 오케이 했을 거예요. 기사의 맹세든 무슨 맹세든, 난 내 한 몸 지키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힘든 사람이니까. 루이스든 나발이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 !?”

루이스가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봐온다. 미, 미안 루이스. 미안하지만 모두 사실이고 진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내 주인님이라는 사람은 한낱 천민 신분인 나한테까지 기사의 맹세를 걸어주려고 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냉큼 이용해먹어요? 나 좋자고 주인님을 죽이고 대신 살아남으면, 뭐 ‘아싸, 개이득!’하며 기뻐하기라도 할 것 같아?”

크게 떠졌던 루이스의 눈동자가 원래 크기를 되찾는다. 류이는 뭐랄까, 이유 모를 씁쓸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봐오고 있었고 마리와 아도라는 형형하게 돌아가는 판국에 가슴 졸이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거의 반존대에 가까운 내 말에도, 란은 말투 따위는 중요치 않은 듯 요점만을 콕 집어 내게 되물어왔다. 그의 물음은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그럼 죽을래?”

“죽지, 뭐.”

나는 답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나로 인해 란 녀석이 꽤 화가 난 듯, 이를 살짝 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갈면 뭐, 어쩔 건데? 나라도 갈아버리시게? 흥.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기사의 맹세를 맺어주겠다는 루이스에겐 ‘자살할 거냐?’라고 따지고, 나한테는 ‘죽고 싶냐?’고 따지고. 무슨 수를 써도 못 바꾸는 미래라면, 기사의 맹세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죽겠다잖아요. 그렇게 결정 내렸는데, 왜요. 이번엔 다른 불만이라도 있어요?”

이 정도면 대략 아무 말 대잔치라 봐도 될 듯. 나 역시 절대로, 결코 죽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 튀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내가 죽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렇기에 내뱉은 진심 아닌 말이었으니.

란의 말대로라면 투영의 비약으로 본 미래는 바뀌지 않으니, 기사의 맹세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대신 죽이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남을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 봐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실’이라는 글자가 나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군가가 죽어야한다는 결말은 바뀌지 않는 셈.

역시,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뭐. 쓴웃음이 입가에 걸리며 마음 한편이 고요하게 내려앉는 감각을 느낀 나는 란에게 말했다.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진심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를 대신 죽이고 살아남는 것보다야

“다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죽는 게 내 운명인 거라면, 기꺼이는 못 받아들여도 그냥 받아들일 테니까.”

“ 아샤!”

루이스가 내 이름을 외쳐 불러온다. 자신은 그런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듯, 루이스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나를 바라봐왔다.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화난 표정을 짓는 건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 보는데.

“내가 그렇게 두지 않아. 전부 다 나 때문이잖아. 네가 죽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앞으로도 내 조수든, 내 기사든, 누군가가 또 죽어나갈 거라고.”

“결국은 개죽음이라는 거죠?”

“ ! 그래.”

루이스는 ‘개죽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머릿속으로는 ‘아샤에게 폄하하는 단어를 붙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 꺼려하는 눈빛이었지만, 입으로는 ‘그래’라는 대답을 꺼냈다. 아마 나를 설득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평소 잘 하지도 않던 흥분을 한 채, 격앙된 목소리로 내게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의 마음은 참 고맙고 갸륵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됐어요. 누군가를 대신 죽이고 살아남는 건 더 구차하니까.”

“아샤 !”

“어차피 가진 거 하나 없는 인생이었는걸요.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주인님도 만났고, 천민 주제에 평생 누릴 건 다 누려본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이만 다음 생이나 살러 갈래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다. 실은 무섭고 끔찍해서 달달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걸 감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깨달아가며 이들이 듣는 앞에서 말했다. 이만 죽겠다는 선언을.

루이스가 자괴감에 빠진 듯 양 손으로 얼굴을 덮어버린다. 저 녀석도 얼굴 작네, 하하.

“괜찮아요, 저는.”

실은 괜찮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곳에 들어오게 된 건 내 의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의 세계에 마리와 아도라, 루이스, 류이, 란, 레오니드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던 내 삶에 그거라도 채우고 떠나게 된 게 어디인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억이 될지 모르니까 남은 대회는 보람차게 끝내고 갔으면 싶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란의 말대로 바뀌지 않을 미래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기에 고백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저는 사실 환생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리랑 아도라는 좀 늦게 올 테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을게.”

“아, 아샤 으허어어엉!”

마리는 그야말로 대성통곡. 내 작별인사에 지금까지 꺽꺽거리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려 내버리고, 여자치고는 드문 포커페이스의 소유자인 아도라조차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이내 방울방울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으음, 친구들 눈에 눈물이 나게 하다니. 난 참 못된 사람이구나.

난처한 표정의 레오니드도 시야에 들어오고, 결국은 소파에 주저앉아 절망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는 루이스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는 것도 보았다. 또, 류이가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시선도, 또

란 녀석의 내 마음속만큼이나 공허한 안경알도.

“고마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그렇게 말하고서 혼자 류이의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너무 똥폼을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어차피 죽을 팔자인데 흑역사 하나쯤 더 추가한들 무슨 문제겠는가.

아무도 나를 뒤따라 나오지 않은 걸 보면, 류이의 기숙사에서 그들끼리 무언가 회의라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 목숨을 어떻게 해야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겠지, 아마.

하지만 전부 부질없다. 란 녀석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역사적 사실을 헷갈렸다던가 하는 게 아니고서야, 투영의 비약이 보여준 미래대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변할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아아, 인생.

“어쩌다 또 이렇게 됐지?”

역시 나한테는 마의 18세 같은 게 있나 보다. 이쯤 되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먼 옛날, 나라라도 팔아먹은 중죄를 짓고 ‘너는 앞으로 환생할 때마다 18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저주라도 받게 된 내막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니고서야, 두 번 연속으로 18살에 삶을 마감한다는 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보기엔 안 돼, 응.

기숙사로 돌아왔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침대에 벌러덩 드러눕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앞으로 죽기까지 72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아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책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종이를 꺼내고, 깃펜을 꺼내 들어 잉크를 묻혔다. 그리고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쓴 문장은, ‘주인님, 아니. 루이스 님께.’였다.

그리고 이어서 내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말로만 떠들었던 유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서 유서를 남길 사람이 가족도 그 누구도 아닌 피 한 방울 안 섞인 루이스라는 게 참 황당하지만, 그래도 나 아샤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세상을 등져버리는 건 싫다. 가족은 아니라지만 뭐라도 남기고 떠나야, 남은 사람들이 나를 더 오래 기억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다.

루이스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언젠가 레플리카 공작위를 이어받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니. 아주 금방 나를 잊어버리게 될 테지만 그래도 쓰자. 조금만, 1일이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더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루이스를 향한 말로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주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음 생에서는 천민 말고 부잣집 딸로 태어날 테니, 같이 독서 같은 고상한 취미나 즐기자구요.’ 같은 내용을 썼다. 유서치고는 너무 해맑은 분위기로 가득해서, 지금 내가 유서를 쓰고 있는 건지 편지를 쓰고 있는지 살짝 헷갈릴 정도였다.

하지만 우중충한 것보다는 낫잖아? 내가 죽은 후, 남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은 얼굴로 이 종이를 보고 있길 바라진 않는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밝은 분위기, 산뜻한 느낌으로.

마리에게. ‘마리는 귀엽고 예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해봐. 잘 할 수 있을 거야.’

아도라에게. ‘아도라는 너무 뻣뻣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그게 네 매력이더라. 그러니 너무 주눅 들지 마. 그게 인간관계든 뭐든.’

레오니드 님께. ‘그동안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장에 들어갈 마음은 없어요.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쭉!’

류이 님께. ‘음 절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걱정을 해드리자면,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되도록 끊으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끊으세요.’

란에게. ‘ ’

“ 이 자식한테는 뭐라고 쓰지?”

술술 잘 써내려가다가, 여기서 턱 막혔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님께’를 붙였지만 유일하게 존칭을 붙이지 않은 것도 란뿐이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 건방진 자식에게 존대를 해주고 싶진 않았달까? 뭐 그런 심술의 일부였다.

그런데 뭐라 써야 할지 진짜로 모르겠네. 한참을 머리를 싸맨 채 끙끙거리자니,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내 그것을 빠르게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란에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는 아니다.”

끄적끄적. 휴우, 다 썼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보람찬 내용으로 잘 썼다 싶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종이를 뿌듯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슬퍼져서, 쓴웃음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아니, 딱히 평범하지만은 않은 신분이었지만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천민으로서 장사나 하다 삶을 마감할 거라 생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이리도 일찍 광탈하게 될 줄이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은 딱히 실감도 안 난다.

만약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된다면 너무 슬퍼서 아까의 마리처럼 엉엉 대성통곡이라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 슬프긴 커녕 황당하기만 해서, 이제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다. 질질 짜는 최후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전생 때도 그랬잖아? 한 방에 훅!

하고 부모님 얼굴조차 못 본 채 떠나버렸지 않은가. 아, 사실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슬프겠지만

떠나는 내 입장에서는 더 홀가분하지. 몹시 이기적인 생각이라 욕해도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싫다, 싫어.”

이번에도 결국 이 모양 이 꼴인 내 인생이 참으로도 싫어, 입 밖으로 내어 중얼거렸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기에, 한숨을 푹 쉬었다. 그만두자. 남은 시간이나 더 보람차게 보낼 궁리를 해야지, 한탄하고 있어 봐야 뭐가 달라지나.

유서도 다 썼겠다, 이제 대회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해보자 싶어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똑똑-

"?"

하는 소리로 누군가가 내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 누구지? 저렇게 다소곳한 노크라니. 뭔가 마리 아니면 아도라일 것 같아, 문을 열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샤 ”

한 뼘 아래의 눈높이에 마리가 있었다. 회의 다 끝났니?

“아아, 마리. 들어와.”

“아, 들어가기는 좀 ”

마리가 손사래를 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응? 그러고 보니, 마리는 한 번도 내 기숙사 방에 와본 적이 없던가? 나는 괜찮다며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야? 들어와서 얘기해.”

“아, 으, 음 응, 알겠어.”

마리는 거의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뭔가 평소의 마리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일어난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충격이 커서 저러는 건가 보다 했다.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온 후 문을 닫는다. 나는 중앙에 마련되어있는 자그마한 테이블과 양 옆으로 놓인 의자에 그녀를 안내했다. 마리가 의자로 다가가 앉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학생의 기숙사라면 차를 대접해줄 수 있었겠지만, 조수들의 기숙사에는 그런 도구가 없다.

한마디로 나는 마법도 쓸 줄 모르므로, 루이스처럼 찻잔을 뿅! 하고 나타나게 한 뒤 그 안의 찻물까지 만들어 제공해줄 순 없다는 뜻.

그러므로 대화나 하자.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

“얘기는 끝났어? 회의라도 하는 것 같더니.”

내 물음에, 마리가 내 눈동자를 빤히 응시해온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대답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샤.”

“응?”

“있잖아, 혹시 말이야.”

“?”

“루이스의 조수들을 죽인 사람이 이번에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그녀는 저렇게 물어왔다. 뭐야, 저 질문. 어떻게 생각하냐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뿐이지 않은가.

“천하의 개X끼지.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

“ 그렇지, 역시?”

마리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린다. 대체 저런 대답이 뻔한 질문은 왜 했단 말인가. 의뭉스러워 고개를 갸웃거리자니, 마리는 그런 나를 보며 싱긋이 미소지어왔다. 좀 이상한데.

“ 있잖아.”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른 주제의 얘기를 꺼내왔다.

“예전에, 15년도 더 전에 말이야. 아디티 제국과 프란치아 제국 간에 큰 전쟁이 있었던 거 알아?”

“응? 당연히 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쟁이 있었다는 걸 알기는 알지. 그런데, 그건 왜?

“그 때, 황제가 프란치아 제국의 어느 인물한테서 목숨을 잃었었잖아. 그게 누구인지는 알아?”

마리가 묻는다. 그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

는 게 아니네? 그러고 보니, 일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바로 마리에게서 들은 정보가 아닌가. 자신이 말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물어보는 거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건가?

“응. 레플리카 공작이잖아?”

“잘 알고 있네. 있지,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야 아디티 제국에 황자가 있는 건 알아?”

“음? 아니, 지금 처음 들어. 그런데 그게 왜?”

“죽은 아디티의 전 황제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대. 지금은 그 첫째아들이 황제가 됐고. 그런데, 남은 두 아들이 레플리카 공작을 엄청 미워한대. 죽이고 싶어 하나 봐.”

“아, 그래 ?”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의 말을 들은 후 나는 ‘흠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스토리지만, 이곳은 진정 판타지 같은 세계였다.

용이 날아다니고, 오크가 ‘오크오크!’거리며 인간들을 공격하러 마을을 습격하는 등,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완벽한 판타지 세계.

그러므로 황제가 암살당하고, 그 아들인 황자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는 것 정도야 일어날 일 없는 그리 황당한 얘기만은 아니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스토리라 생각하며, 나는 되물었다.

“그래서?”

“‘야벨’이라고, 알아?”

“야벨 어디서 들어봤던 같은데. 뭐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

끄응. 머리를 쥐어 싸매고 망각의 저편으로 묻혀버린 기억의 일부를 끄집어내기 위해 약 1분은 고심했다. 마리는 그런 나를 잠자코 기다려주었다. 이내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내 입으로는 욕설도 함께 튀어나갔다.

“아처, 그 망할 자식이 그랬었지! ‘야벨’한테 의뢰해서 나를 죽이니 어쩌니. 아, 그놈 친구가 그랬던가? 하여튼, 그 때 너랑 아도라도 함께 있었잖아.”

“아, 맞아. 아샤는 그게 뭔지 알아?”

“어? 음, 몰라.”

아주 깔끔하게 모른다. 그런 나를 위해, 마리가 설명을 시작했다.

“야벨은 마법 용병 집단이야. 의뢰를 받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용병 말이야.”

“아아. 그런데, 그게 왜?”

“그 용병단의 수장이 ‘노아 이즈하’라는 인물이야. 바로 아디티 제국 선대 황제의 셋째 아들이지.”

“ !”

호오. 꽤 흥미로운 줄거리잖아. 레플리카 공작에게서 아버지를 잃고, 그 셋째 아들이 복수를 결심해 용병단을 만들었다던가, 뭐 그런 건가?

마치 나와 1억 광년은 떨어진 이들의 얘기처럼 느껴져, 나는 ‘그렇군!’ 하는 대답을 내뱉으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마치 전생을 살 적,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 느낌이 물씬 나는데. 물론 내용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엔 더 어렵고 비극적이라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대답을 재촉하는 눈빛을 보내자, 마리가 이어서 말해왔다.

“그 노아라는 인물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응?

뭐?

쿵. 마치 머리에 묵직한 돌이라도 하나 떨어진 것 같다. 갑자기 왜 아디티 제국이니, 야벨이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튀어나오나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던 거였어!?

와, 이 정도면 더는 출타할 어이조차 없다. 이젠 하다하다 국경을 맞댄 옆 나라의 황자가 나를 죽이려 든다고? 실화인가?

황족이 무슨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하늘의 별 같은 신분의 인물들이 한낱 천민인 나와 마찰을 빚을 이유가 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아니, 진짜 무난하게 수학적인 확률로만 따져 본대도 엄청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된다고, 이거.

공작 후계자인 루이스에, 류 제국 황자인 류이에다, 이제는 하다하다 나를 죽이려 하는 인물까지도 옆 나라 황자라고!?

미친 거지, 내 운명? 아니면 돌았거나.

“ 마리. 농담이라고 해줘, 그거.”

“진짜야.”

“ 그러니까, 그 레플리카 공작의 손에 죽었다던 아디티 황제의 셋째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야?”

“응.”

마리는 끄덕인다. 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구나. 혹시라도 내 귀가 잘못된 것이길 바랐는데, 역시 이놈의 신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닌 모양이군. 제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습니까? 예? 신님아.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내가 천국이나 저승에 있었을 적에 신이 아끼는 포도주를 훔쳤다던가, 아니면 나의 치명적인 매력으로 신님의 연인과 불륜을 저지르기라도 했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할 판이다, 이 정도면.

헛웃음이 나왔다. 근처에는 류이라는 류 제국 황자가 있는데, 이제는 아디티 제국의 선대 황제 아들인 노아라는 놈이 나를 죽이려 한단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온 세계 황실 사람들이랑 무슨 기이한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데, 나.

물론 그게 좋은 인연이라고는 안 했다. 이쯤 되면 악연이지.

“그 말, 전부 사실이야?”

“완전히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하지만 가장 유력하대. 신출귀몰한 솜씨로 지금껏 루이스의 측근을 죽여 온 것도 그렇고, 그 정도의 원한을 지닌 인물로도 그렇고.”

“듣고 보니 그렇네. 꽤 신빙성 있다, 음.”

인정하긴 싫은데, 앞뒤가 딱딱 들어맞으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리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럼 그 야벨이라는 집단의 수장인 노아 이즈하라는 인물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지? 이전의 범인도 그 작자라는 거고.

레플리카 공작이 여기저기서 원한을 많이 산 게 아닌 이상, 가장 확실한 정보이자 추측 같다. 그리 생각했기에 나는 마리에게 물었다.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노아라는 사람을 잡으면 되잖아?”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아디티의 황족을 무슨 수로 잡아 들여?”

“아, 그것도 그런가.”

이번에도 납득. 그럼 결국 목을 길게 뺀 채, ‘죽여 줍쇼’하고 마냥 그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없단 말인가? 범인이 누군지 대충 알 수 있다면, 내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았지만

떠올랐다. 이전의 조수들은 모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심장마비로 사람을 죽이는 마법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극비리에 전해지는 것이라던 루이스의 말이. 게다가 아디티는 프란치아보다 더한 마법 강국이 아니던가. 비록 프란치아보단 마법사의 숫자가 적다지만, 강한 마나를 지닌 순혈 마법사의 피가 보다 많이 흐른다고 들었다. 또한 황족이라면 그 중에서도 정점을 찍는 인물이라는 것이고.

그런 어마무시한 마법의 실력자라면, 나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지 않을까? 철통같은 보안 체제에 돌입한 지금의 마법 대학을 대체 무슨 수로 뚫고 들어와 나를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투영의 비약은 절명하게 될 내 미래를 보여주었지 않았나.

결국 답은 하나다. 그 노아라는 인물이 범인이 맞다면, 나는 어찌 됐건 그의 손에 죽는다는 거.

답이 없군, 내 인생.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못 막을 죽음이라는 거잖아. 그 사람의 손에 죽는 게 내 팔자인가 보다.”

“ 아샤.”

마리는 측은하다는 시선으로 나를 응시해온다. 이제는 안 우네? 마리에게 ‘울다 웃으면 똥꼬에 털 난다!’라고 놀려줄까 생각해보았으나, 마리는 웃고 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농담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울다 웃으면 똥꼬에 털 난다’가 아니라, ‘울다 진지해지면 똥꼬에 털 난다!’로. 사실 이 세계엔 그런 농담이 없으므로 뭐라 떠들거나 바꾸든 그건 내 마음이겠지만.

마리는 중얼거리듯 말해온다.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의 손에 네가 죽게 된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라고.

어라? 마리가 저리 험한 입의 소유자였던가? 새삼 몰랐던 면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는 잠시 옆머리를 긁적였다. 흐음.

맞다. 루이스의 측근을 자그마치 다섯 명이나 죽이고,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드는 그놈은 인간 말종 쓰레기가 확실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사연 있는 쓰레기잖아?”

왜, 이런 거 만화 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가. ‘사실 알고 보면 그놈도 착한 놈이었어!’ 라던가, 아니면 ‘사실 그놈도 사연 있는 악당이었어!’ 같은 거.

물론 그놈이 사연이 있는 악당이므로 착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하는 인물인데, 착하다는 표현이 가당키나 한가?

“사연은 무슨 야벨은 프란치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깡패 집단일 뿐이야. 노아라는 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뺏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그들이 인간이야?”

내 말에 마리가 반박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로 표현하기 애매했다. 화난 것도 아니고, 증오 어린 것도 아니면서, 뭐랄까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저런 말을 할 땐, 보통 분노에 가득 차 씩씩거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아, 혹시 이건 내 편견인 것인지.

말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가 의아했지만, 일단 지금의 내게 있어 그런 건 뒷전이었다.

마리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내 답했다.

“하지만, 레플리카 공작도 그 사람의 아버지를 죽였잖아?”

“ !”

마리가 놀라며 고개를 들어온다. 흠칫. 너무 매국노 같은 발언이었나? 이래봬도 나는 프란치아 사람인데, 너무 그 노아라는 놈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어때. 나를 죽이게 될 놈 편을 내가 들어주겠다는데. 사실 들어주고 싶은 마음 따위는 1도 없었지만, 사연을 듣고 보니 그가 왜 나를 죽이려 드는지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알 것 같다는 거지, 공감한다고는 안 했다.

그의 복수가 왜 레플리카 공작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루이스의 측근을 해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목을 베어 돌아왔다면서.”

상상해보았다. 목을 잃은 아버지의 시체만이 덩그러니 돌아왔을 때, 자식 된 이의 심정이 어떨지를.

답은 나왔다. 나는 감히 상상해볼 수조차 없는 감정일 것이다. 나를 죽이게 될 인간이라지만, 그래서 몹시 밉고 증오스럽다지만, 나는 본디 그런 이를 용서해줄 만큼 마음씨 넓은 인간이 아니라지만

이를 빠득빠득 갈며 그 살인마법사를 욕한다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나는 전혀 착한 사람도, 대인배도 아니지만 지금 이렇듯 그를 옹호하고 있는 건 단지 ‘의미가 없어서’였다. 그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혐오스러워한다 해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건 결코 아니지 않은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들 하잖아?”

결국 나를 죽이게 될 인간이라지만

해탈한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슬그머니 드는 생각인데, 이대로 죽은 후 저승에 간다면 부처님이 ‘너는 내 후계자가 될 소질이 훌륭하다!’라며 극찬할 듯.

나는 마리에게 마저 말했다.

“하지만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었겠지?”

그 희생자가 나라는 게 참 새드엔딩이지만 말이다.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내게 있어 소중한 사람을 죽인 인물에게 복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다. 물론 그게 루이스를 괴롭히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쩌면 그게 그 노아라는 인물에게 있어 나름의 복수인 건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 죽게 될 내가 그를 마치 ‘불쌍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감싸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말하고 있는 본인인 내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어차피 죽을 거잖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튀어나가고 있는 주옥같은 나의 한 마디 한 마디들.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라는 대사를 쓴 드라마 작가가 나를 향해 박수 세례를 보내고도 남을 것 같다. 어쩌면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지는데.

내 머리가 어디 하루 이틀 깡통이었는가? 이젠 놀랍지도 않다.

내 말에 마리는 잠자코 나의 두 눈동자를 빤히 바라봐왔다. 왠지 평소대로의 마리 같았으면 ‘아샤, 그래도 복수는 나쁜 거야. 레플리카 공작은 어쩔 수 없었어. 그 때는 전쟁 중이었잖아 !’ 같은 말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우리의 설명충, 마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 눈만을 빤히 응시해오는 것이다.

뭐지? 이쯤 되면 평소와는 아주 많이 다른데. 마리의 모습을 한 다른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나는 자리에서 쭈뼛거리며 일어나 책상 쪽으로 향했다.

“마리, 내가 유서를 써봤는데 말이야. 너무 편지 같이 쓴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틀 뒤에 만약 내가 정말 잘못된다면, 그 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읽어줬으면 해.”

그녀에게 말하며 책상 위에 접지도 않고 고이 놓아둔 종이를 집어 드는 나. 원래 이런 건 죽은 후에 발견되어야 하는 거겠지만, 그건 몇 날 몇 시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나 그런 거고.

죽을 날짜와 시각 등이 거의 확실시된 내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주든 저렇게 발견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미리 마리에게 맡겨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유서를 두 번 접어 믿을 만한 친구인 그녀에게 건넸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나를 응시하기만 하던 마리는 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냉큼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데!?

“앗, 나중에 읽어!”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읽으라고 준 거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읽으면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황급히 도로 종이를 뺏으려는데, 그런 나를 팔을 들어 저지하는 마리.

앗, 아아 ! 지금 들켜버리면 좀 쪽팔린데. 쑥스러운 내용을 많이 적어놨단 말이다. 으아, 핵민망.

뻘쭘하게 선 채 내가 쓴 유서를 읽어 내려가는 마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걸 읽던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킥, 하며 웃은 것이다.

“?”

응? 웃어?

“정말이지 ”

이상 반응을 보인 마리가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인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평소답지 않은 마리의 행동이며 분위기에, 나는 다소 긴장한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쫘악- 쫙!

“ 엉!?”

유, 유서를 찢어버리는 게 아닌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마리가 말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만행이지? 내가 저 유서를 쓰느라 얼마나 고민, 또 고심했는지 알고 저러나? 아니, 설령 대충 ‘여러분, 사요나라!’라는 내용만 써놓은 유서라 하더라도, 그녀의 친구인 내가 이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으로 쓴 유서다. 자그마치 유서라고. 유서!

친구가 쓴 유서를 어떻게 저리 찢어버릴 수 있는 건데?

격한 황당함에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 내게,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말해왔다.

“짜증난다, 너.”

“?”

응 ?

뭐, 뭐라고-!!?

“짜, 짜 짜증난다고!?”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 그렇지? 환청이었던 거지!? 이 방에 내가 몰랐던 폴터가이스트라도 숨어 있는 건가? 폴터가이스트가 말도 할 줄 알았었나? 그랬던 거야?

우리의 착한 마리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올 리가 없어. ‘짜증난다.’니! 그것도 나한테, 그 누구도 아닌 마리가!?!?

유서를 찢는 행동에 이어, 나한테 저런 막장 대사까지 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꿈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리니, 마리가 인상을 확 찡그린 채 나를 쳐다보며 덧붙여온다.

“어쩜 이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닮았냐, 너네는.”

이라고 뭐!?

마리, 대체 지금 왜 이러는 거지? 혹시 미친 거 아니지, 설마 이게 본모습인 건가? 아니면 알고 보니 이중인격이라던가. 그런 숨겨진 설정이 있었던 건 !

“따라와.”

“!?”

마리가 갑자기 내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어디론가 이끌기 시작했다. 기숙사 밖으로 향하려는 것 같은데,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녀에게 끌려가야만 했다. 같은 여자인데 왜 뿌리치지 못하냐고? 그, 그러니까 말이다.

“마, 마리! 잠깐 !”

힘이 뭐가 이렇게 세지? 아, 아얏 ! 손목이 아파!

이 정도면 남자보다 센 것 같은데. 대체 나보다 키도 작은 애가 언제부터 힘이 이렇게나 세졌단 말인

어? 잠깐만.

“너, 마리 아니지! 누구야!”

그제야 이상함을 알아차린 내가 외치듯 물었다. 나를 끌고 가는 마리, 아니지. 마리의 모습을 한 누군가는 뒤를 돌아본다.

이 사람 잡아먹을 듯한 눈빛 ! 절대로 마리가 아니야! 나는 덤으로 외쳤다.

“손목 아프니까 적당히 잡으라고, 이 빌어먹을 자식아!”

마리가 인상을 찡그리더니 손목을 슬쩍 내려다본다. 그리고는 손에 힘을 빼며 완전히 느슨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잡힌 손목을 빼지는 못했다. 순순히 내가 도망가도록 보내줄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라, 나는 손을 빼내는 걸 포기했다. 그렇게 한동안 나보다 키가 한 뼘은 작은 조그만 체구의 여자애에게 질질 끌려가자니

갑자기 나를 끌고 가던 마리의 모습을 한 인물이 우뚝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기숙사 복도 중앙에서 난데없이 검지와 엄지를 부딪쳐 ‘딱!’하는 소리를 낸다. 어라?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지, 그 전에 이 자식은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거

“!?”

마, 마법-!!?

마리가 마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보다 더 놀라자니, 멍청한 표정으로 입을 헤벌린 채 서있는 나의 앞에는 어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다. 텔레포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새 나는 기숙사 복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 와있었다.

여기는

“양호실이잖아?”

그 때, 그 양호실이었다.

내가 류이에게 행패를 부린 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게 된 그 양호실이 아니라, 내가 이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무렵, 꼬박 하루를 누워 있었던 그곳

그래. 안경잡이에게 벽치기를 당했던, 그 때 그 장소가 아닌가!

뭐지? 헉, 설마!?

“너 이 자식, 혹시 !”

펑!

“ !?”

“야, 너.”

벼, 벼, 변신 했어-!?

아니지. 변신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역시 마리가 아니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에서 연기가 터지는가 싶더니, 연기가 걷혔을 때 나의 바로 앞에는 마리가 아닌 그 자식이 서있었다.

그래. 누구보다 내가 죽을 거라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 란 말이다.

‘야, 너’는 무슨!

“지금 저를 속인 거예요!?”

나는 황당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 덕에 자리에서 팔짝 뛰다시피 흥분하며 고래 소리쳐버렸다.

와, 이거 완전 무례함의 끝을 달리는 얼탱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젠 하다하다 내 친구의 모습으로 변신하면서까지 나를 속여?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재미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 때의 양호실로 오게 만든 건 또 뭐란 말인가. 그 때 같은 분위기라도 다시 내 보려고? 이번에도 나를 엿 먹이고 삽질하게 만들 내기를 제안하려는 건가? 응, 그래?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지금, 나는 간만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란의 앞에 서있었다. 사실, 아까 전 류이의 방에서 있었던 대화로 인해 화가 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로 고심할 때, 란만이 오직 ‘안 돼, 못 살려’라는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던가.

나도 아는데. 누구보다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말뿐만이라도 ‘그래, 우리 희망을 갖자!’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희망고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좋은 말로 격려해주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말들만 늘어놓았던 녀석이다. 나는 그래도 그간 아도라와 더불어 란과도 나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란은 가까워질 수도, 가까워봤자 좋을 것도 없는 녀석이었다. 역시는 역시 역시다. 미친놈은 미친놈일 뿐이라고.

“그래. 속였어.”

“ 하? 이틀 뒤면 죽을 사람한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그렇게 퍼붓던 독설로는 부족하신가 봐? 이런 짓까지 하는 걸 보면.”

까칠하게 쏘아붙이자니, 란은 나를 빤히 응시해온다. 늘 그렇듯 불투명한 안경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몹시도 싫었다. 아니, 늘 싫었겠지만 오늘은 유달리 싫었다.

감정이 한껏 불쾌해진 나는 그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사실 그를 향한 독설이라기 보단 나를 향한 독설 같았다.

“왜 또 찾아왔어요? 더 할 말이 남았어요? 그쪽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 애초부터 당신은 내기니 뭐니 하면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조수 자리에 놓인 나한테 그저 장난밖에 치지 않았잖아. 그쪽한테 나는 그저 심심풀이 땅콩이고 장난감이죠? 지금은 왜 또 찾아온 거예요? 뭐 하자는 건데요.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신종 장난이야?”

야벨이니 어쩌니 떠들던 것도, 다 날 놀리려고 한 소리였던 거지, 결국?

숨도 쉬지 않고 몰아붙이자, 란은 입을 꾹 다문 채 가만히 나를 내려다봐온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날 찾아온 건데?

눈빛으로 마음 속 모든 저주스런 감정을 담아 그를 노려보자니,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말해온다.

“지금이라도 말해.”

라고.

나는 목소리에 잔뜩 힘을 준 채 대꾸했다.

“뭘요?”

“그 때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그 때’라면, 란 녀석이 내기를 처음 제안했던 그 날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하필 이동한 곳도 그 때 그 장소인 이 양호실이야? 어이가 없어서.

“나 참. 제가 언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살기 싫어서 죽겠다고 했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라고.”

“그 ‘어떻게든’이 무슨 방법인데요?”

“루이스와 기사의 맹세를 맺어달라던가.”

“싫어요!”

결국 도돌이표다. 아까 전에는 루이스에게 ‘자살할 셈이냐’는 식으로 따져서 기사의 맹세를 맺는 걸 반대한 사람이, 이제는 내게 저런 요구를 해오고 있다. 뭐? 이젠 루이스와 기사의 맹세를 맺으라고?

이 자식, 미친 게 아니고서야 왜 이런단 말인가. 아니, 진짜 미친 건가?

“이상한 인간인 줄은 진즉에 알았는데.”

이젠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시나?

나는 이를 뿌득 갈며 소리쳤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사의 맹세, 난 죽어도 안 맺을 거예요!”

“어째서?”

란이 안경알을 빛내며 나를 내려다본다. 다소 위협적인 그의 태도에, 나는 몸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밀릴 수 없었다. 지금의 기 싸움에서 질 수는 없었다.

그런 건 내 자존심이 용납? 응, 못해.

“루이스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꼿꼿이 선 채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는 내게, 란은 점점 구석으로 몰아붙이듯 한 발짝씩 걸어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다. 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마치 그 때와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내 등이 벽에 닿았다. 란 놈이 내 얼굴 옆, 벽면에다 손을 올린다. 마치 부드럽게 리드라도 하는 느낌으로다가. 이것이 유일하게 그 때와는 다른 점이었다.

이제는 회유작전이냐? 내 얼굴 가까이로 고개를 숙여오는 그에게,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요. 더는 이런 주제로 할 얘기 없어.”

“나는 있어.”

놈이 내 귓가에서 속삭인다. 흐어억!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아버리는데, 나를 닭으로 만들어버린 그가 말을 이었다.

“정말 죽어도 상관없어?”

이번 건 질문인 듯했다. 나는 내 목덜미에 고개를 파묻다시피 한 눈앞의 소름 끼치는 녀석에게 짤막히 대꾸했다.

“그래요.”

내 목덜미에서 고개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난 역시 이런 므흣한 분위기, 너 같은 음험한 놈이랑은 연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루이스를 대신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꿋꿋이 내 귓가에 속삭인다. 이 눈치 없는 자식.

“ 루이스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노리는 거잖아요. 루이스의 측근만 죽여 왔다면서요. 내가 그의 측근이니까,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반대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란이 되묻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니?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에, 슬그머니 시선을 옆으로 돌려 지금껏 외면했던 란 놈의 얼굴을 쳐다보자니 그의 안경알을 딱 마주쳐버렸다. 우웩.

그러자, 란이 내게로 기울였던 몸을 원래대로 세우는가 싶더니, 내게 말해온다.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군. 이전의 조수 녀석들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자꾸 개소리를 씨부리는 거지? 지금 사람 약 올리나? 인상을 확 찡그리며 루이스만큼이나 쓸데없이 키만 큰 눈앞의 안경잡이를 올려다보자니, 녀석이 대뜸 내 손을 잡아왔다.

아악! 손목도 아니고 왜 손이냐!

“뭐, 뭐예요, 지금!?”

“같이 갈 곳이 있어.”

“전 없다고 보는데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야.”

“아니, 누구 마음대로 ”

“내 마음이야.”

딱!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는 그. 이내 공간 마법이었던 듯, ‘와장창!’하는 느낌으로 눈앞의 모든 풍경이 깨지듯 사라져버렸다. 양호실의 풍경이 사라지고 나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까 전 그 장소인 기숙사 복도였다.

“뭐, 뭐야. 저 안경 쓴 사람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어? 잠깐만.

“여기 여자 기숙사거든요!?”

학생들의 서재와 기숙사는 구분이 없지만, 조수들의 기숙사는 여자들이 쓰는 층과 남자들이 쓰는 층이 나뉘어 있었다. 왜 공간 마법을 쓰나 했더니, 이래서였군!

“아, 맞다.”

란이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황급히 내 손을 붙잡고서 복도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응? 지금 뭐하자는 거야! 왜 뛰는 건데? 아니, 그 전에. 어디로 가는 건데!

옴짝달싹할 수 없이 손을 잡혀버린 나는 대학 정문을 지키고 있는 뱁새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며 황새새끼 아니, 황새 같은 이 남자를 따라가야만 했다.

이러다 다리 찢어지겠어! 이 손 좀 놔! 멍청한 놈아!!

“ 헉, 헉.”

란 놈에 의해 날다시피 뛰며 끌려오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전시회장 앞이었다. 여긴 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마법 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해놓은 장소에, 이 녀석과 내가 함께 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그런 이유 따위, 뱁새가 아침 먹고 모닝똥으로 싼 내용물만큼도 없겠는데.

설마 데이트냐? 그런 발칙한 의도로 날 이곳에 데려온 건 아니겠지. 게슴츠레 뜬 의심의 눈초리로 놈을 응시하자니, 여전히 내 손을 붙잡은 채 당당히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우리 주인님도, 류이도 아닌 너 같은 자식이랑 이런 연인 분위기 내는 건 끔찍하다고!?

“이것 좀 놔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오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놈이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가며 저리 대꾸한다. 와, 무슨 상관이냐니? 완전 상관 많은데?

내가 왜 너 같은 이상한 인간이랑 엮여야 하냐고! 차라리 아처 놈이랑 얽힐지언정, 너랑은 세트로 묶이기 싫단 말이야!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대체? 천민이랑 안경잡이 찐따의 조합이라니.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고 수근댈까 봐 무섭다고요.”

“잘 어울리면 어때서? 너, 지금 그런 말 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무슨?”

“아까 편지에 되도 않은 내용만 잔뜩 써놨던데. 뭐? 나만 아니라고? 참 나.”

편지가 아니라 유서거든!

란이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는데, 나는 그런 그의 반응 덕분에 어이가 없어져 입을 딱 벌렸다. 이 자식은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신감만 너무 충만하단 말이지.

뭐냐? 너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

“거울이나 좀 보고 오시죠?”

“너, 예쁘다고 그렇게 막말 하는 거 아니다.”

“!?”

예, 예, 예쁘긴 누가 언제 예쁘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나도 내가 안 예쁜 거 안다고! 안단 말이다!!!

이제는 황당하다 못해 넋이라는 놈이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안녕 !’을 외치고 저 멀리 대학 밖으로 떠나가고 있다. 더불어 그런 내 넋에게 뱁새가 잘 가라고 인사해주는 상상까지도 든다.

와, 이거 완전 에바 참친데. 이 자식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우리 중 점심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혹시 어제 먹은 저녁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게 아닌지?

란 놈이 이런 캐릭터인줄은 지금까지도 몰랐다. 늘 불투명한 안경으로 감정을 숨기고 다니는 음침하고 음험한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박력을 빙자한 막무가내 성격도 지니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찐따한테 박력이라니? 비빔밥이냐? ‘버터에 김치를 싸서 드셔보세요’ 같은 거야? 이런 끔찍한 혼종 같으니라고.

“ !”

시약 대회가 일찍 끝났기에 많은 인파들이 전시회장으로 몰린 모양. 시약 대회가 일찍 파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나였으므로, 내 얼굴을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내게로 향해온다.

더불어, 란에게도.

“란 녀석이랑 저 여자애가 왜 같이 있지? 루이스의 조수 아니었나?”

“뭐야, 저 괴상한 조합은 ?”

?

끼야아악! 역시 이상하다 못해 괴상하대잖아, 미친놈아!

수근대는 소리를 듣다 보니 쪽팔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내가 그러든 말든, 란은 꿋꿋이 나를 잡아끌었다.

이곳 전시회장은 학생들의 각 작품을 고급스러운 비단을 깔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촛대 등으로 장식한 테이블 위에 전시해둔 풍경이었는데, 나는 아직 이곳을 한 번도 구경와보지 않았었기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전시를 준비한 학생 입장인 란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꽤 잘 알고 있는 모양인지, 상당히 익숙한 움직임으로 인파를 헤치며 나를 이끌고 어디론가 거침없이 향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 왜? 여길 나랑 왜!?

“아오, 이거 좀 놓 ”

란의 행동에 심기가 심히 불편해진 내가 팔을 휘두르며 잡힌 손을 빼려는데, 그가 갑자기 멈췄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듯, 어느 테이블 앞에 멈춰선 것이다. 덕분에 손을 빼려던 내 움직임은 멈추었다.

이건 ?

“뭐야, 여긴 왜요?”

“너 가져.”

갑자기 이 미친 안경잡이 놈이 잡고 있던 내 손을 놓는가 싶더니, 테이블 위에 전시된 곰 인형을 들어 올려 내 품으로 들이민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장난 나랑 지금하냐?

이거, 이 자식이 만든 꼭두각시라던 거 아닌가?

“멀쩡히 전시돼있던 걸 왜 저한테? 전시물이잖아요, 이거.”

“애초에 너 주려고 만든 거니까.”

“뭐, 뭐, 뭐라고요-!? 미쳤어요!!?”

이번엔 펄쩍 뛰다 못해 날듯이 놀랐다. 와, 이걸 나 주려고 만들었단다. 농담이지? 그런 거지? 하나도 안 재밌으니까, 빨리 순순히 이실직고

“진짜야.”

해 뭐시라?

“이걸 왜 저한테 주려고 만들었는데요?”

“말했잖아. 내 꼭두각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댁 꼭두각시를 왜 나 주려고 만들었다는 건데요!”

말귀가 어둡나? 목청 크게 소리치는 내 말에, 주변에서 전시물들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봐온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 따위가 아니었다.

혹시, 너 설마 !

“너한테 필요할 테니까.”

“저 좋아해요!?”

어라.

란이 말하는데, 거기다 잔뜩 흥분한 내가 앞뒤 분간 없이 외치는 바람에 그의 말과 거의 동시에 튀어나가 버렸다.

내 말을 들은 란의 안색이 싸늘해지며, 그는 곧바로 정색 모드에 돌입해버리는데

“네 방에는 거울 없어?”

“이, 이, 있거든요!”

거울과 관련된 대사가 내 입이 아닌, 란 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날이 다 오다니. 나는 뭐 나한테 관심 있어서 이런 인형이나 주는 건가 했지. 오해할 만했잖아!

근데, 이 곰 인형이 나한테 필요할 거란 건 대체 무슨 소리냐. 이해하기 힘든 그의 말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전시물을 올려두었던 테이블 위를 쳐다보니, 란 녀석의 작품 이름이 써진 명패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아-샤-!?!?”

내 이름이었다! 아니, 미친!? 언제 이런 짓을?

“제 이름을 왜 이런 곰 인형에다 붙여놨어요?”

따지듯 묻는 내 말에, 란이 어깨를 으쓱한다. 그리고는 내게 한다는 대답이,

“멍청하게 생긴 게 똑같아서.”

라는데. 야 임마, 뭐라고?

“본인 꼭두각시라면서, 멍청하다뇨. 자폭하는 거예요?”

“내 꼭두각시라고 했지, 나를 닮은 꼭두각시라고는 안 했잖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 말문이 막혔다. 그 전에, 잠깐.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건가?

‘아샤’라는 이름의 란이 만든 수제 곰 인형을 멀뚱히 들고 서있자니,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마리로 변신하여 내 기숙사 방에 잠입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곰 인형이나 주고 자빠져있다. 게다가 저런 뻔뻔한 대답까지 늘어놓으면서. 대체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똑똑한 인물이 내 입장에 처했어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황당하고, 얼척 없고, 열 받아.

짜증나!

“됐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곰 인형을 란에게 던져버렸다. 자신이 만든 그 인형을 낚아채듯 잡은 란이, 나를 향해 안경알을 반짝이며 말해온다.

“필요할 거야.”

“그딴 인형이 저한테 왜 필요한데요? 이름이나 바꿔요, 불쾌하니까.”

“보통 인형이 아니라고, 이거.”

“보통 인형이 아니든, 범상치 않은 인형이든 간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 이번 한 번만 내 말대로 해, 아샤.”

란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내 손목을 잡아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이내 나의 품안에 곰 인형을 꼬옥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가지고 있어. 단 한 순간도 곁에서 떼놓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까지 말이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못했다. 란 녀석이 꽤 진지하게, 그리고 호소하듯 말해오는 바람에 차마 매몰차게 ‘싫어요, 안 가져!’하고 인형을 홱 내던져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대체 이깟 인형이 뭐라고 부탁하듯 말하면서까지 내게 건네주려는 거지? 그 싸가지 없고 한 자존심 할 것 같던 녀석이 성격을 죽이면서까지 말이다. 엄청 이상하잖아.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하자니, 그 이상한 놈인 란이 말한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무슨 말이요?”

“야벨에 대해 했던 얘기들.”

“ 그게 왜 지어낸 말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고작 그런 장난이나 치자고 변신 마법까지 써서 널 찾아갔을까 봐?”

란이 내 어깨를 어깨동무하듯 붙잡는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야, 쟤네. 무슨 사이라도 돼?’라며 수근덕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덕분에 기분이 무진장 더러워졌다. 지금 나의 기분은 매우 격렬하게 외치고 있다. ‘엮지마, X발!’이라고.

그런 내 속마음을 본인 머리에 들어있는 개념 세포의 숫자만큼이나 모를 란이, 내 어깨를 붙잡은 채로 앞으로 밀어왔다. 나가자는 듯이.

그리고는 남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걸으면서 내 귓가에 속삭여오는데

“네가 이겼어.”

란다.

“제가 뭘 이겼는데요?”

“나와의 내기에서. 루이스에게서 기사의 맹세를 받아냈잖아.”

“ 아직 안 받아냈는데요? 받아낼 생각도 없고.”

“녀석의 입에서 기사의 맹세를 맺어주겠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됐어. 네가 이긴 거야.”

!?

뭐? 고작 그런 말 한마디 들은 걸로 이길 수 있는 내기였어?

황당함에 절로 입이 벌어진 나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안경잡이를 향해 따지듯 물었다.

“그게 무슨 ! 그렇게 이기는 게 어딨어요?”

“내 마음이야.”

“아니, 뭐 저야 꽁승이니 좋긴 한데, 보상은 제 목숨이잖아요. 기사의 맹세도 안 맺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

전시회장은 2층에 위치했다. 전시회장을 빠져나온 후, 복도를 걷던 나와 란. 마치 무진장 다정한 사이라도 되듯 한쪽 팔로 어깨동무를 했달지, 오붓하게 끌어안은 모습이랄지 애매한 포즈로 바짝 붙어 걷고 있던 우리들.

다른 누구도 아닌 하필 란, 이 자식이라니. 몹시 오바이트가 쏠리는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 거부하고 도망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일단은 묵묵히 걷는 그를 따라 나도 함께 걸어보는데.

“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했잖아.”

한동안 침묵하는가 싶더니, 인적이 드문 복도에 진입했을 때 저렇게 말하는 그. 그리고는 이내 멈추며 어깨동무를 풀더니, 몸을 돌려 나를 정면으로 바라봐오는 게 아닌가.

나도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곰 인형을 끌어안은 채.

늘 그렇듯 재수 없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의 불투명한 안경알에,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반사되어 내 눈으로 비친다. 반짝- 하듯.

덕분에 눈이 부셔 살짝 눈가를 찌푸리던 찰나,

“내가,”

그는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살려줄게.”

라고 란은 말했지만.

그게 어디 진심이겠어? 내가 그의 헛소리를 듣는 게 어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은근히 진지했던 그의 표정이 머릿속에 짙게 남아, 나는 도망치듯 빠져나와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내내 목에 생선 가시라도 걸린 듯한 찝찝함을 느껴야 했다. 나를 살려주겠다니. 그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이건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대체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며, 누구보다 내가 죽을 미래를 호언장담하던 이가 바로 그 녀석 아닌가. 그런데 갑작스런 그 말이며 행동들은 대체 무슨 의미인지

혹시 구라인가!?

오, 그래.

“제일 그럴싸한 생각이야.”

그래. 그냥 나를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남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도록 엿을 먹이는 작전이었던 거다!

내가 떠올린 경우의 수였지만 제일 정확한 것 같아, 그에게서 받은 곰 인형을 빤히 쳐다보며 홀로 중얼거렸다. 누가 그 엿 홀랑 까먹어줄 줄 알고? 어림없는 소리!

침대 위에 올려둔 그 인형의 새카맣고 동그란 눈동자와 한동안 눈싸움을 하자니, 문득 드는 생각.

인형 이름을 ‘아샤’라고 짓다니. 역시 무례함도 도가 지나친 자식이라니까. 지가 만든 인형에 왜 내 이름을 막 갖다 쓰는 건데? 그것도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맡고 말이야. 저승에 가서 허락 맡고 온 다음에나 붙일 것이지, 흥.

그놈 손으로 만들어져서인지는 몰라도, 귀엽기는 한데 좀 재수 없게 생겼다. 곰 인형의 이마를 밀어버리자 인형이 뒤로 나자빠진다. 침대 위에 벌렁 드러누운 인형을 빤히 쳐다보자니,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저게 어딜 봐서 마법 대학생이 만든 마법 전시물이지?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그냥 보통 인형이잖아. 드래곤볼에 나온 전투력 측정기를 끼고 본대도 ‘저 인형의 마력 0이야!’라고 외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 괴팍한 놈한테서 ‘이상한 인형’이 아닌 ‘보통 인형’이 탄생했다는 게 의아하긴 한데, 어쨌거나 겉으로만 보자면 그냥 인형이었다. 누르면 소리라도 나나 싶어 배를 꾸욱 눌러보았더니, 역시나 아무런 반응도 없다.

뭐야, 이거. 혹시 불량품일까?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음 ”

이 인형이 아니라 란, 그 자식이 불량품이겠지. 인형이 무슨 죄냐. 이내 나는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인형을 침대 옆 협탁 위에 앉혀두었다. 저런 걸 왜 가지고 있으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리 간곡히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일단은 둬보자.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유서 다시 써야 되잖아! 젠장.”

기숙사에 돌아오고 나니 기억이 났다. 그 빌어먹을 새 아니, 그 도움 안 되는 인간이 내 유서를 비웃고 박박 찢어버렸다는 사실이.

아오, 그놈이 날 살려 주네 어쩌네 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진짜로 죽게 될 거라면 그래도 유서는 남겨야겠는데, 또다시 종이 한 장을 깜지 수준으로 가득 채울 생각을 하자니 머릿속이 깜지 마냥 새카매진다.

그런 건 고등학교 때도 안 해본 건데! 아, 왜냐고? 물론 나는 공부를 지지리 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친단 말인가? 이게 다 란 놈 때문이야!

“도움은 안 될지언정 !”

부들거리며 책상으로 향하는 나. 그리고 나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이때까지가 나에게 있어 가장 평화롭고 무난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똑똑-

“응?”

이번엔 누구야! 설마 또 란, 그 녀석은 아니겠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문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없는 척할까? 영 불안한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는다고, 나는 그 명언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의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란일 것만 같은 이 좋지 않을 예감을 ‘에이, 기분 탓일 거야’라고 무시해버릴 수만은 없었다.

그러니 심호흡을 했다. 열어주긴 열어줄 건데, 또 그놈이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아도라로 변신해서 방문 앞에 찾아왔다던가, 뭐 그런 스토리라면 더는 참지 않고 란 놈의 면상에 라이징 어퍼컷을 꽂아버리겠다.

지금의 나는 매우 진심이었으므로, 유니폼 소매를 주섬주섬 걷고선 문을 열어주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열었는데

“ 엥?”

문이 열리고 보니, 눈앞에는 웬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있었다.

이게 웬걸? 란 놈이 아니라, 메이드들이 내 방 앞에 잔뜩 서있는 게 아닌가.

몰랐던 사람도 있겠지만, 이 대학에는 메이드들이 존재한다. 세탁실 메이드, 청소 메이드 등등. 조수들은 학생들의 수업 준비를 도와주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역할이지, 식모 역할이 아니다 보니 대학에는 그녀들의 존재가 필수였다. 몰랐는가?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아두시길.

“무,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건 대체 뭔 일이야? 메이드들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여섯이잖아. 대학의 일로도 바쁠 메이드들이 자그마치 여섯 명이나 내 방문 앞에 찾아오다니. 나는 메이드들과 원수를 진 적도 없고, 이렇게 따로 찾아오게 만들 만한 어떠한 접점이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게다가 무슨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런 나한테 무슨 볼일이지?

나의 물음에, 메이드들 중 가장 앞에 나와 있던 여성이 답해왔다. 그런데, 그 대답이 멍청한 내 뇌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아샤 님의 짐들을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와서요. 그럼,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 짐을 왜 응? 저, 저기요?”

메이드들은 속전속결, 내 허락도 떨어지지 않았건만 한시가 급하다는 듯 빠르게 내 방에 진입하더니 이내 짐들을 챙기기 시작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캐리어 안에 챙겨 넣고 있는 모습들인데, 놀랍게도 저 물건들은 모두 내 짐이었다. 저들의 짐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듯 쓸어 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잠깐만. 내 짐을 옮기다니, 어디로? 란이 준 곰 인형도 캐리어에 쑤셔 넣는 메이드들을 지켜보며 드는 의문이었다.

내 허락도 없이 대체 어디로 옮긴다는 거야? 뭐지? 이 갑작스러운 전개는.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헉, 이거 혹시 나

“쫓겨나는 거예요!?”

곧 죽을 목숨이라고 대학에서 내쳐지는 거야!?

내가 경악하며 양손바닥을 볼에 댄 채 소리치자니, 그런 내게 분주히 내 옷장 속 옷가지들을 챙기던 메이드들 중 하나가 대답해왔다. 이번에는 이러는데.

“아뇨, 쫓겨나다뇨? 무슨 그런 말씀을. 소식 못 들으셨어요?”

“무, 무슨 소식이요?”

“ ? 이제부터 류이 님을 모시게 될 거라고, 루이스 님의 조수 기숙사에서는 방을 빼라 하시던데 ?”

“뭐, 뭐시라고라 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 누, 누구 맘대로! 대체 누구 마음대로 나를 루이스가 아닌 류이의 조수직으로 옮겨버렸단 말인가. 나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연락조차 듣지 못했는데. 대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래도 되는 거야? 나는 자그마치 이백만 베른이라는 거금으로 레플리카 공작에게 사들여진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류이의 조수가 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계약서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레플리카 공작가의 노예나 다름없는 입장이 아니었나.

황당함이라는 구정물을 뒤집어쓴 느낌으로, 나는 놀라 커져버린 동공을 원상복구하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이상한데. 뭔가 많이 이상한데.

이럴 수 있는 건가? 레플리카 공작가의 알 수 없는 내막에 의해 루이스의 조수가 된 내가, 이렇듯 쉽게 홀랑 주인을 갈아탈 수 있는 거였어 ?

그게 가능해? 어떻게? 레플리카 공작은 그러도록 가만히 냅뒀대?

왜? 어째서?

“가시지요. 당분간 지내시게 될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메이드들이 나를 향해 저리 말해올 때, 조용히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벌인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자 주범은 내 근처에 있을 거라고.

그렇기에 나는 결심했다.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더불어 미리 언질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내 주인을 바꿔버린 이의 얼굴에 파멸의 일격을 꽂아버리겠다고 말이다. 나를 위해 한 일이건 어쨌건 간에, 말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건 나한테 실례 되는 행동이잖아.

그런 다짐을 하며 메이드들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나는 그 범인을 직접 찾아가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랬다.

“당분간 이곳에서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샤 님.”

그녀들을 따라 멍청한 표정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나는 류이의 방 앞에 와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더러 들어가라는 듯이 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뭐?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라고?

“아, 아니 이게 뭔 ”

이제는 더 놀랄 힘도 없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단비처럼 팔다리를 휘저으며 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격하게 느꼈다.

앞 뒤 맥락도 없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다 나를 내던져둔 채, 메이드들은 류이의 기숙사 방문을 닫은 후 사라져버렸다. 그의 드넓은 기숙사 방 안에는 오직 나만이 남았다.

그렇다. 넋 나간 표정을 한 나만이 말이다.

심-각.

생각하는 사람 포즈를 한 채, 궁전 같다 생각했던 류이의 방 중앙의 으리으리하고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생각중인 나. 시간은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방의 주인 되는 놈 아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도 그는 황자인데. 일단 란 녀석과는 차원이 다른 신분이니까, 존칭은 써주자.

그놈 님께서는 아직 방에 돌아오지 않으셨다. 시약 대회가 파한 후, 내 죽음을 예견 당해버려 이곳에서 잠시 회의 타임을 가졌던 이후로 나의 눈앞에는 내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틀 뒤면 죽을 자신의 파트너를 이런 기숙사 방―으리으리하다지만―에 처박아두고서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를 빠득빠득 갈며 그를 기다렸다. 물어볼 게 많다. 따져야 할 것도 많고. 때려줘야 할 부분도 족히 많다고 본다.

그도 그럴 게, 나는 감금당했다. 않이! 억떡계 이럴 수가 있어!

“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붙잡고서 앞뒤로 마구 흔들어보는데, 진짜 진심으로 ‘꼼짝’조차 하지 않는다. 잠가버려 안 열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미동조차 안 한다는 소리다. 단 0.1mm조차도.

아무래도 마법이 걸려있는 문인 듯.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꼼짝도 안 할 리가 없다. 이런 건 마블리가 와도 못 열어. 마침내 나는 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 걸 포기했다.

문이 안 된다면, 다른 곳은 나갈 데가 없냐고? 내가 안 찾아봤겠는가?

문이 안 열린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곧장 창문으로 뛰어갔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려 해보았는데

‘풋, 열릴 줄 알았니?’ 하는 느낌으로 꼼짝도 안 했다. 문과 마찬가지로 마법에 걸린 상태였던 것이다.

마법 중에 보안 마법이 있는 걸 알긴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철통같은 마법인 줄은 몰랐다. 게다가 바깥의 자질구레한 소음들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걸 보아하니, 마법을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개를 겹쳐서 쳐놓은 것 같은데.

몰랐다. 뭐, 이런 다중 보안 마법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인물 취급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대체 어떤 마법이 얼마나 걸려 있는 걸까 싶어, 창문을 손등으로 똑똑- 하듯 두드려 보았다. 하지만 ‘똑똑’하는 소리가 아니라, ‘텅텅’하는 소리가 났다. 보호막도 쳐져 있는 모양.

와, 대체 몇 겹이야? 어지간한 두루마리 휴지보다 두껍겠다, 젠장.

“아이고, 두야. 하여튼 내 팔자, 한시라도 멀쩡한 날이 없어요.”

이마를 짚으며 혼잣말을 하다가, 짜증을 못 이기고 중앙의 소파로 돌아가 벌러덩 드러누웠다.

대체 이 방 주인은 어디로 간 거야? 분명 나를 이곳으로 옮기게 한 원인은 류이인 것 같은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할 게 아닌가. 아니면 하다못해 루이스라도 만나게 해주던가, 이렇게 감금해버리는 건 또 뭐냐고.

가뜩이나 오늘 오전부터 투영의 비약으로 인해 겪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드넓은 방에서 내 얼마 안 남은 시간이나 때우고 있어야 한다니. 억울해서 지금 당장 내 인생 조기졸업 해버리겠다.

그래도 황자나 되는 인물에게 ‘내 시간 책임져욧!’하며 앙칼지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일 테니, 지금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자. 그게 좋겠어. 차라리 살해당하는 게 낫지, 불경죄로 죽는 건 좀 불명예잖아?

울분을 삭히기 위해 심호흡을 내쉬며 드러누운 채로 가만히 있었다. 후하, 후하. 들숨, 날숨. 그러고 있자니 잠이 솔솔 왔다. 이 침대, 내 방에도 하나 놔주면 좋겠는데

내 방 응? 내 방이라고? 어라, 잠깐!

“?”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옆으로 고개를 돌려 보니, 메이드들이 이 방의 문 앞에 놓고 간 내 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이때까지 머물렀던 내 방의 짐들을 모두 뺐지 않은가. 그럼 지금 상황은 대체 뭐지? 내 방에서 짐을 빼고 그 짐들을 이 방으로 옮겼다는 건

당분간 내가 쓰게 될 방이, 바로 여기라는 뜻인가!?

메이드들에게 안내 받아 들어올 적에는 하도 황당해서 이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곳은 조수 기숙사가 아니라 학생 기숙사, 그것도 다름 아닌 ‘류이의 기숙사’가 아니던가. 설마하니 성별부터가 다른 그와 이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쌀 리는 없고. 류이가 이 방을 비워준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헐, 뭐지. 그럼 이거 완전 개막장이잖아. 이게 만약 어느 소설의 내용이라면, 나는 그 작가에게 댓글로 ‘제발 의식의 흐름대로 쓰지 마시고 뇌의 흐름대로 글을 써주세요!’라는 말을 할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내 목숨이 경각을 달리고 있다 해도 그렇지, 타국 황자의 방을 뺏어 쓰는 건 또 뭐야. 너무 얌체 같지 않나? 류이의 방이 다른 학생들 방보다 보안이 몇 배는 더 튼튼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모든 건 그를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빌려주고 그래도 되는 방이 아니라는 건데.

이쯤 되면 천민 주제에 너무 과분하게 호강한다, 나. 아니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려보는 호사인 건가? 이대로 죽어도 호상이라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런 심란한 생각에 잠기자니 난데없이 내 귓가에 시계 초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식하기 시작하니 끝도 없이 잘 들려온다. 이런 제길, 시간 가는 게 너무 잘 의식되잖아? 괘종시계의 초가 ‘째깍’하며 흐를 때마다 내 머리에서 뇌가 ‘들리니? 우리들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소리가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오는데,

“ !”

문득 나는 자각했다.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무료하다는 것을.

그래, 뇌 녀석이 하는 말도 틀린 게 없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들 하지만, 내 목숨의 유통기한은 고작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은가. 똑같은 1분 1초라지만 지금은 남들보다 내 시간이 더 귀하고 중하다.

지금 상황이 얼척 없건 타당하건 간에, 중요한 건 이틀 뒤에 내가 죽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뭐라도 하자. 이렇게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아. 간만에 쓸모 있고 보람찬 생각을 해내는 데에 성공한 나는, 이내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보았다.

책을 읽을까, 아니면 아까 찢겨버린 유서나 마저 쓸까.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눈앞에

문득 류이가 쓰는 물건인 듯, 체스 판이 포착되었다. 호오, 유서는 손 아프니까 나중에 쓰고. 일단 지금은 저걸 갖고 놀아볼까?

방 한쪽 구석탱이의 서랍장으로 향해, 그 위에 거의 장식품 수준으로 놓인 체스 판을 들어다가 중앙의 소파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들고 왔다. 이 소파가 폭신해서 좋단 말이지.

이내 체스 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서랍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판 안에서 체스 말들을 꺼냈다.

자, 내가 이걸 갖고 뭘 하고 놀 것이냐면은!

“따란! 이름하야 역할극.”

혼자 놀기의 달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나는 체스 판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체스 말들을 테이블 위에 알맞은 위치로 딱딱 배치했다. 이것이 학익진! 이것이 장사진!

같은 유식한 장난을 치려던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영양가 없고 나만 즐거운 장난질을 치기 위함이었다.

“이 자식이 재수 없게 생겼구만. 네 이름은 란이다!”

그 재수 없게 생긴 말은 킹이었다. 자그마치 퀸은 류이.

룩, 비숍, 퀸, 킹 등에 각각 이름을 지어준 후 나는 본격적인 역할극에 돌입했다. 이번 역할극의 제목은 바로

“타짜 !”

너로 정했다!

주제를 정한 후 이름을 붙인 체스 말에 빙의해 일인 다역을 시작했다. 번갈아 가며 대사를 쳐주는 게 이 혼자 놀기 방법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아샤! 그 패 봐봐. 혹시 장이야!?”

크흠크흠.

“패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붕게.”

이런 식으로 혼자 열연을 펼치는 것이다. 이게 뭐가 재밌냐고?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텔레비전도 없는 세계에서 태어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게 재밌어지게 되어 있다.

이 짓도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 예전에는 길에서 돌멩이들을 몇 개 주워다 드라마 한 편을 재연해보곤 했는데, 이제는 체스 말이라는 고급 인력(?)들로 한 편의 영화를 찍게 되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소소한 뻘짓에서 재미를 느끼는 나는, 계속해서 열연을 펼쳤다.

“이 ‘삐-’ 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삐-’, 황자라는 놈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허허허허!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황자 신분을 건다. 둘 다 묶어!”

이 부분에서 뭔가 묶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내 조수 유니폼 끄트머리에 달린 실밥이 보이기에 쭉 잡아당겼다. 다행히 체스 말 두 개를 묶을 정도의 길이가 나와, 주섬주섬 란과 류이―라는 이름의 체스 말들을―를 묶었다.

크흠크흠! 이야, 이거 좀 많이 재밌다. 간만에 몰입 되는데?

“준비 됐어? 까볼까? 자아,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겄습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딴 쿵짝짝 쿵짝짝 ”

!

“사쿠라네? 사쿠라여!”

유명한 그 장면을 여러가지 목소리로 재연하며, 이 정도면 내가 배우나 성우에 소질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진지한 생각이 들던 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뭐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딴 바보 같은 역할극을, 이곳에서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다.

나는 몰랐다. 이전의 류이에게 저질렀던 만행보다 더한 흑역사를 내 손으로, 내 목소리로 만들어버리게 될 날이 올 줄은

나는 어리석었다. 란 놈이 어리석음의 일반 커피라면, 나는

TOP였다.

“저기요! 왜 우리 황자님 손목이 잘리는데요!”

“으아아악─! 엄마야!”

옆에서 빼액! 하듯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와, 나는 기겁하며 체스 말을 내던졌다. 허공으로 날아간 체스 말들이 이내 바닥으로 떨어지며 데구르르 나뒹굴 때, 나는 놀란 토끼눈을 하고서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 무슨 소리야, 이거! 분명 이 방에는 나밖에 없었

는데-!?!?!?

“어, 어, 어, 어, 언제 오셨어요-!?!”

“어, 음 그게 ”

언제부터 이 방안에 와있었던 것인지 모를 ‘그’는, 뭐라 말을 잇지 못하며 한손으로 입을 가린다. 언제부터! 대체 언제부터 이 방 안에 와있었단 말인가-!!!

나는 하얗게 질린 표정을 한 채 그와 마찬가지로 입을 틀어막았다. 어, 어버버 나, 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한 거니? 이거, 실화니 ? 제발 픽션이라고 해줘. 제발! 픽션 쿠다사이! 민나 타스케떼!

“‘아샤, 그 패 봐봐. 혹시 장이야!?’ 라고 할 때부터요.”

그러나 눈치 없는 진의 주둥이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몹시도 솔직했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 봤다는 거네?

“앗 아아 ”

나는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마치 눈이라도 내린 듯 하얗게 바래가고 있음을 느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아니, 대체 무슨 황당한 짓을 들킨 거야?

이렇게 혼자 노는 꼬락서니는, 이번 생의 부모님한테서도 들킨 적이 없었는데 !

아, 아아 역시 이번 생은 처음이라

망했다.

“저 그냥 뛰어 내릴게요.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여기 2층이라서 안 죽어, 아샤.”

입을 가린 채 그, 류이가 대답해왔다. 왜 입을 가리고 있나 했더니, 웃고 있는 모양이었다.

웃어? 웃음이 나오니?

그래, 나오겠지 나 같아도 나오겠다. 어이없어서라도 나오겠어.

“아니, 왜 우리 황자님이 손목 잘리는 역할이냐구요! 그거 불경죄예요, 아세요?”

불경죄고 나발이고 간에, 그 입 좀 닫아줄래? 진.

지금 나, 몹시 울고 싶어졌으니깐 말이야.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아, 아니에요 ”

지금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가 아니라 바닥에 드러누워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쪽팔린 상황을 들킨 걸로도 모자라, 울고 불며 질질 짜 퉁퉁 부어버린 얼굴까지 보여줬다간 앞으로 남은 이틀조차도 살기 싫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꾹 참았다.

차오르려는 쪽팔림의 눈물을 참느라고 힘을 준 덕분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는데. 이내 그런 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리 된 것이라 판단한 듯, 겉옷을 벗던 류이가 흠칫하더니 마치 귀여운 생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는다.

? 저런 눈빛은 나를 향해 지을 만한 게 아닌데?

“앉아, 아샤.”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야. 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니, 겉옷을 벗은 후 진에게 건네준 류이가 여태껏 내가 앉았다 누웠다하며 뒹굴거린 소파를 가리키더니 앉으라 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앉으려던 참이었어. 음.

“무슨 차를 좋아해?”

나의 맞은편에 앉은 류이가 물어왔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커피는 원래 안 좋아하고, 홍차는 쓴맛이 나서 싫어하고,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건

“오렌지 주스요.”

“진, 들었지?”

“아이, 황자님도 참. 저는 메이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참에 메이드로 만들어줄까?”

“푸훗!”

“ 다녀올게요.”

사실 반 장난으로 한 대답이었는데, 류이에게 구박 당하던 진이 몹시 쭈구리 같은 표정을 짓는 바람에 그걸 지켜보던 나는 빵 터져버렸다.

덕분에 ‘괜찮아요, 안 마셔도 돼요!’라고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야 말았으니. 류이의 대답을 듣기가 무섭게 진이 텔레포트로 사라져버려, 돌아오라 말할 틈도 없었다.

으아, 미안해라. 저번에 나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줬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네? 데헷.

같은 생각이나 할 때가 아니라.

“저한테 해야 할 말이 있으시죠, 황자님!?”

따져야 할 때잖아, 지금!

진이 사라지고, 기숙사 방 안에 적막함이 찾아온 후에야 나는 잊고 있던 본론을 떠올려냈다. 흑역사 랭킹을 갱신해버린 바람에 잠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 본론은 이거였어!

내 물음에, 류이가 물론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많이 당황했지? 미안해. 긴급회의에 다녀오느라, 네게 언질해줄 틈이 없었어.”

! 빠른 사과를 받아내 버렸다. 헉. 야무지게 따지겠다 마음먹었던 것들이 변기통에 빠진 휴지조각마냥 흐물흐물해져버리고 있어! 어쩔 수 없지.

물을 내려버렸다. 뭐, 류이가 란 같이 막 나가는 녀석도 아니고. 굳이 따지지 않아도 충분히 내게 오목조목 설명을 해줄 만한 사람이지 않은가. 나는 심호흡을 하며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힌 후, 그에게 한층 차분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제 주인님이 바뀐다니. 루이, 아니. 주인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순순히 그렇게 하재요?”

“ 딱히 거부할 이유도 없잖아? 루이스는.”

“아, 그것도 그런가.”

류이가 내 눈동자를 빤히 응시해오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꺼낸 대답에 나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듯 받아쳤다.

듣고 보니 그렇네. 루이스가 ‘아샤는 절대 못 보내!’하며 거부 의사를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처럼 내 목숨이 위험해진 것도, 다 내가 그의 조수가 되어서 그런 건데.

내가 루이스였다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서라도 어떻게든 다른 이의 조수로 보내주려 했을 것 같다.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타당한 류이의 말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젠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군. 주인에게서 버림 아니. 루이스가 날 버리고 싶어 버렸겠냐만은, 어쨌거나 주인이 바뀌게 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부터 류이가 내 주인님이라고? 허, 참. 저번의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도 엄청 어색한 사이인데. 게다가 하필이면 류 제국 황자라니 공작가 후계자로도 모자라, 이젠 황족씩이나?

원치 않게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 밑장도 빼지 않았는데 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내 파리 똥구멍만한 간과 심장이 견뎌내기엔 너무 무리라고, 이런 거.

“저, 그러면 류이 님 말고 다른 사람의 조수가 되는 편이 차라리 ”

나는 고민과 동시에 입으로 주절거리며 이런 말들을 뱉어냈다. 그런데 문득 말을 하다 말고 생각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잠시 잊고 있었던 이백만 베른이었다!

허미, 세상에! 그러고 보니 나, 이백만 베른 중에 단 1베른도 갚지 않았다. 애초에 내가 빚진 돈이 아니니 갚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쨌거나 레플리카 공작이 나를 이백만 베른에 사들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즉 다시 말해, 내 이백만 베른이라는 빚은 건재하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

“저, 저기 혹시! 레플리카 공작가에 돈을 주고 절 사오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듯 그에게 물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그 이백만 베른은 류 제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아니겠는가!

나도 천민 된 입장으로서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떼여봐서 안다. 없는 이들의 고달픈 심정을. 류 제국은 프란치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하니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바친 아까운 세금으로 나를 사들인 건 아니겠 !

“ 응?”

지 아, 아닌가?

류이가 눈을 휘둥그레 뜬다. 마치 ‘사다니, 내가 뭘? 너를?’하는 느낌인데. 시치미를 떼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모른다는 이의 표정이라, 그만큼이나 황당하단 눈빛으로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를 그냥 순순히 놓아줬다고요? 루이 아니, 레플리카 공작이?”

“레플리카 공작과는 무슨 상관이야? 너는 루이스의 조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류이가 진짜 모른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데, 나는 고민에 휩싸였다. 모든 정황을 사실대로 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내 내린 결정은 후자였다. 말해봤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행여나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다. 인심 좋은 류이가 ‘그 이백만 베른,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러면 되는 거야?’라고 말하기라도 하면,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지겠는가? 그랬다가는 정말 류 제국의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인심은 죽어도 사절. 끄덕. 고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거의 노예 신분이라, 공작님이 과연 공짜로 넘겨주신 건가 싶어서요.”

“노예였어?”

“엄밀히 말해 노예는 아니지만 팔려온 천민이라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죠 뭐.”

“그랬구나.”

류이는 마치 나를 엄청 딱한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측은하다는 듯이 가만히 바라봐온다. 그런 동정도 사절인데.

흐음. 뭐, 황자 된 입장에서 천민이니 노예니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어볼 만한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주변이 온통 천민 아니면 노예들이었기에 그들을 딱히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그것도 황자씩이나 되는 이에게 받아보자니 새삼 기분이 묘하다.

더러운 것도 아니고, 막 고맙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네, 이거.

하여튼 류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확실한 듯. 레플리카 공작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이백만 베른이면 자그마치 한화로 20억인데. 그런 큰돈을 주고 데려온 나를,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류이에게 넘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적선이 취미인가. 혹시 구세군 같은 단체를 운영 중인 건 아닌지 알아봐야겠는데.

어쨌거나 내 주인이 진짜로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 메이드들이 친절히 짐까지 옮겨준 걸 보면 말이야.

지나가다가 루이스를 마주치면 이렇게 말해야겠어. ‘주인님! 저 없이 얼마나 불편한지 한 번 느껴보세요, 깔깔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물어볼 게 또 생각났다. 나는 루이스에 대한 생각을 하던 걸 접어 두고, 류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방, 당분간 저한테 빌려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럼 황자님은 어디서 주무시게요?”

“응? 어디서 자냐니. 여기서 자지.”

“ 네? 아까 메이드들이 그러던데요. 당분간 제가 여기서 지내게 될 거라고 ?”

“아?”

류이가 ‘아차!’하는 표정으로 돌변한다. 그리고는 난처하다는 듯 슬그머니 손으로 살포시 입을 가리는데 뭐야! 너도 거기까진 생각 안 해본 거였냐!

아무리 천민이랑 황자라 해도 그렇지. 그래도 타고난 염색체가 xx와 xy인데, 어찌 한 방에서 같이 잘 수가 있단 말인가. 남녀칠세부동석 몰라? 서양 나라엔 그런 거 많잖아!

“저더러 여기서 지내라는 건 누구 뜻인데요? 루이스? 아니면, 황자님?”

이건 좀 아니다. 아무리 내가 이틀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지만, 그래도 그런 나보다 황자 신분인 류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 그러니까 만만한 이의 의견인 거라면, 그냥 다른 방에서 지낼 테니 기사만 몇 명 붙여 달라 하자. 차라리 그게 낫잖아?

라고 생각해 물어본 나의 말에,

“아니, 황제폐하.”

라고 류이가 대답해왔다. 뭐?

형, 아니. 황제가 거기서 왜 나와?

왜 나와!? 낄끼빠빠 몰라? 왜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예!?

머릿속에서 뇌가 황제 아싸설을 제기해오고 있는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을 꾹꾹 억눌러가며 그에게 물었다.

“ 그, 아니, 그러니까. 폐하께서 왜요? 제가 이런 황자님의 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던가요 ?”

“응.”

“그러면 차라리 제가 다른 방에서 보호를 받는 건 어떨 ”

“안 돼.”

?

아니, 대체 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내게, 류이는 부연설명을 붙여왔다.

“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안 마법이 제일 강력한 내 방에서 너를 보호하자는 결론이 나왔어. 반드시 이틀 뒤의 파티에서만 네가 죽으리란 보장도 없는 데다, 이번 대회의 파티 때 네가 죽는다는 건 이곳 대학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니까.”

"?"

흐음. 뭐, 그래. 내가 그 폐하께서 주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죽는다는 미래를 보았긴 하지만, 반드시 파티장에서 춤을 추다 말고 죽으리란 보장은 없지. 예를 들어 드레스룸에서 드레스를 갈아 입던 중에 습격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파티 전날에 드레스를 미리 입어보다가 죽는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류이의 방에 걸려있는 보안 마법들이 하루 이틀 걸어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해 다른 기숙사 방에다 보안 마법을 걸기 시작한대도, 류이의 방만큼이나 완벽한 보안 마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할 거란 얘기.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즉, 이 대학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류이의 방이라는 거니까, 이 방에서 나를 보호하자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아이디어만은 아니야. 나도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요? 왜 제가 죽는 게 대학에 있어선 안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세 명이나 죽었다고 들었는데, 황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요.”

딱히 죽고 싶어서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좀 의아했다. 루이스의 조수가 죽어나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난 네 번째 타겟이지 않은가. 그 세 번의 사례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지금처럼 난리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어째 당사자인 나보다 더 소란스러운 반응들인데.

내 물음에, 류이가 ‘정말 모르겠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내게 답해왔다.

“심장마비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마법은 시전자가 목표 대상과 신체적 접촉을 한 상태여야 가능해. 그렇다는 건, 파티 당일 네 근처에 범인이 접근해올 거란 얘기가 되지.”

“아?”

“지금까지는 루이스의 조수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잖아. 투영의 비약으로 죽기 한 시간 전의 네 모습을 확인했고, 또 네가 황제폐하께서 주신 드레스를 입고 살해당한다는 건 파티장에서 습격을 당할 거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

“지금처럼 철저한 경비 태세에 돌입한 마법 대학이 뚫린다면, 황궁이라고 안전할 리가 없어. 그 때문에 프란치아 황실에 지금처럼 비상이 걸린 거야.”

응?